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2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2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은 괴로움을 가져온다.
〈육바라밀경〉

법회 안내

거암정사포교원(02)379-694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건강법회 매월 마지막 주 일 오전10시30분

여의도 포교원 (02)784-9136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경전공부 목 · 일 오전10시30분

부산 관음사 (051)205-006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보문청년회 1 · 3주 일 오후2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금강경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대전 영선사(042)523-0813
거사불법회 첫째주 일 오후6시
대불련법회 매주 수 오후6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통해 삼학사 (0394)31-4082
일본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중 · 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광주 대광사(062)222-4613
초심일법회 매월 3일(음) 오전10시
중 · 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혜진선원 (032)693-3326
초하루법회 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금주 20면 발행

별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종토세 면제 긍정 검토"

金대통령 월주총무원장과 요담서 밝혀 교계 비과세관철 다각모색

조계종이 종토세·토초세등 전통사찰 토지에 대한 비과세 관철을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교계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6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시국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단독오찬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종토세등 전통사찰 경내지 비과세를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주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토세 면제·문화재관람료 공원입장료 공동징수 등 불교계 현안을 담은 대 정부 건의서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불교계의 종토세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주스님은 이틀전인 지난 4일에는 종토세 협의를 위한 내무부 장관 면담을 가졌고 지난 7일엔 기획실장 한승스님이 내무부 담당자를 만나 교계의 부과된 토지관련세금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

조계종은 관련부처 장관 면담외에도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자로 각각 문체부장관, 내무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종합토지세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전통사찰이 보유한 부동산은 투기목적이 아니며 처분 허가권이 정부에 있으므로 투기목적에 이용될 가능성도 없다"면서 전통사찰이 비과세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은 지난달 28일 원로회의에서 "정부가 전통사찰 토지 비과세의 불교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산문폐쇄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축출 등을 강행하라"고 결의한 바 있으며 전국 본말사를 중심으로 토지관련 세금 면제 촉구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불교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토지세금 면제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할 뜻을 비추고 있으나 사찰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비과세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교계와의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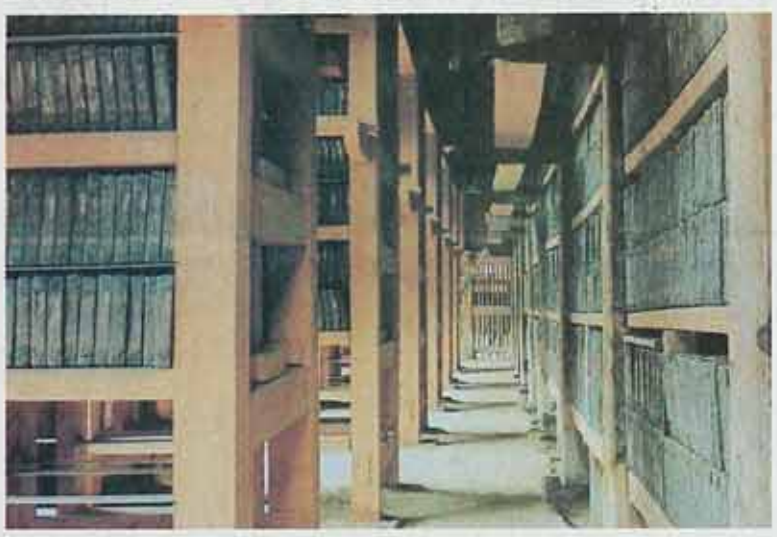
한편 지난달 30일 조계종에 제출된 "1995년 종합토지세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김영민 공인회계사 작성)에 따르면 당정이 마련한 종토세 개정안에는 사찰 경내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종교단체의 주거용 부속토지에 대한 0.3%과세의 농지및 임야에 대한 0.1% 일괄과세는 불교계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현 과세와 비교해 오히려 종토세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교계가 주장하는 전통사찰 소유토지의 비과세 관철을 위해서는 종단차원에서 경내지의 내역을 작성, 과세 당국에 제시하고 그 기준및 근거를 밝혀주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지난 6일 청와대서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단독오찬회동을 가진 김대통령은 사찰 토지세금 비과세 건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팔만대장경·석굴암·종묘 세계문화유산 등록

유네스코 산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위원회는 베를린에서 제119차 총회를 열고 지난 6일 우리 문화재 3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했다. 지정된 문화재는 석굴암(국보 제24호),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과 판고(국보 제52호·사진), 종묘(사적 제125호)등 3건. 세계문화 유산등록을 기념하여 해인사와 불국사는 19일 축하법회를 열고 법패,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관련기사 14면〉

관람료 자율화·예치금제 폐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경미한 개·보수 자유

내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금액 결정이 자율화되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공동징수금이 폐지된다. 또한 사찰 배수로나 도난경보시설 보수, 화장실 문짝·천정 수리, 잔디식재 등과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의 개·보수가 자유롭게 됐다.

관람료 금액 자율화, 예치금 제도 폐지, 경미한 현상변경의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드디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문화재 관람료 인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획일적이던 관람권 양식도 문화재 특성에 따라 다양화 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람료 예치금 제도 폐지에 따라 관람료 예치금을 종단 공동불사와 문화재 수리 및 보수, 당해사찰 불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화재를 보호하는 도난경보시설이나 문짝 천정 배수로 등 사찰의 경미한 부분의 보수에도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고쳐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었던 문화재의 표석·안내판·경고판의 규격·형태도 자율화되고 안내판의 문안 감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찰과 그 지역의 역사와 특성에 따라 불교적 정서가 담긴 예술적인 안내·경고판이 나올수 있게 됐으며 이를 이용한 관광객 포교가 다양해질 전망이며 수익사업 또한 예상되고 있다.

조계종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람료 관리법'을 제정해 관람료 책정 및 수입의 사용·관리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성보전시관 국고지원 해인사등 8곳 40억원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 예산 40억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9점 이상을 소장한 조계사 금산사 수덕사 월정사 해인사 마곡사 용주사 선운사등 8개 본사에 각 5억씩 국고가 보조돼 지방비 5억원 사찰부담 5억원등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1백평 규모의 사찰유물(성보) 전시관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8개 사찰 주지회의를 소집,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을 공동 추진케할 계획이다. 한편 지정동산문화재를 8점 이하 소장한 여타 본사에게는 문화재를 보관할 금고가 지급된다.

목어

우리나라의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판고, 그리고 종묘가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공식 등록됐다. 이들 문화재는 인류가 공동으로 지켜가야할 문화유산의 자격을 공인받은 것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보호운동이 결쳐지며, 보존과 관리에 세계 전문가들의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비로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명실상부하게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경축할 일이다. 특히 한꺼번에 성보(聖寶) 두건이 세계적인 보물로 등록된 불자들의 감동은 더욱 진하다.

조상 '덕' 후손 '몫'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부끄러움을 감출수 없다. 당장, 세계적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공인된 석굴암이 서있고 1천년 신라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역사 도시 경주만 하더라도 경제개발 우선 논리에 밀려 문화정책은 뒷전으로 비쳐져왔기 때문이다. 고속철 관통과 경마장 설치로 발생될 눈앞의 산술적 이익에 천년문화의 과괴도 감수할 태세였던 것도 우리 문화정책의 아픈 현주소이다.

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계기로 반드시 짚어야할 점이 있다. 반만년 문화민족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가르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세계에 알리는데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 문화재는 세계에 첫 신고를 한 셈인데 반해 우리보다 결코 문화적으로 우수하다고 볼수 없는 일본 태국 베트남 조차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몇건씩 등록돼 있다.

우리는 이제 잘난 조상 덕분에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게 됐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유산을 잘 지키고 빛내는 것은 이시대 우리의 몫이다. 문화적 부기와 향락추구로 탕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키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삼성화재만이 드릴 수 있는 新서비스 – ①

"이거, 어쩌나?"

몸은 홍콩인데, 짐은 런던!
그런데, 영어는 Thank you가 고작이니…

휴먼 –
3시간의 비행끝에 홍콩에 도착한 김 대리 –
입국 수속도 마쳤고 이제 짐만 찾으면
휴가가 시작되려는 순간,
앗! 그런데 이게 어때된 일이람? 기다려도 기다려도
짐은 나오질 않고,
게다가 속이 뒤 막히고 어리도 핑 도는 게 급체할듯한데,
이 낯선 공항에서 손가락을 딸 수도 없고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은 어떻게 찾고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누구 도와 줄 사람 없나요?…"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이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께만 제공해 오던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6월 1일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긴급서비스 전문회사인 AEA社 와
제휴하여 의료안내, 여행안내 서비스에서
사고처리 안내까지 –
고객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안내서비스 – 전문의 안내, 의료시설안내, 의료인과의 전화 의료상담안내, 치료일선, 국내가족과의 긴급연락
여행안내서비스 – 여권 재발급 안내, 분실물 회수일선, 출입국비자안내
사고처리안내서비스 – 보상을 위한 현지 구비서류안내, 보상절차 안내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보험회사
삼성화재만의 新서비스입니다.

■ 우리말 도움서비스 이용법
개인연금보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발급되는 카드의 전화번호를 돌리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전화 : 758-7334~6

이웃에 인심을 생활에 큰 힘을
SAMSUNG 삼성화재

사 설

보상은 못할망정 과세라니

사찰토지에 대한 불편 부당한 세금 징수로 불교계가 정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삼보정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인 불교재산에도 마구잡이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대응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까지 누적돼 온 불교계의 토지 관련 세금이 약 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일부 사찰에서는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소송등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있고 일부 사찰토지는 법원의 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종교활동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한다.

본래 종토세와 토초세의 새로운 세금제도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두고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막아야겠다는 현 정권의 개혁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이 제도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불교재산에도 마구잡이로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본래목적을 지나쳐버리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현정권의 부당한 세무행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사찰토지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이다. 두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찰토지는 삼보정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이다. 역경과 도제양성 포교와 수행을 위해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적인 불교재산이다. 특히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존 유지되고 있는 전통사찰은 이러한 역사성과 특수성이 더욱 강하다.

불교재산은 불교가 이땅에 들어 온 후 1600여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나라의 진운에 맞춰 등불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삼보정재이며 민족문화유산이다.

둘째, 이 제도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종교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찰토지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찰토지는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다. 또한 취득한 후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공익과 공공을 위한 사찰토지가 대부분이다. 임야는 대부분이 국립공원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수한 사찰의 토지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전통사찰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셋째, 각종 불교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불교재산은 다른 종교재산보다 많은 규제를 받아 손해를 보고 있다.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하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불교관계법령의 규제로 직·간접적인 많은 피해와 손실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세금부과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등 적절한 구제가 요구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종교간의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불교계에는 혜택이 거의 없는 불평등한 조치이다. 기독교계의 의견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종교 편향적인 종교정책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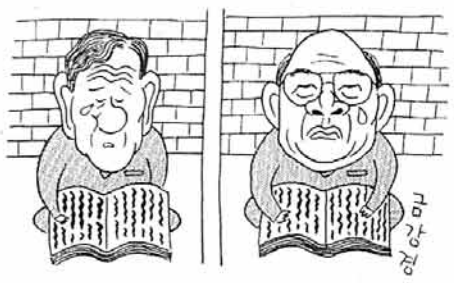
넷째, 약속을 안지키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사찰토지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92년 김대통령이 대권 후보이던 시절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었다. 또한 정부 여당은 그 공약이행에 관하여 여러차례 불교계에 약속했었다. 민자당 고위당직자가 여러차례 잘못된 과세조치의 시정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직시할 때 사찰토지 특히 전통사찰의 토지에 대한 종토세 토초세의 징수는 부당하며 정부와 국회는 관계법령을 하루속히 개정 보완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정권은 더욱 불신임받고 불교계와 불화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만평

박구원



진작에 읽었으면…

열 린 마 당

막바지 이른 선학원 문제

조계종은 종회와 총무원이 함께 '조계종 산하 법인대책위원회'를 구성, 종단과 멀어져가는 법인들의 귀속과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인들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선학원에 대해서 정관개정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선학원은 재단법인에 증여된 재산은 공적재산임에도 종단이 사설사암과 법인소속 사암에 동일하게 기준적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학원은 특히 조계종에서 법인관리법을 만들고 법인 임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시에는 조계종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는 결의까지 하고 있다. 선학원의 탈종단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특수성 빙자 탈종단화 추진 '어불성설'

독자성·자율인정 특별교구화로 귀속

정 우 〈스님·조계종산하법인대책위원장〉



70~80년대 어려운 시대적 여건속에 종단이 많은 진통을 겪을 때 종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종도들의 대피처로서 사암들이 선학원에 많이 등록을 했다. 하지만 종단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날로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개혁불사 이후 선학원의 일부 이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학원 소속 절을 빼앗으려 한다거나 선학원을 해체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선학원 정관에 조계종의 종지를 봉대한다는 뜻을 띳띳이 밝히라는 것과 조계종 종도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또한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또한 선거권 피선거권도 주지 않고 있다. 그 도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지침은 종단과 나아가 한국불교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종단의 의지임을 알아야 한다.

선학원은 더 이상 법인이라는 제도적 특수성을 빙자하여 탈 종단화를 기도해서는 안될 것이며 더 이상 사찰을 등록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도권리제한' 등에 대한 자구책 모색

종단 '분종' 용어사용 갈등조장 말아야

법 진 〈스님·선학원 상무이사〉



재단법인 선학원은 일제의 한국불교 왜색화 작업에 항거하고 민족 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키고자 애국 선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근대 한국불교의 산실이며 해방 이후에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불교정화의 구심이었으며 현 조계종을 탄생시킨 모태다.

개혁종단 출범이후 종단에서는 종헌을 개정하며 각 법인의 종도들의 권리제한 조항을 삽입하여 선학원을 비롯한 여타 법인소속 스님들의 종도로서의 권리를 규제하고 있다. 나아가 도제에 대한 행자 및 강원교육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재단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 결의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종단의 압박에 대하여 재단측에서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일컬어 종단에서는 '분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분종'이라 함은 이념을 달리하는 새로운 종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 종단에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조계종과 선학원은 조직구성만 다를뿐이지 이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종단에서 재단에 가하는 압박이 점차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소속 스님들과 그 도제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재단에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하여 종단에서 분종이라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며 갈등 국면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종단이 여러 법인에 가한 심각한 조치들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각 법인소속 종도들의 권리제한 및 도제에 대한 행자교육과 강원교육을 차단한다는 것은 승려가 되는 길과 승려를 승려답게 만드는 길을 막는다는 것이니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난 조치이다.

그러므로 종단이 종단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한국불교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당당한 행보를 할 때 비로소 종단과 법인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좋은 결과도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종단과 법인들간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 회복이다.

시 론

개혁·청산도 민중의 뜻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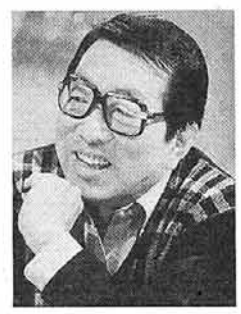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정권교체는 곧 개혁을 의미해 왔다. 근세이후만 해도 대원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목표는 한결같이 구악 청산과 민심 쇄신이었다. 특히 대원군의 개혁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세도정치의 추방, 세제의 시정, 서원의 철폐 등…. 하지만 한결같이 이들은 망명, 암살, 형무소행 등의 불행을 맛보았다. '한번의 좌절은 비극이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되풀이 되는 두번째 좌절은 희극이다'라고 헤겔은 말했다.

한국인은 얼마나 어리석은 되풀이를 체험해야 하는가. 이들이 나름대로의 개혁의욕을 가지면서도 개혁에 실패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되풀이는 변함이 없는 민족의 가치관(원형)이 현대적 상황에 어울리지 못한 데서 나온다.

그 직접적인 이유에는 한결같이 이들의 개혁에는 스스로의 정권기반을 확고히 하기위한 이기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민심을 잃은 것이다. 대원군은 李씨 가문을, 이승만은 이기붕을, 박정희는 '천년만에 되찾은 신라왕권을 위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에게 투표를'의 구호를 외쳤으며, 노태우의 친인척들은 거의가 거부(巨富)가 되었다.

모두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고루한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실상은 남자에게는 이도령을 여자에게는 신사임당을 이상으로 삼게 한다. 신사임당의 인품 학식은 매우 높지만 대지주 양반의 무남독녀에 남편은 벼슬아치, 아들은 조선왕조 500년간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아마도 이순자씨나 김옥숙씨도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었을 것이다. 이도령의 가치관을 살펴보자.



김 용 운

〈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탐관오리 싹쓸이' 역사

'이도령은 장원급제했다'는 말에는 권력지향적인 사고가 깔려 있다. '고향에 내려갔다'는 금의환향이기도 하지만 지역차별을 엿볼 수 있다.

'춘향이부터 구했다'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친인척 애호사상을 읽을 수 있다.

'변사또를 시원스럽게 처리했다'는 결국 싹쓸이를 말한다. 이도령은 싹쓸이로 개혁했으나 그 후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아마도 변사또처럼 탐관오리가 되지는 않았을까.

5·16군사혁명 당시 소장 장교들은 장군들을 '똥별'이라고 했다. 자기들이야말로 4년제의 진정한 장교이고 1세대 2세대 '똥별'들을 싹쓸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어깨에 별을 붙인 이들 정규 사관학교 출신이 오히려 '똥별'이 돼 버렸다.

요즘 TK라는 말이 사라지더니 PK란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우리 정계에는 개혁의 소리와 함께 세대교체의 소리가 높은데 과연 이들 젊은 세대는 어떤 구체적 정책을 갖고 있는가 의심스럽다.

국민국가의 엘리트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민족과 국가의 자랑이다. 이들에게는 난국에 앞장서야 하는 지도자의 책임의식과 귀족정신(Noblesse Oblige)이 중요한 덕목이다.

부패척결 주역 '정보화'

대영제국의 영광은 귀족자녀들이 지닌 '전쟁에서는 일선에 선다'는 정신으로 성취했다. 지난 포클랜드 전쟁때 영국 여왕의 아들 에드워드가 직접 헬리콥터를 조종하며 여러차례 사선을 넘었던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6·25당시 일선에서 죽은 병사의 대부분은 소위 '핫바지 부대'로, 권력도 돈도 없는 계층이 많았다.

5·16 이후 한국 최고 엘리트인 서울대 교수의 병역 해당자중 기피자가 60%가 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귀족정신이 없는 지도자는 마적 두목이나 다름없다. 실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군사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이 어김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귀족정신은 없고 싹쓸이적인 사고가 만연한 결과 한국병은 증폭돼온 셈이다. 싹쓸이 권력독점 세대교체를 자랑하는 이도령적인 사고는 항상 같은 되풀이가 따른다. 권력자의 이도령적 사고가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다양화·국제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 볼 때 이도령적 가치관은 매우 부정적이다.

요즘의 비리·부패 척결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 주역은 정보화에 있다. 이제 어떤 권력도 정보를 독점할 수 없다. 인류는 5000년전 도시문명이 시작한 이후 계속 소수지배자에 의한 통제사회에 있었다. 왕국, 독재,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 체제의 이름은 여러차례 변했으나 한결같이 소수 지배층이 통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정보의 범람으로 처음으로 통제사회에서 자율사회로 넘어왔다. 우리는 스스로의 원형을 인식하여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도록 승화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는 인류사상 처음으로 체험하는 혁명적 상황이다. 지배층은 결코 오만해서는 안될 것이고 정치는 소수 엘리트만의 독점물도 아니다. 권력·정보 조작만으로 국민을 기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리성 자율성에 기반을 둔 민중의 적극적인 개혁참여 의지만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암·중풍·성인병·부인병·신경통·관절염·당뇨병·고혈압·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쑥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흉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쑥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십만원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쑥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요!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확장, 염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쑥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음경맥을 책임지는 경맥중 배꼽, 단전, 중완혈에 쑥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락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적용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와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염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즉 쑥뜸은 쑥을 태울 때 생기는 쑥액기스의 성분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쑥뜸에서는 쑥액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 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염증을 생기게 하는 재래식 쑥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로 병을 치료코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흡한 것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바라밀쑥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약쑥의 생명력으로 질병치료와 미묘한 법열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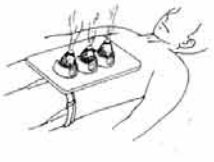
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쑥뜸기둥 랑 반침대

약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쑥액기스와 랑반침대의 약효성분이 합치져서 쑥뜸기의 작용으로 3군데 혈자리 경혈속으로 새지않고 스며들게 하여 5장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염증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맺이는 쑥액기스는 항암, 항균, 항독작용을 하는 인터페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쑥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명약을 얻을 수 있다.



비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 부설 불교비라밀건강연구원 원장
- 10여년간 불교건강법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수련
- 디년간 수천생을 모집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주위사람 도움없이 권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진경요법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회(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 쑥뜸도구잎체 반영구적
3) 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

암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 사용에서 요청시 순회강의도 해드리며 신도들에게 스님께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면 본회에서 일차 스님을 찾아뵙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겠습니다.
(보급후 바로 불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백색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탑다라니(규격:60cm×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덮어주던 탑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발하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깔고 덮는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시도된 탑다라니의 사용이 실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사업의 운세가 호운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고, 수험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의다 합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예. 바라밀 쑥뜸 건강치료요법 책자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삭구수대로 다투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라밀 쑥뜸 뜰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쑥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탑다라니 1폼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 바라밀쑥뜸 치료요법의 원리, 효능, 특징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주시면 바라밀쑥뜸 치료요법책자(저자:각광스님)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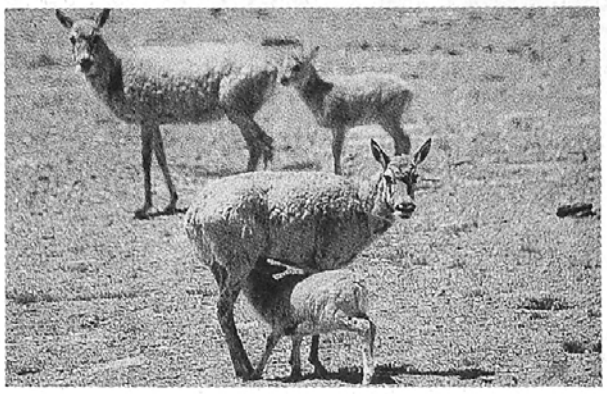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 34-9490, 39-1906 야간 : (0342) 706-3060

생명체 이루는 원천 '윤회의 씨앗'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㊱



◇자양분의 섭취는 생과 죽음의 양면성을 갖는다.

물질·감각·사유·의식영역 모두 포함
향락추구의 섭취는 '화'…절제심 필요

생명의 자양분

부처님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자양분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자양분은 생명현상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현상은 결코 생리적이거나 생태학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넓게는 정신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붓다는 4가지 종류의 생명을 구성하는 자양분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미 태어난 중생의 보존을 위하여, 또한 다시 태어남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네가지 자양분이 존재한다. 네가지란 무엇인가? 물질적인 자양분(搏食)과 두번째로 접촉(체험)이란 자양분(觸食)과 세번째로 의도란 자양분(思食)과 네번째로 의식이란 자양분(識食)이 있다."

생명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자아의 과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체적인 생리적 과정만도 아니며, 자양분에 의해 구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자양분의 과정의 뒤에는 가혹하게 채찍을 휘둘러대는 굶주림이 놓여있다.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물질적 자양분을 갈망하고 마음은 감각적 접촉에 의한 체험을 위시한 자신의 정신적 자양분들을 갈구하고 있다. 이러한 갈구와 갈망을 연기법에서는 갈애라고 부르고 있다.

갈애는 생명현상의 중심에 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가혹한 채찍으로 내모는 모든 자양분을 쟁취하고자 하는 갈애와 그것에 의해 성립하는 정신물리적 과정은 존재에게 생명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존재에게 죽음을 부여하는 윤회의 과정이다. "자양분은 그것을 먹는 자를 먹는다."

현대문명은 본질적으로 자양분의 생명을 부여하는 속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그것을 박탈하는 속성에 관해서는 눈을 가려 왔다. 그래서 우리는 자양분의 가혹한 채찍에 얻어맞아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는 생명현상에 대해 본질적으로 무관심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자양분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듯이, 애민한 마음으로 절제하길 강조했고, 정신적 자양분의 섭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절제하길 가르쳤다. 예를들어 접촉(경험)의 자양분의 섭취는 가죽이 찢겨진 목우가 곤충들에게 공격당하는 경험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또한 의도(생각)라는 자양분의 섭취는 작열하는 석탄화로에 강제로 사람을 구인하는 것과 같은 괴로운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의식이란 자양분은 마치 왕이 도둑을 잡아놓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백개의 창으로 찌르는 아픔과 같다고 하셨다.

물질적 정신적 자양분의 섭취를 최고도로 향락하는 현대문명은 자신의 죽음을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를 통해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 본질적인 생명현상의 위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현대문명은 물질적 소비가 얼마나 무모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자극적 감각적 경험에의 추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인지, 개념적 사유의 확대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물리적 공해를 정확히 인식할 때, 생명현상의 죽음을 초래하는 생태계의 공해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바른 경제생활

땀흘린만큼 벌고 낭비 말도록
이웃·사회위해 쓰는 보시생활도 중요

서울에 올라온지 6년째 되는 박정환씨는 부인 김신희씨와 노점상에서 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상계동 주공아파트단지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밤12시까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 시중들랴 빠진 물건이 없나 챙기랴 힘들고 고되지만 박씨는 늘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고있다.

힘들 때마다 상계동 아파트단지내에 들어선 작은 포교당을 찾아 어려운 생활이지만 항상 부처님 가르침대로 남을 도우며 바른 삶을 살고자 기도한다. 또 박씨는 얼마전부터 상계동 노인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박씨는 "제 작은 정성이 노인들에게 큰 생활의 밑받침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매일매일의 고된 장사도 힘들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욱 큰 도움을 주고싶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에 대해서 늘 올바른 직업윤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라고 가르쳤다.

부처님은 땀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 불로소득과 낭비, 삿된 수입을 멀리하라고 했다. 이것은 부정을 막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경제질서체계를 유지코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수입과 더불어 중도사상에 입각한 지출로 균형을 유지하고, 적당한 영리활동을 하라 했다. 즉 소욕(少欲)과 지족(知足)의 삶을 우리들에게 강조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모은 수천억원 검은돈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쉽게 벌어서 또 쉽게 낭비하며 황금만능을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범람하고 있다.

정당한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얻어진 부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가치있게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부터 실천해야할 불교인의 바른 경제생활인 것이다.



◇'엄마가 건강하면 온가족이 건강하다.' 길음복지관이 노래방 교실을 준비하고 지역 주부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쉼터를 제공한다.

음악이 흐르는 즐거운 삶 가꿔요
길음복지관 주부노래방교실 열어

노래는 삶의 위안이며 기쁨인 동시에 보람이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는 길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이 겨울을 맞아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노래방 교실을 연다.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노래방 교실은 부처님의 지고한 법향이 담긴 찬불가를 비롯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곡해 놓고 주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부들이 함께 어울어지는 화합의 장인만큼 많은 주부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노래방 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주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985-0161

취미생활 방학특강
목동청소년회관, 26일부터

학원폭력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져가고 있는 요즘처럼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의 중요성을 실감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의 올바른 문화창출과 학업능률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5주간 취미생활을 중심으로 한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한다.

신행수첩

이번 특강에는 단소, 기타, 미술, 글짓기, 영어회화, 한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각자 자신의 취미에 맞는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02)646-6816

장애인에 꿈과 용기를
사랑의 소리방송 봉사자 모집

오는 20일이면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장애인 전용 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이 개국한다.

사랑의 소리 방송에서는 1백만 장애인에게 작은 사랑의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삶' '남을 위한 삶'을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KBS가 수신기 보급을, 서강대학교가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사랑의 소리방송은 거의 1백%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희망분야에 따라 아나운서·PD·구성작가·취재·리포터 등의 방송전문요원과 대내의 홍보 및 후원모금 활동에 봉사하는 기획·홍보요원, 일반행정업무 담당요원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포교현장의 장이 될 '사랑의 소리 방송'에 많은 불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02)705-8677

역사의 숨결 한눈에 본다
한국의 집 전통문화 강좌

초·중·고등학교의 일선교사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등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전통문화강좌가 새해 1월8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불교미술과 사찰건축을 비롯해 고고인류학 한국문화사 생활문화 예술 비교문화론 등 전통문화 전반을 고루 다루고 있는 이 강좌는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20분까지 각계 권위자들의 강의로 진행된다. 또 이론강의뿐만 아니라 토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답사를 통한 현장강의도 실시된다.

수강신청은 선착순 1백명으로 마감한다. (02)266-6938

영상으로 빚은 불교미술
부산불교교육원 강좌

불교를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자라면 누구나 고민스런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교미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을 누비며 불교유적을 살펴볼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부산불교교육원이 '슬라이드로 배우는 불교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탑의 의미, 불상의 의미, 사찰의 각 구조물 및 조형예술물을 통해 불교사상을 이해하고 선조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강좌는 16일 '불보살의 상호와 신앙' 18일 '세계관, 삼문, 종각' 23일 '지옥세계, 석등, 기타 석조물'을 주제로 오후 6시부터 한시간 반동안 부산불교교육원 법당에서 열리며, 강사는 한정갑 문화국장. (051)466-4080

"책·염주·호신불 병영추위 녹입니다"

군법당에 포교자료 절실

저는 해군부대에 군불자를 지도하는 한관희 법사입니다.

군대라는 경직된 사회에 젊은 불자들을 지도하다 보면 항상 자료(염주, 불서, 호신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익명의 불자, 군불교후원회, 군에 간 아들과 손자를 생각하며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불자님들 덕분으로 군불자 지도나 인격지도 교육 및 수계식에 자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삭막한 계급사회의 젊은 불자들에게는 이런 한권의 책, 그리고 한개의 염주와 호신불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사회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군불자를 지도하는 법사로서 진심으로 군불교진흥회를 도와주시는 불자, 염주후원금을 주시는 불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염주와 서적,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작은 정성이 수만겁에 두루 미치는 공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해군법사 한관희 합장. (02)792-3321

(우)140-600 서울 용산체신청 직영우체국 사서함 83호

은행지로 6909804(군불교진흥회)

생활 속의 불교 ㊸

보시하고 싶거든 내 집 앞을 쓸어라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생각해 보는 것, 상대와 나의 처지를 바꿔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가에서 강조하는 보시의 기초가 된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둘 아닌 도리의 실천이 될 것이니 무주상 보시는 그런 마음자리에 깃든다고 말할 수 있다.

보시(布施)의 말 뜻은 '널리 베품'이다. 그러나 '베푼다'는 말에는 왠지 일방적인 냄새가 난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짙게 배어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와서는 '나눔'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 베품보다는 나눔이 좀더 대등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나눔보다는 '같이 함'이 더 좋을 것 같다.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누리는 자리엔 '본래 내것이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히 살아 있을 터이니까.

음식을 혼자 먹기보다는 나누어 먹는 게 더 맛있고, 같이 먹는 게 더 즐겁다. 일도 분담해서, 협력해서 하는 게 더 재미있고 쉽다. 예의범절, 도덕, 질서와 같은 것도 같이 지키고 따르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 우리의 삶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상대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시, 즉 베품·나눔·같이 함이란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런 일상의 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 순간마다의 우리들의 삶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는' 이 자연법칙에 역행하는 삶이 될 것이다.

보시의 실천이란 먼 곳에 있지 않다. 특별해야만 보시인 것도 아니다. 늘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돌아가는 삶에서 이 '같이 함'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보시행이다. 재물을 나눠 쓰고 법을 전해 주는 것이 보시행임엔 틀림없지만 질서를 지키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행이다. 역지사지—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처지를 생각해 보는 일도 훌륭한 보시이다.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남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제 소견으로야 그럴 수 있노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소견일 뿐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늘 남의 도움 속에서 살고, 조금씩은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산다. 고로 우리는 늘 갚아야만 하고 늘 사과해야만 한다.

바른 말, 따뜻한 말, 양보와 친절, 예의와 질서, 이해심, 자비심, 이런 것이 다 보시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 내 집 앞을 쓰는 일, 쓰레기를 줄이는 일, 물자를 아끼는 일, 심지어는 내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일까지도 보시이다. 재물이 많아야만 보시할 수 있는 것도, 법이 넉넉해야만 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시는 누구라도 얼마든지 언제나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내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보시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보고 내가 불쾌할 때, 즐거울 때를 뒤집어 생각해 보라. 거기에 보시행에 대한 법문이 가득 들어 있다.

역지사지—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보시행이 그 속에 있다.

협찬 : 安 宅 淳



범시민 이웃돕기운동 '우리는 하나'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일 오후3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우리는 하나' 행사에 참가 모금함에 성금을 냈다.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가 2개월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과 각부서 국장스님, 조순 서울시장,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등 각계인사가 참여했다.



'95 대한민국 종교인 미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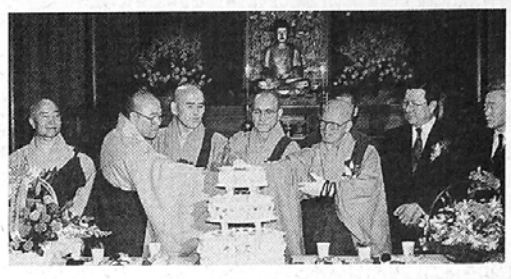
'95 대한민국 종교인미술전'이 지난 1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막됐다.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이한 종교인미술전에는 락혜(진각종 통리원장) 효강(총지종 통리원장) 도원(천태종 총무부장) 덕신(조계종 문화국장) 지원상(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 회장) 정덕용(문체부 종무실장) 등 종교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2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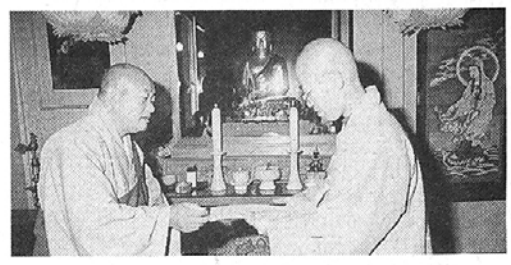
신흥사 가사불사·영산대법회 성료

조계종 신흥사(주지 지홍)는 지난 3일 가사불사 회향 및 선망부모 유주무주 고혼영산대법회를 일응스님(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작법 제50호)의 집전으로 봉행했다. 신흥사 회주 무산스님,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했다. 사진은 가사불사 점안후 주지 지홍스님과 도후스님이 가사를 수하는 의식 시현후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모습.



불교청주방송 개국위한 선서화전

'불교청주방송국 개국을 위한 원로스님 및 중진작가 초대전'이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 불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석주스님(칠보사 조실)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종회의장) 성타스님(포교원장) 월서스님(초심호계위원장) 월성스님(불교청주방송 추진위원장)과 효강(총지종 통리원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첫 국제포교사 12명 탄생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고 해외동포 포교를 담당하게될 첫 국제포교사 12명이 탄생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이 선발한 제 1기 국제포교사들은 지난 2일 국제연등불교회관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거행했다.

한편 포교원은 국제포교사 가운데 1차로 5명을 선정해 이달중으로 싱가포르에 파견할 예정이다.



길음1동 어린이 집 개원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성북구로부터 위탁받은 길음1동 어린이집 개원식이 지난 1일 열렸다.

수용인원 64명 규모의 길음1동 어린이집은 지역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등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계종 사회국장 원소스님, 광명스님, 진영호 성북구청장, 조계종 복지재단 이용권국장 등이 참석 축하했다.

교 차 로

정년 무력감 극복 봉사로 회향 할터

동국대불교대학원 합격
권 영 수 서장



"대자대비한 부처님 법을 배워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여생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지난달 16일 치뤄진 96학년도 동국대 불교대학원 모집시험에서 2.4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권영수씨(60, 제천 경찰서장)는 합격소감을 이렇게 말하며 뿌듯해 했다.

내년 6월 경찰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현재 대기발령중인 권씨는 "퇴직한 후 아무런 일도 하지않고 있으면 무력감에 빠질 것 같아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올 초부터 틈틈히 수험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 권씨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 구분없이 뛰어야 하는 어려운 근무여건속에도 불구하고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할애해 청계산 정토사(주지 보광)를 찾아 참선 기도를 하는 등 신심 또한 남다르다.

내년이면 아들보다 더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권씨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며 "앞으로 불교와 동양철학을 공부한 뒤 여건이 되면 박사과정도 밟고 싶다" 고 의욕을 보인다. 〈근〉

혜명보육원·소쩍새마을 위문



월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오는15일과 21일 각각 혜명보육원과 원주 소쩍새마을을 방문해 원생들을 위로하며 성금과 의류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스님은 지난 4일 민족종교협의회 창립 10주년기념 지도자대회에 참석 축사했다.

윤이상선생 49재 참석



설정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사진 위)과 **덕신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이 故 윤이상선생 49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5일 독일 베를린으로 떠난다. 21일 귀국 예정.



남명 문학상 본상 수상



오현스님

(신흥사 회주·시조시인)이 제7회 남명(南冥) 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0일 오후4시 진주금고문화관에서 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절간이야기'.

남명문학상은 조선시대의 학자 조식(曺植)선생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고 계승키위해 제정된 상이다.

쌍계사 차기주지 선출



철형스님

이 지난달 28일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설법당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차기 주지로 추천됐다. 스님은 지난 59년 동화사에서 향숄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71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흥복사 주지등을 역임했다.

'교수연구논문' 제4집 발표회



송산스님

(중앙승가대학장)은 지난 5일 중앙승가대 정진관대강당에서 중앙승가대학 교수연구논문 제4집 발표회를 가졌다.

'통일과 불교인의 자세' 강연



법혜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지난 8일 부산 국제문화센터에서 '통일문제와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천불전 기금마련 선서화전



경암스님

(워싱톤 보림사 주지·미주불교신문 사장)은 보림사 천불전 건립불사를 위한 선서화전 준비차 지난 9일까지 내한. 스님은 96년 2월 제주와 부산, 대전서 선서화전을 갖는다.

고교·대학생등에 장학금



송묵스님

(자비와행함이 하나되어 회장)은 오는 13일 정오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원생들과 고교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편 스님은 지난 1일 창립된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중앙승가대 동문 송년의 밤



수완스님

(중앙승가대학 동문회장)은 오는 18일 월요일 오후5시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95 중앙승가대학동문회 송년의 밤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쌍용증권 회장으로 승진



명호근씨

(대불련총동문회장)는 지난 1일 쌍용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했다. 명회장은 서울대학교 대학생불교학생회를 창립, 1기로 활동했다.

초중고교사 불교연수회



김용정교수(불교발전연구원장)는 오는 26~29일 연구원법당에서 제2회 초중고교 교사 불교연수회를 갖는다. 접수마감은 25일.

(02)736-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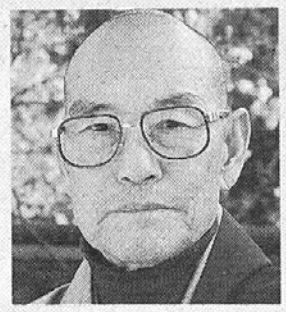
유출문화재 환수기금 전달



이경훈씨

(한국JC중앙회장)는 지난달 30일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방문, 2만5천여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기금 2천2백17만여원을 전달했다.

특별계단서 최고령 수계 도홍스님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실시된 조계종 특별계단 수계산림에서 수계자 1백14명 가운데 박도홍스님(강릉 삼덕사 주지)이 세수 80세로 구족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도홍스님은 상좌, 손주상좌 뻘이 되는 젊은(?)스님들과 함께 특별 구족계단에 참석한 소감을 묻자 "이 나이에 구족계를 받는것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스님이라면 응당 정식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식 구족계 기뻐…포교 더욱 전념"

스님에겐 사실 이번 구족계가 처음이 아니다. 50년도 훨씬 넘은 해방전에 지금은 북한땅인 강원도 통천 은적사에서 조계사 주지를 역임했던 양청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전국의 유수한 사찰에서 수행정진하면서 구족계를 여러번 받았다는 것. 당시에는 단일계단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족계 수지자 명단이 총무원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승적상 사미승인 채로 지내왔다고 한다.

수십명의 상좌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전법도생에 매진하고 있다는 도홍스님은 "승려에게 있어 세속의 나이는 중요치 않다"며 "이제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았으니 더욱더 포교에 전념하겠다"고 원력을 피력했다. 〈병〉

인사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지난 5일자로 부원장에 **원법**(사진) 기획실장에 **자월** 총무부장에 **대은** 교무부장에 **무환** 재무부장에 **혜공** 호법부장에 **법우**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종회 부의장에는 **운산·대운**스님이 선출됐다.

게시판

▲불교 언론인의 밤=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변대용)는 '최정희 기자 근속 20년 축하회 및 불교 언론인의 밤'을 오는 18일 오후6시30분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개최한다.

▲기아난민 위한 자선찻집=한국불교기아돕기구(회장 감재일)는 세계 기아난민과 국내결식아동을 돕기위한 동산일일 자선찻집을 오는 17일 동산법당에서 개최.

(02)732-1206

▲소년소녀가장돕기 문화행사=법륜왕사(주지 선혜)는 오는 16일 오후2시부터 법당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02)934-8657

▲금강산우회 송년법회=금강산우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17일 오후1시 사당동 메시코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02)508-6912

▲동국언론인회 송년의 밤=동국언론인회(회장 정운경)는 오는 12일 오후6시30분 소공동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동대 교육대학원 동문인의 밤=동국대 교육대학원 총동창회(회장 황경환)는 오는 15일 오후6시 서울시청앞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동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02)753-3131

▲능인선원 예식장 개관=능인선원 결혼예식장이 지난 9일 개관, 드레스, 미용실, 사진, 청첩장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02)577-5800

화촉 주간불교신문사 **윤완수** 기자가 오는 17일 정오 동국대 정각원에서 **황선미**양을 맞아 화촉을 밝힌다.

(02)908-3707

법원사 불자 묘지 조성 대불사

"지옥이 텅 비지 않는다면 결코 성불을 서두르지 않겠나이다 그리하여 육도의 중생이 다 제도되면 깨달음을 이루리라"

도리천에서 석존,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매일 새벽 항하사의 선정에 들어 중생의 갖가지 근기를 관찰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불 사이인 부처님 없는 시대에 천상·인간·아수라·아귀·축생·지옥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대비보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짐짓 지옥에 들어가 죄지은 중생들을 위무하고 제도하시는 위대한 지옥세계의 부처님 지상보살님의 원력으로 1천일간의 기도와 만중생이 의식에 부족함 없이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깨달음을 이루도록 12대원을 세우신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1천일간의 기도를 통하여 선몽받은 터전에 8도의 시주락발수행으로 사찰을 창건하고 두분 불보살님의 품안에 묘지를 조성하여 108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염불해도 세세생생 좋은 국토에 태어나 좋은 인연을 만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행하여 마침내 자성미타를 성취한다 하였습니다. 불보살님의 품안에서 극락왕생을 누리시고 자비광명을 얻어 불타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나무약사여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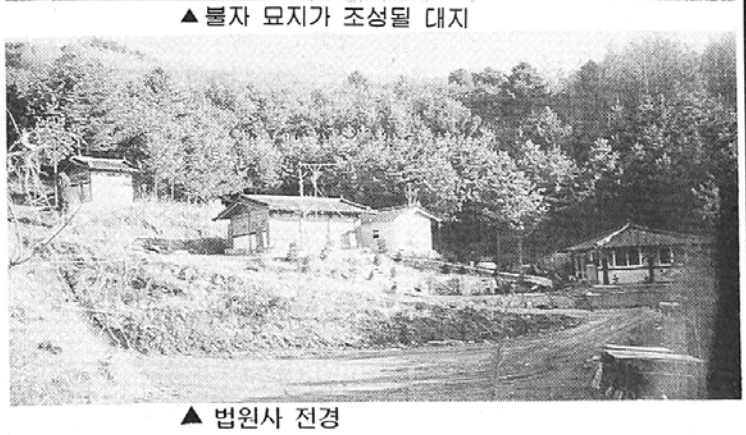
- 귀 불교장례의식으로 집전 봉행
- 귀 매월 현지장재일 합동영가위령재 봉행
- 귀 사찰에서 묘지관리 관장
- 귀 납골장 건립시 우선권 부여 (다비의식으로 봉행)

문의처 : 대한불교대승종 **법원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2236
전 화 (0342)45-3502
스님직통 (011)327-3560

대한불교 대승종 **법 원 사** 주지 덕진 합장



▲불자 묘지가 조성될 대지



▲ 법원사 전경

"상처와 아픔까지 다스려야죠"

산문밖의 수禪

최내과의원 최두석 원장



현대의학 한계 느낄 때마다 '반야심경'으로 치료
보름마다 복지관 무료진료…'보시행 내는 삶' 지향

원초적으로 인간은 죽기까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인생은 어쩌면 크고작은 질병과의 싸움이랄 수도 있다. 그 '질병과의 전쟁'에서는 제3자 개입이 허용된다. 의사가 바로 그들이다.

'의사'를 사전에서는 '의술과 약으로써 병을 고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를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해결해 주는 의료기술자로 보지 않는다. 인간의 몸, 나아가서는 그 마음까지도 치료해야 하는 의료행위는 가장 인간적이고 숭고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교양대 포교사반 입학

부산 괴정동 시장통에서 23년째 '최내과의원'을 지켜오고 있는 최두석(崔斗碩, 58)원장도 그 숭고한 의술의 길을 걷고있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이십년이 넘게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환자들의 질병상태가 정형화된 틀로써 머리속에 그려지더군요. 결국 유형별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지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틀에 짜맞춰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첨단을 달린다는 현대의학의 한계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것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의 '마음 다스리기'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평 남짓한 그의 진료실에는 청진기와 주사바늘, 의학서적만 비치되어 있지 않다. 〈반야심경〉〈금강경〉〈불자수첩〉 등이 책상 한켠에 수북히 쌓여있어 환자들을 의아해 하게 한다. 진료가 끝나면 그가 환자들에게 어김없이 던지는 한마디 "종교가 있으십니까?" "없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는 의사가 아닌 포교사로 변신한다. 불교의 기초교리가 적힌 불자수칩을 내보이며 시간이 나면 읽어보고 또 가까운 사찰을 찾아보라고 정중하게 권해보기도 한다. '전법'을 그는 수행방법으로 택한 것이다.

"지금껏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나 스스로의 의료행위에 대해 회의(懷疑)해 본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흔한 인플루엔자 즉 감기를 예로 들자면 이는 간단한 약물치료로 대부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치료방식은 현상적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보니 질병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회의하는 것은 되풀이 되는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회의는 불교알기와 앎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여서 어려서부터 불교적 정서속에서 살아오긴 했으나 절집을 열심히 찾아다니지는 못했다. 그러나 수개월 전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부산불교교육대학 제5기 포교사반에 입학하면서 그의 삶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게된다. 그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한 차원 높은 면을 불교공부로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을 온갖 의료기구를 동원하여 치료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숭고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인간의 몸과 그것을 휘감고 있는 영성(靈性)은 곧 작은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그같은 작은 우주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치료행위는 성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태양계를 포함한 거대한 우주의 일부분이 잘못되면 우주전체의 질서가 혼돈스러워지듯이 한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기가 전염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화엄경〉에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형상 속에는 다른 많은 형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복잡한 형상일지라도 하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우주만상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 융합하여 무한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법명 慧日로 계받아

최두석씨는 요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으로 무료진료를 나간다. 매월 두번씩,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에는 최씨 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 무료진료를 청탁(?)하여 기꺼이 동참한 세양병원 의사들, 약사,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요일을 달리하여 참가하고 있다.

이같은 무료진료 활동은 생사를 누구보다 많이 보아왔을 그에게 있어 생사와 열반의 모습을 보고 생사를 여의고 열반을 구하는 상발심(相發心)의 초발심에 닿아있다. 그리고 '하나속의 전체와 전체속의 하나'가 갖는 뜻을 체험하는 것도 그에게는 더없이 큰 공부다.

"나의 무료진료는 해(解)와 행(行)을 일치시켜보려는 노력의 한 방편입니다. 깨닫기 위한 노력에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허황된 궤변론자의 요설(饒舌)에 불과하니까요."

얼마전 혜일(慧日)이라는 법명으로 계를 받은 그는 지난 69년 월남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했을 당시 군법사에게서 받은 법명이 똑같은 혜일이었으나 계첩을 잃어버려 늘 아쉬웠다고 한다. 동일한 법명으로 계를 내려준 불가에 지극정성으로 귀의해야 할 운명을 타고 났다고 말하는 최씨는 "한때는 짜증으로 환자들을 대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한 생각 돌이켜 마음이 편안하니 얼굴도 밝아지고 환자들의 회복도 빠른 것 같다"며 웃는다.

부산=박병근 기자



삽화 · 이기선

자애심으로 지혜내는 우바이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⑭

청신녀(淸信女)

한국의 불교 신자 가운데는 여성 신도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종교가 그렇듯이 여성들의 희구태(希求態)가 강한 것이 상식이다. 왜인가. 여성의 성품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애심이다. 이 자애심은 모성애에서 비롯하는 마음이다.

여성의 심성에서 이 자애심이 결여된다면 무미하고 건조할 것이다. 밥상머리에서 수저를 집어주거나, 옷깃을 여미어준다면 다정한 감정이 이입되기도 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감싸주는 손길에 있다. 그 손길은 자비로 구현되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기리는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여성이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거룩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 불자가 신앙속에서 자애스러움만 구현되면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비견하는 종교적 신앙으로 구현되어 폭넓은 목적성이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수동적 기도 탈피 이타행 펴야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불교 신자가 있었다. 이들 신자들도 공부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 왔는가를 〈증일아함경〉 '청신녀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법하고 있다.

"내 제자중의 첫째 우바이(優婆夷)로서, 처음으로 도를 잘 깨달은 이는 바로 난타바라(難陀婆羅)우바이요, 지혜가 제일가는 이는 바로 쿳주타라(久籌多羅)우바이요, 언제나 좌선하기를 좋아하는 이는 바로 습피아(須毘耶女)우바이요, 지혜가 밝은 이는 바로 비부(毘浮)우바이요, 설법을 잘하는 이는 앙갈사우바이요, 경전 뜻을 잘 연설하는 이는 바로 발타바라수염마(跋陀婆羅須焰摩)우바이요, 외도를 항복받는 이는 바로 바수타(婆修陀)우바이요, 음성이 맑고 트인 이는 바로 무우(無憂)우바이요, 여러가지로 의논하는 이는 바로 바타타(婆羅陀)우바이요, 용맹스레 정진하는 이는 바로 수두(須頭)우바이다."

"내 제자 중의 첫째 우바이로서, 항상 욕됨을 찾는 이는 바로 무우(無憂)우바이요, 공삼매(空三昧)를 닦는 이는 바로 비수선(毘豐先)우바이요, 생각 없는 삼매(無想三昧)를 닦는 이는 바로 유나타(優那陀)우바이요, 소원없는 삼매(無願三昧)를 닦는 이는 바로 무구(無垢)우바이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이는 시리부인(尸利夫人)우바이요, 계율을 잘 가지는 이는 앙갈마(鴦竭摩)우바이다. 얼굴이 단정한 이는 바로 뇌염(罍焰)우바이요, 모든 감각기관이 고요한 이는 바로 최승(最勝)우바이요, 많이 듣고 널리 아는 이는 바로 니라(泥羅)우바이요, 게송을 잘짓는 이는 바로 수달(須達)의 딸 수마가재우바이요, 겁내지 않는 이도 바로 수달의 딸이요, 내 성문 가운데서 최후에 깨달은 우바이는 바로 람(藍)우바이다."

즉 도를 깨친 청신녀, 지혜가 빛나는 사람, 좌선에 열중한 우바이, 세간지혜를 갖춘 사람, 설법 잘하는 사람, 경문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외도를 항복받는 사람등 많은 재가 청신녀가 제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는 자신만 믿고 공력을 쌓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원력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여자 신도는 수동적 신앙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성적인 자애로움이 지혜로 빛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도를 항복시키는 위력이 나오게 된다. 우리들 주변에는 외도가 득세하여 세상 일을 모두 저네들이 감당하고 저들만 할 수 있다고 독선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우리네 불자 여성은 가만히 자애만 꽃피우고 있으면 되는 걸까. 남을 가르치는 원력도 세우고, 겁내지 않는 위신력도 길러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우바이 여성신도가 수구적 기도형태에서 능행적 발보리를 하게 되면 집안은 물론이요, 사회의 뒤안길이 더욱 환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은 부처님께서 청신녀의 덕목으로 일러 주었다고 본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학 입문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께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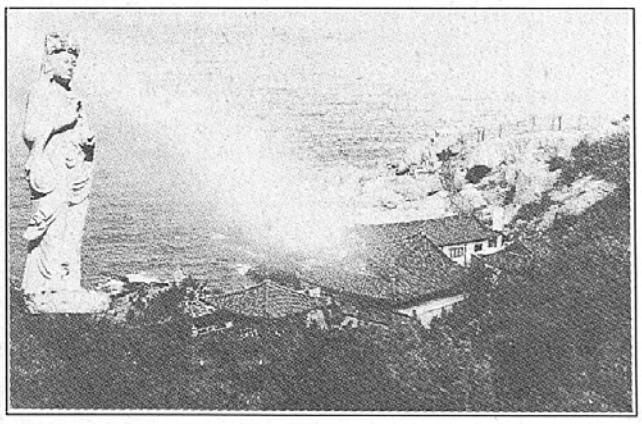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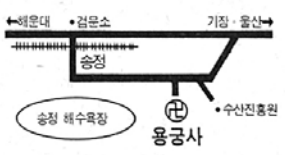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① 722-7755

"계율은 수행·윤리회복의 뿌리"

영축불교문화硏 학술대회 신라~조선 율장사상·현대적 의의 조명


◇종범스님


◇목정배교수


◇김상현교수


◇허흥식교수


◇길훈교수

자장 수계통해 전법·교단 통제 **서산** 생활속 수행 '일용청규' 강조

오계정신을 지키지 못했던 불교신자 노태우씨와 전두환씨가 비자금 사건과 5·18문제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의 계율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축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성파스님)이 오는 16일 오전11시 통도사 서운암에서 '한국불교 계율사상 연구'란 주제로 여는 이번 학술회의는 원효 자장 지눌 서산스님 등을 통해 신라~조선시대까지의 계율사상을 시대별로 조명하고 계율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시대적 사명을 살핀다.

미리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계율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발표하는 동국대 목정배교수는 계율을 통해 부처님의 근본정신과 윤리·도덕, 생명·환경의 회복을 주장한다. 목교수는 "성불의 근본이요 불법(佛法)의 수명이며 승단의 기틀인 계율의 현대적 의의를 조명하는 것은 승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수행가풍을 진작함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앞서 교원대 김상현교수는 '자장정율(慈藏定律)의 내용과 의의'를 통해 자장의 지계(持戒)의식과 수계(授戒)의식, 그리고 교단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김교수는 "자장은 수계를 통한 불교의 홍포와 정율(定律)을 통한 교단의 통제를 동시에 주도했다"면서 "자장은 이와 관련 출가자의 수계를 위해 통도사에 계단(戒壇)을 창설했으며 재가신자에게는 주로 5계로써 수계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중국 북경대 강사인 김훈씨는 '원효의 계율관'이란 논문을 통해 "원효는 대승보살계를 선양하면서도 중생의 해탈을 위한 실천적 견지에서 소승계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조했다"고 주장한다. 또 "원효의 계율사상에서는 참회사상이 중요하다"며 〈대승육정(六情)참회〉를 강조한다. 김씨는 이 책이 중생들이 계상(戒相)에 머무는 병폐를 타파하고 죄업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중생심의 자각을 일으켜 스스로 구도의 길에서 정진할 것을 효소하는 윤리지침서라고 규정짓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 교수 종범스님은 '서산대사의 계율관'이란 논문을 통해 일상생활속의 수행을 강조하는 서산의 일용청규는 선과 교를 융합한 불교관에서 표출된 구체적인 계율행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문화연구원 허흥식교수는 '지공의 무생계경(無生戒經)과 계율사상'에서 통도사 박물관에 보존중인 지공의 번역서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을 통해 그의 계율사상을 조명한다.

또한 상주산업대 한기문교수는 '고려전기의 수계와 계단'을 통해 고려시대 국왕의 보살계 수계가 덕종~공민왕때까지 66회가 실행됐으며, 신라말~고려전기까지 계단을 설치한 사찰이 23곳에 이른다고 발표한다.

김재경 기자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요

문 세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제가 공부를 해나가다가 홀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처처의 중생이 다 부처인데 그들이 여래장은 모르고 오색무지개 환상에 끌려 사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요.

둘째, 이웃 사람에게 포교를 하고 싶은데 좀처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개중엔 말도 못꺼내게 하는 고집쟁이도 있습니다. 그들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능엄경에 보면 '말법시대가 오면 고기먹고 할 짓 다 하면서도 도를 깨쳤노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술마시고 매운탕도 먹습니다만 이러고도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합니다.

〈이석주·춘천시 우두동〉

답 공부를 한다고 하면 첫째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야 하고 둘째로 내 육신 속의 중생들을 몽땅 제도해서 조복을 받아야 하고 셋째로 이 모습도 부처님 모습같아야 하지요.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찰나에 바뀌고 찰나로 나투는데 어느 것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것이냐. 내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도량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 곤충까지도 나 아닌게 없다'고 했을 때 알아듣기야 알아 듣겠지요. 그러나 참뜻을 모른단 말씀입니다. 왜냐? 천차만별의 내 속의 중생들을 제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대로 일 수 밖에요.

지식이 많고 세상 돌아가는게 그렇게 되어있구나 하고 알더라도 다리병신, 귀머거리, 장님을 못 면하죠. 그래서 오신통을 한다해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신통까지도 조복을 받아야 천백억화신으로 나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홀연히 깨우친게 아닌가. 이런걸 열반경지라 하는구나 하고 알았다해도 그건 그냥 물컵을 보고 물이 담겨있구나 하며 아는 정도이지요. 제대로 알려면 그 물을 나도 먹고 목마른 사람에게 먹일 수도 있어야 도라고 이름할 수 있지요. '도'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을 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구멍에다 다시 놓으세요. 듣는 것도 내가 들은게 아니고 안 것도 내가 안게 아니다. 다 거기서 안 것이고 들은 것이다. 이렇게 '나'를 쑥 빼버리세요. 그래야 참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련히 털어놓고 진실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해 나가야 공덕도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 쑥 빠져야 공생도 되고 공식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며 사는 게 부처님 법입니다.

덥다 춥다, 밉다 곱다, 잘산다 못산다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연출가의 지시를 따라 연기하는 탤런트일 뿐이다 그렇게 믿고 가세요.

질문을 세가지나 하셨는데 너무 많아요. 자꾸만 뭘 생각하고 알려하고 하기 전에 좀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그냥 밀고 가세요.

한국불교가 왜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부처님 마음, 부처님 법, 부처님의 행을 믿고 둘 아니게 따르면 아무 걱정이 없을텐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하고 잔뜩 벌려 놓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끄러울 수 밖에요. 기독교는 절대 신이라는 타력종교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로 뭉쳐 놓았어요. 그러니 깨우치진 못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불교공부 하시는 분들 부처님의 마음·법·행을 나와 둘 아니게 믿고 따르면 될텐데 이 선사 저 선사 선사타령하고 이런 부처 저런 부처, 이런 경전 저런 경전 따라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수만명이 깨우쳤다 해도 부처님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질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자꾸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이 몸 속에 잔뜩 들어있는 생명들과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더불어 살고 있는데도 그 아만, 그 아상을 놓지 못하니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 해서 입니다.

부처님 마음 내기에 따라 아미타불도 되고 아촉불도 되고 관세음보살도 되고 때로는 지장보살, 약사여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따로따로 찾겠습니까?

그냥 부처님 마음에다가, 부처님 법에다가, 부처님 행에다가 코드를 콱 꽂아놓고 '한마음 한몸이다' 믿고 따라 가세요. 부처님과 내 주인공과는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스위치만 켜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다보면 불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이고, 불 들어오면 또 불켜졌노라 하지 말고 그것도 법이니 다 주인공 몫이다 하고 놓고 나가세요. 그래서 공생·공체·공심·공용·공식이 되면 그냥 그대로 둘아니게 나툴 수 있게 됩니다.

매운탕 먹고 술 마시는 얘기는 그간에도 본란을 통해 몇차례 대답을 했었으니까 생략합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한반도 통일과 종교역할' 토론

美종교학회 연차대회

미국종교학회와 불교·기독교학회 연차대회가 지난달 18~22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컨벤션센터와 메리엇호텔에서 열렸다.

약 7천여명의 불교학자와 종교학자들이 6백50여 분과로 나눠 각종 연구발표와 토론을 벌인 미국종교학회 대회(본지50호 6면 참조)에서 불교분과와 윤리분과 등은 '동아시아의 불교주체화' '불교윤리의 재조명' 등 15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또 한국종교분과는 '한반도의 분쟁과 화해에 대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강위조 교수(와트벅 신학대)가 '한국통일을 위한 50주년'을, 김상일교수(한신대)가 '이원성의 극복과 한국통일'을 발표.

불교관심 매년 높아져

매년 종교학회 연차대회와 함께 열리는 불교·기독교학회 연차총회는 17~18일에 걸쳐 모임을 갖고 '선교와 대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학회는 내년 시카고 대회에 달라이 라마와 베나르딘 추기경도 초청할 예정이다.

불교·기독교학회 국제자문위원으로 두 학술회의에 참석한 진월스님(버클리대 박사과정)은 "미국종교학회 연차대회에 매년 불교관계 패널이 늘어나고 주제가 다양해지는등 불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문화 포럼 "도덕불감증 報應정신 부재탓"

'한국사회의 도덕불감증, 그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한 제1회 정신문화포럼이 정신문화연구원 주최로 지난 7일 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손봉호 교수는 △거짓과 불로소득에 대한 불감증 △책임회피주의 △'보응(報應)받지 않는 악'과 '댓가없는 이익' △힘을 갖기 위한 교육 등을 도덕 불감증의 원인들로 진단했다.

손교수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커진 이유는 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보응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5·18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비자금의 내막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도덕적 냉소주의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학 100년 회고와 전망 전국 국학자대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와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연세대 국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인문과학연구부는 공동으로 지난 8~9일 정신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광복 50년의 국학, 성과와 전망'이란 주제아래 전국국학자대회를 열었다.

8일 서울대 심재룡교수의 사회로 열린 철학종교분과에서는 경희대 허우성교수가 불교사상에 대해 발표했으며 동국대교수 법산스님이 논평했다. 또 예술분과에서는 덕성여대 최성은교수가 불교조각에 대해 발표했으며 동국대 문명대교수가 논평했다.

법주사

천왕문

威光遍照滿乾坤
(위광편조만건곤)
眞界無爲解脫門
(진계무위해탈문)
雲暗日明身內影
(운암일명신내영)
山淸水碧鏡中痕
(산청수벽경중흔)

四大天王威勢雄
(사대천왕위세웅)
護世巡遊處處通
(호세순유처처통)

부처님의 위광이 온 천지에 퍼져 있으니
해탈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진계(眞界)로다
구름이 어둡고 해가 밝은 것은 모두 내 마음의 그림자고
산이 맑고 물이 푸른 것은 거울 속에 남은 흔적이다

사대천왕의 위세가 크기도 하네
이 세상 두루 다니며 통하지 않은 곳이 없도다

해설 우선 이 법주사 천왕문의 주련에는 두가지의 게송이 적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천왕문의 기둥이 모두 6개이므로 앞의 4행짜리 게송과 뒤의 2행 게송이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이다. 물론 앞의 것과 뒤의 것이 갖는 내용상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

앞의 4행짜리 게송은 천왕문의 게송으로는 가히 '매력만점'이다. 뒤의 2행 게송이 이 세상 두루 다니며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거울속의 흔적처럼 여기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닦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내마음의 그림자' 설법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일방적이다시피 사천왕의 위세를 찬탄한 것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한 정서를 토대로 부처님 법의 위대함을 밝히고 있다. 거기다 참다운 수행의 끝자리에서 만나는 깨달음의 실체까지 넌지시 보여주고 있어 이 내용을 읽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한층 적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본래 어디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를 두고 나타나거나 존재하는 상(像)이 아니다. 누구든 자성(自性)의 청정함을 깨우쳐 알면 곧바로 '부처의 자리'라는 성불의 세계로 드는 것이다.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도 언제든 극락의 불국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탈문도 따로 없고 모든 세상이 참다운 모습으로 갖춰진 곳, 곧 진계(眞界)인 것이다. 이 도리를 알면 구름이 일고 해가 뜨고지는 일들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서 지어지는 그림자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 다스리면 곧 성불의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게송은 모든 것을 거울속의 흔적처럼 여기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닦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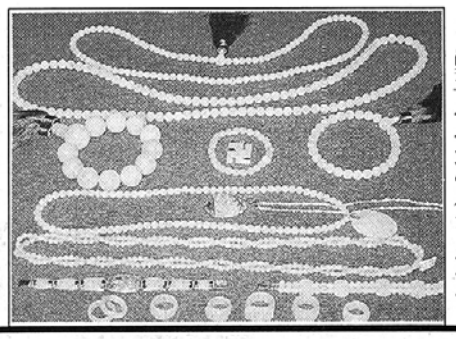
불교전문교육기관
실상사 화엄학림 제2기 학인 모집 안내

실상사 화엄학림은 수행과 연구, 토론을 일체화하는 수학풍토를 바탕으로 화엄경이 제시하는 불교적 세계관을 연구하여 승단과 사회의 지도자로서 전문역량을 갖춘 수행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종헌 제64조, 교육법 제78조에 의하여 설립한 불교계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1. 모집인원 : 10명 내외
2. 응시자격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였거나 (예정자 포함)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 조계종 비구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4. 서류제출 : 본 학림 소정 응시원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승가학력)
5. 모집기간 : 불기 2539(1995)년 12월 20일부터(음력 10월 28일) 불기 2540(1996)년 4월 20일까지(음력 3월 3일) (지원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전화문의와 방문을 요망)
6. 전형일자 : 불기 2540(1996)년 4월 30일(음력 3월 13일) 오후 1시 실상사
7. 합격자발표 : 개별 통보
8. 개 강 : 불기 2540년 5월 31일(음력 4월 15일, 하안거 결제일)
9. 교육기간 : 2년
10. 문 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실상사 전화 0671-34-3860(화엄학림) 34-3031(실상사 사무실) 34-3757(실상사 주지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然 觀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禪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 氣
* 氣방석 등 생활용품 다양
* 眞玉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6.3%, 고혈압 77.8%, 관절염 61%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혈변지 84% 옥목 결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한국일보 반지 64% 목걸이 86% 치료효과 세계서 유일하게 채굴 2년 자료부터 감광
감원白玉 두통·불면에 「효험」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서울일보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렌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奚是空 合掌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국반판(10.5cm×14.8cm)256p·고급비닐커버
※ 법보시 하실 사암 환영합니다.
정가 1,800원

감로출판사가 새롭게 펴낸
경건 씨리즈
• 금강반야바라밀경 2000원
• 금강경(독송용) 2500원
• 천수·관음경 2500원
• 천수·금강경 3000원
• 불설 아미타경 1800원
• 관세음보살 보문품 1800원
• 금강·아미타·팔양경 3500원
• 천수·반야·고왕경 1800원
• 천지팔양신주경 1800원
• 지장보살 예찬문 1800원
• 부모은중경 1800원

우리말 지장경
석일화 편저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법보시가격/4,000원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2천 만에 깨 달 음 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신 문
구독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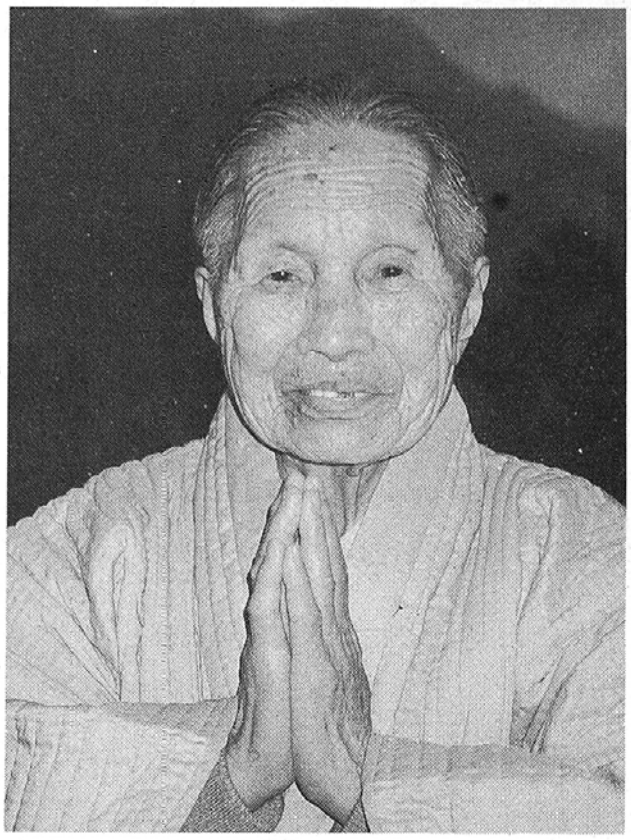
본 사 • 대표 02-737-8881 • 광고국 02-737-0692 • 팩스 02-737-0697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

96세 나이에 하루 8시간씩 참선

7일 원당암서 31철째 안거 결제한 김광명화 보살

지난 7일은 음력 10월 보름 동안거(冬安居) 결제일. 안거는 운수행각(雲水行脚)을 하던 스님들이 일정한 처소에 모여 한철 용맹정진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이지만 최근들어 이 안거에 동참하는 재가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광명화 보살(光明花·본명 김봉수·96세). 스님들 못지않게 15년을 빠짐없이 동, 하안거를 성만해 온 이 노보살은 안거 경력만으로도 해인사 원당암에서



수요 인터뷰

생보살(生菩薩)이라 불리우고 있을 정도다. 한 세기의 삶을 목전에 둔 광명화 보살은 결제일을 이틀 앞둔 지난 5일 사뭇 설레이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마음이 건강할수록 장수

-96세라는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해 보이십니다.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하루 삼시 세때 끼니 잘 챙겨먹고 마음 편안히 지내면 그것이 잘사는 것이지 유별나게 건강 유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늙어지면 육체가 쇠락해지는 거야 자연의 섭리겠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공자가 말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를 불교적 용어로 바꾸면 보살심(菩薩心)이 되지 않을까요. 모르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가짐, 나와 남 가릴 것 없이 한데 보듬을 수 있는 큰 마음을 키워 나간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마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 또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돌, 흙에까지도 보살심이 미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말씀을 듣고보니 결제에 임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마음'을 짓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안거에 들면 어떻게 정진하시는지요.

▲안거기간이라 해서 뭐 그리 특별날 것은 없지만 마음가짐만은 달라야겠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부터 5시까지 참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선은 오전 8시~10시, 낮 2시~4시, 저녁 7시~9시로 하루에 8시간씩 하게 됩니다.

스님들과 같이 용맹정진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한 스님들과 똑같이 흉내를 내 보는 것이죠(웃음).

-힘들지 않으십니까.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웬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부산서 왔다는 옆 자리의 한 보살이 "젊은 사람들이 가끔씩 꾀를 부리다가도 광명화 보살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더 열심으로 공부한다"며 김보살을 만나기 위해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온다고 귀띔한다)

-일반 재가불자의 경우 안거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요즘 사람들이야 워낙 바쁘게 살아가니까 어디 안거에 참여나 할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지 대처에 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수감에 대해서 불자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안거기간이 있음으로 많은 젊은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자신을 돌아 보는 계기를 갖게 되니 기특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항상 화두를 놓지않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삶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해요. 오래 살아 부끄러워서 그런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것 이게 뭣꼬'라는 물음에 매달리다 보니 나이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해인사 방장이신 혜암스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당지심시불 유애법위사(當知心是佛 惟愛法爲師, 지금 마음을 알면 이것이 부처되는 길이니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스승으로 삼으라)'라는 건데요. 화두와 더불어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여 봅니다.

-인곡, 혜암, 원각스님 등 큰 스님들을 삼대에 걸쳐 시봉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이로서 중책이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인곡·혜암·원각스님 시봉

▲혜암스님의 은사이신 인곡스님을 마산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고시고 대장경 정대불사를 하게 됐는데, 그길로 해인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덕높으신 스님을 삼대에 걸쳐 모시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덕인지 모르겠어요. 스님께서 '보살님은 왜 출가하지 않았느냐'고 하시길래 '내가 출가하면 스님 시봉은 누가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스님 시봉덕분이었는지 손녀중 한 아이는 지금 스님이 되었어요.

장성한 자식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나서지만 나는 여기서 스님들을 모시고 사니 극락세계와 다름 없습니다.

얼마전 아흔여섯번째 생일을 맞았다는 김보살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는 우매한 질문에 현생에서만 인연이 끝나는게 아니며 내세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투게 될지 그 인연공덕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답한다. '광명화 보살은 공부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스님들이 가끔 놀려대기도 한다는 김보살은 또 "공부도 삶도 모두 무상(無常)함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당암 한켠, 두평 남짓한 광명화 보살이 불법을 익히는 백운실(白雲室) 바깥으로는 둥글함을 더해가는 열사흘 달(月)이 흩날리는 눈발 위로 걸려 있었다.

가야산=박병근 기자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것이 뭣꼬' 화두 매달려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의 수행일기



박 순 호 〈원광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참선공덕 체험하니 '매사가 여유'

변화된 생활태도에 아내도 '참나 찾기' 동참

나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소년 시절부터 불교를 믿어 왔지만, 절에서 禪을 하라고 하여 선방에 앉아보면 어쩐지 답답하고 벌 재미가 없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피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5년전 어느 날 대학법당에서 禪을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그 답답하고 재미없는 선을 무엇하러 시작하는가?' 하는 생각에 속으로 걱정스럽기까지 하였다.

처음에 앉아보니 얼굴에 개미가 섬섬 기어가는 것 같아서 손이 자꾸 올라가고 졸음도 오며 머리가 맑아지기는 커녕 온갖 상념이 떠올랐다.

워낙 운동신경이 둔한 터이라 요통이 오는 것 같기도 해서 참선의 재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견뎌가야 할까' 하는 걱정이 더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일행 중의 최교수님께서 禪 시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들어 평온한 자세로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부러웠다. 나도 앞으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앉아보면 저와 같은 결과가 오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새롭게 결심을 하였다.



해가 바뀌어 금년 새 학기가 시작되자 이소성대(以小成大)라는 말처럼 선객도 점점 늘어나서 요즈음 수요일 아침 선 시간에는 6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오랫동안 참선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꼿꼿한 자세를 볼 때마다 '나도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앉곤 하였다.

禪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얼굴에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도 없어지고 선하는 자세가 바로 잡혀가며 상념도 그전에 비해서 덜 떠오른다.

또한 참선의 공덕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생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왔다.

첫째로,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챙기는 여유가 생겼다.

둘째로, 마음이 차분해지니 화내는 일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증진되었다.

셋째,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즐거운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나의 생활태도를 보고 집사람도 이런 점을 긍정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니 이제는 대학 다닐때 좋아하던 과목의 강의시간 만큼이나 수요일 아침 선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군산에서 출발하여 아침 8시까지 오려면 광장의 주차난 때문에 앞차를 밀어야하고, 운전을 못하는 나는 안사람의 얼굴을 살펴야 할 때도 있고, 신호등에 마음을 졸이면서 가야 하지만 이제는 선방에 앉는 시간이 갈수록 새록새록 재미가 쌓이고 즐거움으로 기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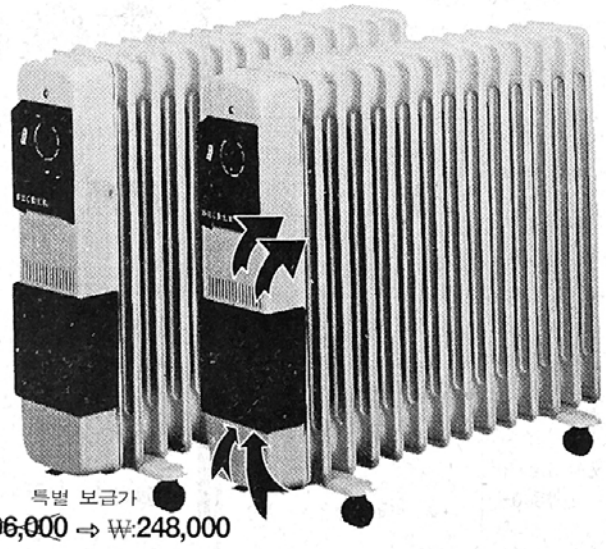
禪을 하고나서 느끼는 그 기분은 마치 소년 시절 두메산골의 고향에서 나무짐을 짊어지고 산정상에 올라 탁 부려놓고 솔바람을 쏘이던 그 상쾌한 기분에 비할까?

아무튼 선의 체험을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야금야금 잔 재미가 난다. 이렇게 재미나는 선체험의 기회를 주신 대학교당의 교감님을 비롯해 여러 교무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재미를 혼자만 맛볼 수 없어서 시간이 나는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권하고 있다. 교정에서 만나 권하기도 하고 전화를 이용하기도 한다.

본래면목이라는 화두로 '참나'를 찾기위해 매주 선방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저 심산유곡에 감추어진 약초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혼탁한 사회에서 이 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구실을 하실 분들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저 심산유곡의 무공해 공기와 같은 참선의 담백한 맛을 체험하시라고 널리 권장하고 싶다.

기술과 유통과정이 가격을 해결 했습니다

'95최신형 방열판 15개를 확인후 구입하십시요



BECKER · CALORIC의 장점
-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온풍팬 기능의 쾌속난방
-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과열방지 기능
- 자동 동파방지 기능
- 고품격의 디자인 및 앞선감각
- 이동이 자유로운 난방기구

주 요 기 능
- 자동온도 감지센서 기능
- 동파 및 과열방지 기능
- 열효율을 높여주는 공기 흡입배출 일렉트릭 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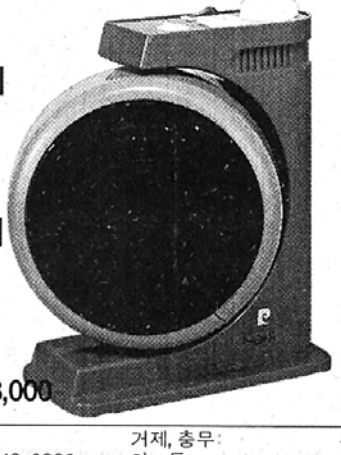
제 품 사 양

내용 / 품명	BECKER 라디에타
형식승인번호	분 7 - 743
전 격 전 압	220V/60Hz
규 격	(W)82cm×(D)66cm
방 열 판 수	15개
소 비 전 력	1단 : 1,000W, 전 : 2,000W, 1단+2단 : 3,000W, 전+온풍팬 : 2,800W

특별 보급가 ~~₩:396,000~~ ⇨ ₩:248,000

수입원⇨창고⇨소비자

회전식 세라믹 팬히터



회전식 세라믹 팬 히터 장점
- 동종 최대의 강력한 파워
- 회전식 기능의 송풍난방
- 피에르 가르뎅의 디자인과 기술에 의한 고품격의 감각
-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분위기

세라믹 히팅 방식이란?
전기에 의해 간접 가열된 특수가공 세라믹 판넬 사이로 공기를 방출시키는 원리로 산소가 타지 않는다.

특별 보급가 ~~₩:160,000~~ ⇨ ₩:138,000

분사식 송풍 난방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연소식 일반난방기의 문제점 완전 해결
- 분사식 기능의 송풍난방으로 아늑한 분위기 연출
- 자동온도장치 및 과열 방지기능

특별 보급가 ~~₩:380,000~~ ⇨ ₩:278,000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전국체인점 모집

남미물류(주)
代:02) 516-0114
소비자:02) 566-6373

■광역시
부 산:646-7905~6
광 주:361-1349
대 구:
대 전:627-9484
인 천:434-8844

■경기도
평택, 오산, 안성: (0333) 655-0966
수원: (0331) 32-6344
수원: (0331) 216-6336
성남, 판교:
일산, 고양:
안 양:43-8949
김포, 강화:

■강원도
강 릉:
원 주:

■경상도
진 주: 43-0880
포 항: 47-8794
울 산:
마 산: 56-7685
거제, 충무:
안 동:

■충청도
천안·온양 (0417) 582-4475
홍성·대천·예산: (0451) 34-0121~2
서 산:665-9413

■전라도
전 주: 85-5130
이 리:
군 산:452-0386
여 수:
여 천:
광 양:762-7944
목 포: 78-6428
순 천:

계율書 출간 잇달아

'율장' 등 10여종…실천규범 대중확산 기여

다시 계율이 얘기되고 있다. 16일 영축불교문화연구원에서 '한국불교의 계율사상 연구'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지난 92년 선우도량이 제4회 수련결사 주제를 '청규'로 정하고 발제와 토론을 벌이면서 '계율'에 대한 관심이 승단 뿐만아니라 불교 전체의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드물었던 계율관계 불서 출간도 이때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율장〉〈계율강요〉〈계율학〉〈사분율〉〈초기불교교단과 계율〉〈율장연구〉〈율장전서〉〈교계율의〉 등 목록을 형성할만큼 불서출판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율장〉(사토 미츠오 지음·법혜 옮김, 역경원)은 율장의 성질과 내용,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밝히고 있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연구자외에는 보기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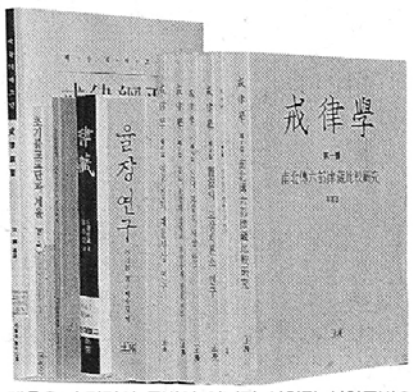
법흥스님(송광사 목우산방)이 편역한 〈계율강요〉는 일타스님의 '비니서요'(毘尼序要) '계율참고자료' '율종의 종지와 수행방법' '지지계와 작지계', '율장대요'(사토 미츠오·법혜 옮김) '백장청규의 역사적 의의' '근세 중국불교의 계의 변용'을 우리글로 옮겨 실었다.

〈계율학〉(석성우 편, 도서출판 토방)은 계율관계 박사학위 논문을 묶은 것으로, '남북전 육부율장 비교연구'(지관) '신라불교 계율사상 연구'(인환) '의적(義寂)의 보살계본소 연구'(목정배) '신라보살계 사상연구'(최원식) '불교율장의 성립과 대승율의 발달 연구'(박호남) '열반경의 계율사상 연구'(신성현)로 구성되어 있다.

계율은 출가수행자의 일상생활 작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가자에게는 유통을 금하는 전통이 있었다. 대만의 경우는 아직도 계율연구는 출가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구 비구니외는 보지말라'는 문구가 낯설지 않다.

이런 전통 때문인지 위의 책들은 법공양판 또는 한정판으로 발행돼 율원과 연구자 등에만 유통되었다. 그러나 계율은 승단만의 규범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의 윤리적 실천규범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계율에 대한 관심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책으로는 〈초기불교교단과 계율〉(김호성 옮김, 민족사)이 꼽힌다. 일본의 불교학자 사토 미츠오의 〈불교교단의 성립과 전개-원시불교 교단과 계율〉을 완역한 것으로 승단입문과 교육, 소송과 재판, 승가갈마 등 교단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생활규범과 비구계와 비구니계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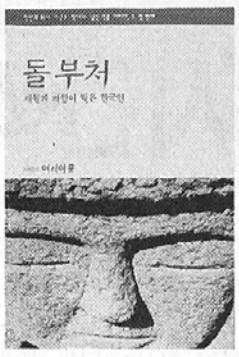
◇계율은 승단만의 규범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규범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정신과 의사의 문화재 사랑
남산순례기 '돌부처' 나왔다

이근후박사, 석불통해 '한국인 얼굴 찾기' 시도

도서출판 여시아문 첫 출판물



"불교유적의 보고요, 민족예술이 뿌리내린 곳/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선조의 살결이며/물소리 새 소리마저 조상의 음성이요, 숨소리니/온 정성 다하여 다듬고 가꿔/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넘겨줄 자연박물관이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은 산' 경주 남산을 신라말기 불우했던 지식인 최치원 선생은 이렇게 예찬했다.

경주 남산은 동서 4Km, 남북 8Km, 해발 468m 밖에 되지 않는 야트막한 산이다. 5백여기에 이르는 우리나라 석불의 20% 가까운 90여기가 이곳에 산재해 있다. 가히 부처님의 땅이다.

정신과 전문의 이근후박사(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곳에 있는 돌부처에 대한 사랑을 1백여장의 사진과 36편의 글에담아 〈돌부처〉라는 이름의 책으로 선보였다. 이 책은 현대불교신문 부설 도서출판 여시아문의 처녀출판물이기도 해 관심을 끈다.

이 박사는 이 책 속에 지난 10여년 동안 석불을 찾아 전국을 헤맨 시간을 고스란히 묻었다. 한 지역에 가장 많은 석불이 있는 경주 남산 곳곳을 법등을 밝히듯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석불의 소개에만 머물지 않는다. 석불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과 희망을 담았다. 돌부처가 말없이 들려주는 얘기를 법구경을 비롯한 경전과 여타의 인문학적 식견을 통해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주관적인 느낌을 사진과 함께 실은 에세이집으로 읽힌다.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한 정신과 의사로서 바라본 우리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엿볼 수 있다. 문화재 전문가와는 다른 독특한 경지를 열어보이고 있다. 경주 남산의 돌부처 순례를 통한 한국인의 정서적 원형질 탐색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들을 남산으로 이끈다. 무슨 종교적 의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들판과 야산에 서 있는 부처님이 전혀 엄숙하지 않듯 우리도 산을 오르듯 그런 마음으로 좇아가면 된다.

"남산을 올라보자. 우리들의 가슴에 혹시라도 엉켜있을 바위 같은 게 있다면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미소로 풀어보는 체험을 해보자. 남산은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그런 선물을 안겨주고도 남을 그런 산이다."

이 책에 실린 사진은 저자 자신의 작품이다. '인도의 석굴' '한국의 석불' 등 네차례나 사진전을 가진 바 있는 전문가다. 이번에 펴낸 〈돌부처〉 출판기념회도 '아, 구원의 미소여'라는 제목의 경주 남산 석불사진전(12월 14일부터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으로 꾸밀 계획이다. 〈정〉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도가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가졌나	서 암	둥 지
3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 영 한	전원문화사
4	불교의 이해와 실천	이 중 표	대원정사
5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6	소설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7	방한암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8	평화로움	틱 낙 한	장 경 각
9	화엄의 바다	관 응	밀 알
10	자기를 바로봅시다	성 철	장 경 각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청화 '원통불법의 요체'

십이년전 겨울 방학 눈이 많이 왔던 것 같다. '참선'이 무엇인 줄도 모르면서 청화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참선 공부를 하기 위해 눈쌓인 산길을 따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칠장사에 밤늦게 도착하였다.

청화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의 내용은 듣지 않고 얼굴만 한없이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천진스러운 동안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보는 깨끗한 얼굴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듣고 보니 많은 고행과 수행을 겸비하신 큰스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몇년 전, 전남 곡성군 동리산 태안사에 있는 금강선원에서 제방의 수좌스님들의 청법으로 이루어진 7일간의 특별법회에서의 법어 내용이다. 나도 출가승이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졌던 차에 법어집으로 엮어져 나와 읽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참선수행에 있어서 실제로 닦고 증득하는 수증론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불교를 원융무애하게 회통시킨 말씀이기에 〈원통불법의 요체〉라고 표제하였나 보다.



정 해 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를 비롯한 수증의 여러가지 문제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를 비롯한 인도, 중국불교의 수행론의 변천, 참선, 염불, 삼매와 공덕, 계율론과 수능엄삼매도, 삼계와 해탈, 그리고 금타화상의 우주론과 질의 응답의 내용이 실려있다.

몇해전 미국을 다녀오셔서 "미국은 참으로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며 사람들이 밝고 여유가 있어 우리보다 훨씬 업장이 가벼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미국을 큰 용에 비유한다면 눈 없는 용과 같다 그 눈은 부처님 법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 하셨다.

공부하는 경계에 관해서는 "자기 공부하는 경계는 스승한테 경책 받기 위해서가 아닌 한 다른이에게 말하지 말라는 불조(佛祖)의 경책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점검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부질없이 얘기하면 망언이다. 따라서 구태여 망언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 불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따르되 그때 그때 인연에 따른 표현과 말에 걸리지 말고 그 깊은 의미를 좇아서 일심정념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화해통한 인간성 회복 길잡이
금타화상의 우주론 쉽게 정리

현대에 꼭 필요한 것은 이른바 회통불교로써 불교의 경직된 분파적인 것을 지양하고 세계 종교의 비교종교학적 연구와 교섭과 화해를 통한 융합의 문제임이 지적되어 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첨단 과학도 물질의 근원은 무엇이고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며 물질과 마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심각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갈수록 삭막한 불안과 좌절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나 노사간의 갈등이나 단체간의 괴리나 가정의 불화 등 우리 사회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는 마치 눈송이가 화로안에서 즉시 녹아버리듯이 홍로점설(紅爐點雪)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오형근 지음)=무한하게 생사를 되풀이하는 영혼의 실태와 윤회하는 과정, 그리고 각종 지옥과 천계 등 사후세계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인간의 심체와 업력 조성' '영혼의 윤회와 인과법칙' 등 12장으로 구성. 〈새터, 9천원〉



▲하늘의 빗장을 열고(동하 지음)=통도사 한계암에 주석하며 동남불교신문사 주필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사사칼럼 모음집. 불교인의 시각으로 부정과 부패, 부실이 판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미래문화사, 6천5백원〉



▲지장보살 영험록(현법편저)=모든 중생들이 보리를 증득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과 지장경의 해설, 지장기도를 통한 영험담을 모았다. 〈대흥기획, 3천원〉



'생명운동 자료집' 이달중 발간

불교환경교육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현대과학사상의 흐름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진행했던 '생명운동 아카데미' 강좌내용을 12월중 자료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집에는 △수학자의 문명관:0에서 공(空)으로(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현대과학사상:포퍼와 토마스 쿤의 과학사상(박은진·성균관대 강사) △양자역학의 철학적 논의와 세계관(최종덕·환경과 자연철학연구소장) △기계론적 패러다임의 반환경성(김국태·호서대 철학과교수) △21세기의 과학과 초과학(최동식·고려대 화학과 교수) △DNA발견으로부터 인체유전자 프로젝트까지의 생명인식(서정선·서울대 의대교수) △현대과학에서의 생명인식(장회익·서울대 물리학과교수)등 7개 강좌와 '과학사상과 환경운동의 이념' '생명문제의 문명사적 의의'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 내용이 실린다.

불교환경교육원은 또 '불교와 생명' '불자환경지침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만해스님 '님의 침묵' 스페인어 번역 출간

만해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울산대 출판부에서 출간됐다. 번역은 울산대 스페인어과 김창환 교수가 했다. 스페인어판 〈님의 침묵〉은 국내는 물론 스페인어사용 국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연천 '향토사료집' 나와
군내 유적·유물등 소개

연천군문화원(원장 현문수)은 최근 향토사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천군 〈향토사료집〉을 펴냈다.

727쪽 분량의 이 책자는 △문화유적및 유물 △산천및 지명유래 △연천군 옛지도 △6·25이전 관내 집성촌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문화원은 향토사료집 편찬을 위해 93년 7월부터 5천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백여 종류의 기초문헌자료를 토대로 자료수집및 현지조사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91년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에서 발견된 중요 문화유적 및 유물 115점 외에 장남면 고랑포리 청동범종 및 청동반자(飯子)등 150점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을가득,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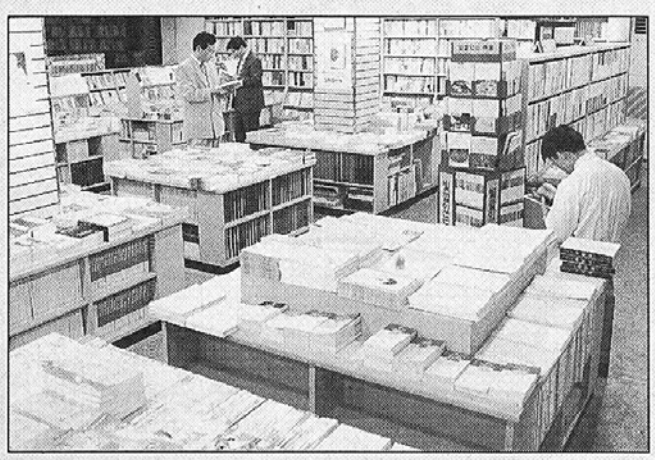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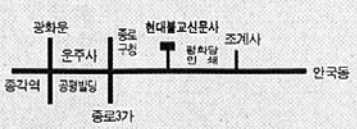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문화재 소식

청곡사 '제석천대범천의상' 보물지정

문체부는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선전기시대 백자발(白磁鉢: 백자대접) 4점을 국보 제286호로 지정하고 진주 청곡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帝釋天大梵天帥像)을 보물 제1232호로 지정하는 등 국보 1점과 보물 7점을 새로 지정했다.

청곡사의 제석·대범상은 회화상이 아닌 조각상으로 현존 국내 유일의 자료이다. 손의 모습(手印)등 입체감과 함께 옷의 문양에서 불화와는 다른 양식을 취하고 있어 18세기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불교의 대표적인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 사천왕상이 위엄을 나타내는 함상인데 비해 이 상은 보살상에 가까운 자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손을 합장하고 얼굴에 흰 호분을 칠한 모습으로 불화에서 자주 그려졌다.



◇보물 제1232호 진주 청곡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

도선국사 탑비복원등 '옥룡사터' 성역화

통일신라말 도선국사(827~989)가 36년간 입산수도 했던 백계산 옥룡사(玉龍寺)터가 광양시에 의해 성역화된다.

광양시는 지난 5월까지 순천대박물관에 의뢰, 옥룡사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는 5억2천여만원을 들여 옥룡사지 일대 사찰부지 2천여평을 매입, 1910년 파손돼 자취를 감춘 도선스님의 탑비를 복원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옥룡사터 복원사업을 등국대나 불교계와 협의해 추진한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12호인 옥룡사 주변 5만여평의 동백림을 연차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고미술품 평가 '동산문화재진흥원' 가동

불교미술품을 포함한 고미술품(古미술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신력있는 민간단체가 결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9일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동산문화재진흥원 임종기원장은 최근 동산문화재 평가사업과 관련 진흥원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동산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진정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민간단체가 없어 유통 및 감정평가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며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감정평가를 고미술품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문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진흥원의 부원장은 김삼봉씨(前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이사는 신찬균 세계일보논설위원겸 문화재위원, 심영환 서울신문논설고문, 신우식 한국언론연구원이사장 등 7명이 맡고 있다.



◇이미타삼존불도를 응용한 대형 드레스 '파안을 향하여'.



◇관음보살의 두상이 강조된 자켓 '기쁨'.

탱화속 불보살 '화려한 외출'

이기향씨 '불화이미지 의상전'…12~28일 가산화랑

탱화속의 불보살님들을 그려넣은 옷이 만들어졌다.

미술의상 연구가 이기향씨(인천대 강사)가 전통불화의 도상을 응용해 만든 여성의류 8점을 선보인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청담동 가산화랑(516-8888)에서 여는 '불화이미지 의상전'을 통해 소개될 이 의상들은 이씨가 지난 3월부터 만든 작품들이다.



◇이기향씨

미국과 독일등지에서 패션디자인을 공부한 이씨는 "한국에 돌아와 강단에 서면서 서양 의상에 불교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며 "처음엔 탱화를 옷에 옮겨도 될까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작품들을 만들면서 매우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씨가 이번에 선보일 8점의 작품들은 불보살님과 불교문양을 전통도상 그대로 옮겨 놓은 게 특징이다. 아미타삼존불도를 기본으로 한 대형 드레스 '피안을 향하여' 관음보살의 두상을 클로즈업해 배치한 바지와 자켓세트 '사랑' '기쁨' 지옥도를 드레스와 자켓의 앞상블로 표현한 '끝없는 길' 사천왕상을 드레스로 표현한 '욕심없는 기도' 등은 불화의 전통도상에 충실한 작품들.

또 돈황석굴의 비천상을 응용해 스커트와 케잎(망또)으로 조화시킨 '하늘나라'와 관음보살의 천수(千手)와 연꽃을 평면과 입체물로 구성한 '연꽃의 사연'은 불교문양의 의류응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양미술을 공부한 이씨는 아름 불화의 도상을 서양화법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해석했으며 의상들도 최대한 곡선미를 부각시킴으로 불교이미지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또 불화가 주는 강한 이미지를 의상이란 표현기법속에서 불교 고유의 온화함과 자비로 표현하기 위해 원색을 피하고 채도를 매우 낮춰 파스텔 톤으로 처리했다.

불교미술을 의상에 처음으로 응용한 이기향씨는 앞으로 사실적인 도상보다는 비구상 기법의 문양으로 불교를 담은 의상을 만들 계획이다.

"아직은 시도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첫선이란 입장에서 최대한 낯익은 무늬와 도상을 연출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전통불교문양과 불화를 파격적으로 해체시킨 독특한 디자인들을 의상에 담아 볼 생각입니다."

임연태 기자

춤·노래로 만나는 '심청'

서울두레 개관 '여기 심청이 있다' 공연

심청의 이야기를 짠한 눈물과 요란한 웃음으로 질펀하게 풀어낼 '여기 심청이 있다'가 전통예술 전용극장 「서울두레」의 개관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여기 심청이 있다'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개의 공연물을 연속적으로 선보이는 시리즈로 공연된다. 지난 9일 공옥진씨의 1인 창무극 '심청전'으로 시작된 이번 공연은 지난 12일에는 박동실제의 소리를 물려받은 한애순씨가 3시간 동안 '심청가'를 완창,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오는 13일에는 한국 관소리계의 거봉 정광수 한승호 박동진옹이 한 무대에 출연, '심청가'를 통해 진짜배기 명인들의 걸쭉한 한마당을 선보인다. 15~17일에는 진도다시래기 기능보유자인 강준섭씨가 병덕어미와 심봉사에 초점을 둬 심청전을 재해석한 '병파막'을, 20일에는 동해안 별신굿의 명인 김석출씨가 '심청굿' 부분을, 22~24일에는 20여년전 해체된 여성농악단이 재결합해 '심청대목'을 선보인다.



◇'병파막' 중 심봉사의 악살스런 모습.

불심시심 〈39〉

이 즐거움 아나

壬戌之秋秋七月 (임술지추추칠월)	임술년 가을 초가을 7월
蘇仙赤壁泛舟遊 (소선적벽범주유)	소동파의 신선 적벽강에 배 띄워 놀때
如今擧酒臨江口 (여금거주임강구)	지금에 잔 잡아 강어구 다다르니
此樂人間知也不 (차락인간지야부)	이 즐거움 세상사람 아는가 모르는가

윗 시는 취미(翠薇·1590~1668)대사가 동악 이안눌(東岳·李安訥·1571~1637)과 함께 뱃놀이를 하면서 화답한 시(敬次東岳李先生安訥泛江集赤壁賦字韻)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조의 사회는 극심한 배불(排佛)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이념이 계속된 조선조의 5백여 년을 지난 오늘의 불교가 어떻게 이렇듯 폭넓은 민중의 종교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회의 아닌 경이로움으로 회고될 때도 있다. 이러한 회의나 경의에 대한 대답은 당시 큰스님들이 큰 선비들과의 지기적 교분의 일면이 크게 작용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취미대사는 당시의 이름있는 선비 곧 고급관리와의 교분이 남달랐으니 그 이름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장유(張維)와 같은 이는 재상이면서도 대사를 청하여 결사(結社) 강론하려 하였지만 대사는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재상의 힘으로 선사를 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산문을 지켜 도덕을 세우는 것이 낫다 하여 그랬으니 이에 장유는 대사를 더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대사의 이러한 사귐의 자세가 당시의 속사들과 격의 없는 사귐을 유지하여 불도의 진작에 이바지 되었으니 위의 시에서 보이는 시의도 두 사람의 막힘없는 인간미를 엿볼 수가 있다. 소동파의 적벽강 놀이는 그 놀이 자체의 풍요로움도 유명하겠지만 거기에서 쓴 적벽부가 만고의 절창이다. 이 놀이를 비긴 뱃놀이의 시로 승속을 뛰어넘었다.

一也詩友安也和
(일야시성안야화)
太一은 시 쓰고 安訥은 화답하니
上人江海共舟遊
(상인강해공청유)
스님과 함께 하는 강가의 맑은 놀이
擧杯須問上弦月
(거배위문산간월)
잔 들어 산간의 달에 묻기를
赤壁舟中何比不
(적벽주중유차부)
적벽강의 뱃놀이도 이 즐거움 있었나

太一은 취미대사의 자이다. 두 사람이 시로 벗이 되었음을 여실하게 보여 주면서 소동파의 놀이가 이만 했겠느냐의 질문을 던진다. 취미대사의 시는 여기에 대한 답시였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전통자수 역사 '한 눈에'

'연화도' 등 130작품 공예미술관 전시

우리나라 자수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렸다.

한국자수문화협의회 주최로 지난 5일 경복궁내 전통공예미술관에서 개막된 '한국자수의 아름다움전'은 명품전 재현전 창작전으로 나뉘어 우리나라 자수의 어제 오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의 하일라이트인 「재현전」에는 우리나라 자수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과거의 명품들을 국내 자수작가들이 직접 재현, 1백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출품작 안에는 연꽃으로 장식한 '연화도' 상상속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낙원도' '십장생도' '화조도'등 회화형식의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또 「명품전」에서는 1930년대 작품을 비롯해 20세기에 들어와 제작된 국내 대표작가의 명품 35점이 전시됐다.

이 전시는 내년 1월17일까지 계속된다.

재단법인 一念獎學會 설립안내

본회에서는 부처님의 정법과 이나라 불교중흥을 위하여 25년간 크고 작은 불사와 대중포교를 위하여 일념으로 걸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장학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학사업을 알립니다.

법인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 법인인가 : 사체 81721 - 906호
■ 허가일자 : 1995년 10월 30일
■ 대 표 자 : 양종윤(양선법장)
■ 이 사 : 조인숙 이영채 임금옥 최금순 양명선 이순덕 신수현 하정옥 구양희 김정순 김영자 이수진 김민자 백복자 박순옥 하수영 하정선 이말선 박성빈 구금숙 이화조 조호자 이순이 최정화 이정혜 (무순)

장학제정

재단법인 一念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불교의 선구적 역군이 될 수 있는 신심이 돈독한 청은불자(승가·재가)를 발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사업을 제정.

— 다 음 —

1. 장학분야
가. 대학생(7명) : - 불교학을 중심으로 선택한 자 - 인품과 성적이 모범이 되는 자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년 1인, 1백만원
나. 고등학생(10명) 불교학생회에 참여하고 지도법사(교사)가 추천한 자—년 1인, 30만원
다. 장애인 : 불자장애인 고등학생, 혹은 장애인 단체에서 불교에 활약중인 개인 및 단체—200만원

2. 수여일자
• 수여일자 : 1996년 1월 중순(별도 개별통지) 본회 설립기념 행사시
• 접 수 처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 접수일자 : 1995년 12월 20일까지
• 문 의 처 : (051) 464-0561

1995년 11월 일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불기 2540년 丙子年 달력 16나한도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출판사에서는 불기 2540년(병자년) 16나한도 불교달력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 제작과정이 복잡하므로 미리 서신이나 FAX로 주문바랍니다.

감로기획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전화 : (02) 723-4306~7
팩스 : (02) 738-8682



■ 달력 크기 26cm×26.5cm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39〉

山谷居士黃太史發願文 (산곡거사황태사발원문) ②

我從昔來 因癡有愛
아종석래 인치유애
飮酒食肉 增長愛渴 入邪見林 不得解脫
음주식육 증장애갈 입사견림 부득해탈
今者對佛 發大誓願
금자대불 발대서원
願從今日 盡未來世 不復淫欲
원종금일 진미래세 불부음욕
願從今日 盡未來世 不復飮酒
원종금일 진미래세 불부음주
願從今日 盡未來世 不復食肉
원종금일 진미래세 불부식육

내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리석은 까닭에 매사에 애착이 많아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사탕·애착에 목말라 이를 키워왔고 삿된 견해를 무수히 키워 숲을 이뤘으니 해탈을 하지 못했도다.
이제 부처님을 대함(수계)에 큰 서원을 발하옵니다.
원컨대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음욕에 젖지 않겠으며
원컨대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으며
원컨대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說復淫欲 當墮地獄 住火坑中 經無量劫
옥에 떨어져 뜨거운 쇠구슬을 삼키며 무량겁을 지내겠지만
일체중생이 고기를 먹은 까닭에 받게 되는 괴로운 과보를 내가 모두 대신 받겠습니다.

願我 以此盡未來際忍事誓願
원아 이차진미래제인사서원
根塵淸淨 具足十忍 不由他敎
근진청정 구족십인 불유타교
入一七住 隨順如來
입일체지 수순여래
於無盡衆生界 現作佛事
어무진중생계 현작불사
恭惟十方洞徹 萬德莊嚴
공유시방통철 만덕장엄
於刹刹塵塵 爲我作證
어찰찰진진 위아작증

내가 이렇듯 미래세가 다하도록 (과보를 대신 받는 각오로) 인내하기를 서원하노니
육근육진이 청정하고 십인(보살이 무명 번뇌를 끊고 온갖 법이 본래로 고요하여 텅비었음을 깨닫기까지의 열가지 안주의 인)을 고루 갖추고 다른 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일체지를 깨우쳐서 여래를 따라 중중무진 중생계 가운데 몸을 나투어 불사하기를 원하옵니다.
삼가 오로지 시방세계에 남김없이 통철하시며 만가지 공덕으로 장엄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찰나도 쉬지 않고 돌고도는 이 티끌세계에 저를 위해 증명을 지으소서.

"어리석은 까닭에 삿된견해 숲 이루니
가피력으로 미혹구름 걷히게 하소서"

설부음욕 당타지옥 주화갱중 경무량겁
一切衆生 爲淫亂故 應受苦報 我皆代受
일체중생 위음란고 응수고보 아개대수
設復飮酒 當墮地獄 飮洋銅汁 經無量劫
설부음주 당타지옥 음양동즙 경무량겁
一切衆生 爲酒亂故 應受苦報 我皆代受
일체중생 위주전도 응수고보 아개대수
設復食肉 當墮地獄 吞熱鐵丸 經無量劫
설부식육 당타지옥 탄열철환 경무량겁
一切衆生 爲食肉故 應受苦報 我皆代受
일체중생 위식육고 응수고보 아개대수

설사 다시 음욕에 젖으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에 머물며 무량겁을 지내겠지만
일체 중생이 음란에 빠진 까닭으로 마땅히 받게 될 괴로운 과보를 내가 몽땅 대신 받겠습니다.
설령 다시 음주하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바다같이 많은 끓는 구리즙을 마시며 무량겁을 지내겠지만
일체중생이 술 먹고 잘못을 저질음으로써 응당 받게 될 괴로운 과보를 내가 대신 몽땅 받겠습니다.
설사 다시 고기를 먹으면 마땅히 지

說經歌羅邏身 忘失本願
설경가라라신 망실본원
惟垂加被 開我迷雲
유수가피 개아미운
稽首如空 等一痛切
계수여공 등일통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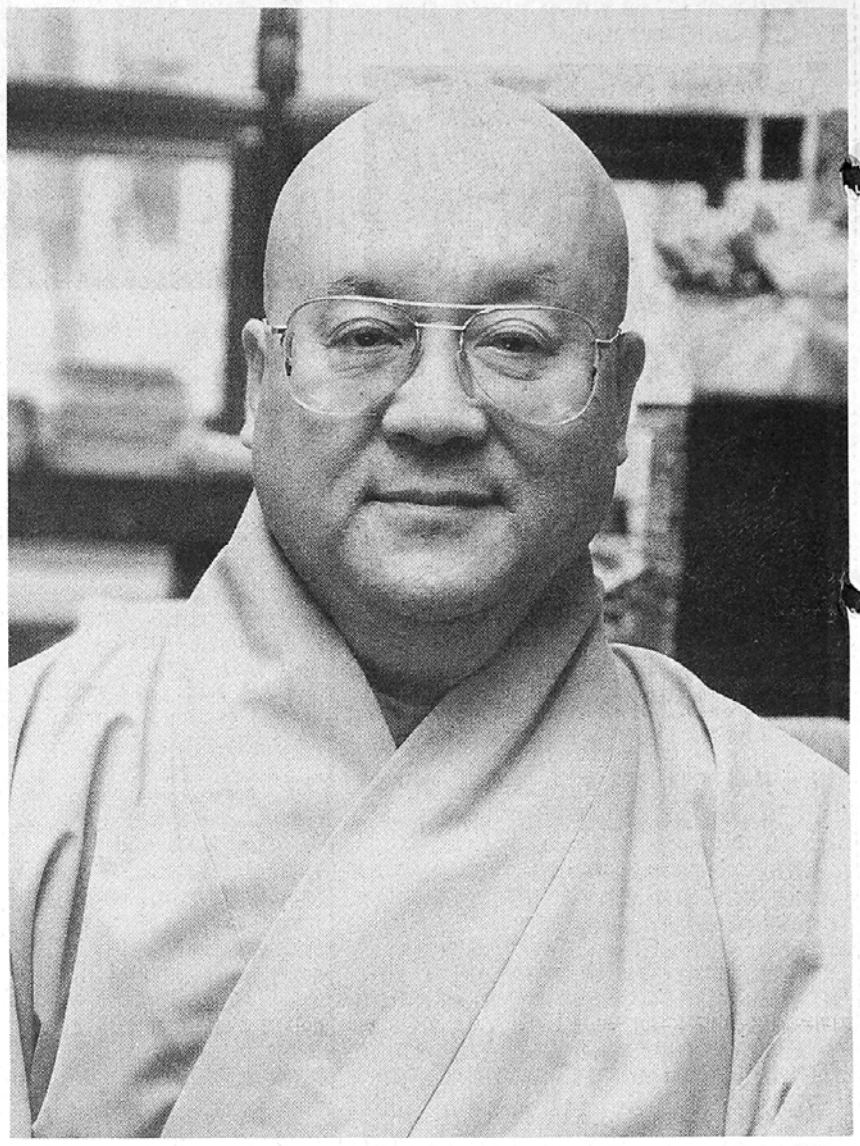
설사 제가 가라라신(응골·태중에 들어 1주일이 되기전의 몸)으로 태중을 지나다가 제 본원을 잊을지라도
오로지 가피력을 드리워주사 져의 미혹의 구름이 걷히게 하소서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평등일심(한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龍眼

★ 지상법석

"病苦의 절망 극복하면

인환스님 〈동국대 교수〉



약력
- 31년 원산 生
- 52년 부산 선암사 에서 득도
- 64년 동국대卒
- 75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文博
- 76~81년 캐나다 대각사 창건, 캐나다 주재 국제포교사
- 저서로 〈신라불교연구〉등 불교사관련 논문 80여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의 하나가 병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제 병이 들지 알 수 없는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의 건강관리에 마음을 써서 절도 있는 생활을 하도록 평소에 노력하는 일이 가장 근본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할 것인가. 병이 들어도 중병이 되어서 오랜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혹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나아가야만 할 것인가.

병이란 다만 육체적인 고통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의 정신적인 괴로움과 생활상의 어려움까지 함께 몰고 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 병을 더 중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왔을 때에는 먼저 초조해하지만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세히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대하는 태도에 두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을 오직 피하기 어려운 무서운 재앙으로만 알고 더욱 더 소극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끝내 자멸하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들어 고통받을때
괘유를 기도함은
생명을 아끼는 까닭
이것이 참 마음이며
부처님 자비에 통하는 마음"

병이 온 것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시련이라고 받아 들여서 적극적으로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병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괴로움이 없는 곳에는 참된 구원도 또한 없는 법입니다. 병을 자기 인생을 시련하는 좋은 기회로 받아 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인생에 처해 나아가는 그 사람의 정도가 결정지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누가 처음에 커다란 충격과 깊은 절망을 겪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절망의 밑바탕에서만이 참되게 되살아 나는 싹이 트게 되는 것이며 절망이야말로 희망의 어머니이며, 깊고 깊은 절망을 맛본 사람이 오히려 커다란 희망에 사는 길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으로 볼 때 병에는 도리어 세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생명을 자각하게 되는 공덕입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건강할 때에는 자신의 생명력을 별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일단 병들면 자신의 생명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희망과 신념 그리고 가정과 사업등을 새삼 되새겨 보면서 중도에서 넘어질 수는 없다고 초조해 하며 번민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를 바라게 되며 이러한 불행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자기 생명을 확실하게 자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미쳐 알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신비에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까지 합니다. 병없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건강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병을 앓아 보고서야 비로소 건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기에 중병에 걸렸다가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라야 참된 건강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과의 싸움에 승리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건전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번뇌와 망상 허물과 더러움 등 부정과 부패한 것을 회피하는 정신이 아니라 그러한 독소의 영향을 받고서도 약전 고투하여 끝내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몸을 단련함이 없이 온실에서 화초기르듯 하는 건강 관리만으로는 참된 건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 사상의 순결도 세상의 어지럽고 복잡한 것을 도피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불안과 혼미한 것들의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청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정신도 육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력은 고난을 겪을

中央僧伽大學 96學年度 新(編)入生 募集要綱

■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한 종단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의 4년제 대학 학력 인정 대학이다.

■ 모집학과 및 정원

학 과	모 집 정 원
불 교 학 과	60명
사 회 복 지 학 과	60명
계	120명

※ 제2지망을 할 수 있음.

■ 응시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 고교졸업,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타 종단승려도 정원의 5%내 입학할 수 있음.

■ 전형방법

고교내신성적	불교교리고사	면 접 성 적	계
60%	20%	20%	100%
600점	200점	200점	1,000점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원서교부기간 : 95. 12. 11(월) 10:00~96. 1. 19(금) 17:00
- 원서접수기간 : 96. 1. 15(월) 10:00~96. 1. 19(금) 17:00
※ 토·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원서에 한함.

■ 입학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가.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내신성적표(입학원서 하단 소정양식에 기록)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입학원서 뒷면 소정양식에 기록.
대입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원본 및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다. 석차연명부 사본 1부(이상은 출신고에서 발급)
라. 승적사본(총무원발행)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대학입시용)
바. 보호자추천서 1부 : 타 종단 승려는 소속종단 총무원장의 추천서
사. 호적등본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
자. 칼라사진(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5매
차.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①입학원서대:2,000원(입학요강포함)
②전형료:50,000원

■ 전형일정
- 예 비 소 집 — 장소 : 본교 대강당 / 일시 : 96. 1. 24(수) 09:00(음 12월 5일)
- 불교교리고사 — 장소 : 본교내 고사장 / 일시 : 96. 1. 24(수) 10:00~11:10
- 면 접 고 사 — 장소 : 본교 면접장 / 일시 : 96. 1. 24(수) 13:00~
- 신 체 검 사 — 원서접수시 제출한 건강진단서로 대체함

■ 합격자발표
— 장 소 : 본교 게시판
— 일 시 : 96. 2. 2(금)경 10:00(음 12월 14일)

■ 신입생 장학 및 혜택
- 전체수석 1명 : 1년간 등록금전액+교과서대금 수여
- 전체차석 1명 : 한학기 등록금 전액수여
- 학과수석 각 학과 1명 : 한학기 수업료 전액수여
- 학과차석 각 학과 1명 : 한학기 등록금 반액수여
※ 재학중 전교생의 30%정도는 각종 장학혜택을 받는다.

■ 본교 입학생 및 졸업생 특전
1. 본교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기관」이므로, 본교 졸업자는 비구 및 비구니계와 법계 5급(정덕)을 품수 받는다.
2. 본교 졸업후 각 대학원에 진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은 보건복지부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4. 재학생은 병역연기 혜택을 받으며, 예비군은 본교예비군 소대에 편성, 연중 1일의 기본교육만 받는다.

■ 편입생 모집요강
(1)모집내용 : 제2학년—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명
제3학년—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 약간명
(2)지원자격
제2학년 : 대한불교조계종 승남2년이상 승려로서 대학 1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가능)
(전문대는 졸업자, 방통대·산업대(개방대) 1학년이상 수료자)
※단, 전적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자격이 없음.
제3학년(학사편입) : 대학 4학년 졸업예정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계종의 승남 3년이상 승려
(3)전형방법 : 전적학교성적, 불교교리고사, 면접, 건강진단사정
(4)지원희망자는 본교 교학처에 문의바람.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02)925—5507~9, 926—4377, FAX(02)928—4302

지 상 법 석

자신의 생명력 터득”

“참으로 건전한 정신은 불행을 당했을때 번뇌·허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전고투하며 끝내 이겨내는 의지입니다”

수록 단련되는 것이며, 이것을 생명의 자각이라 합니다. 이와같은 도리를 병든 인연을 의지해서 자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연과 인생을 바로 보는 눈을 뜨게 되는 공덕입니다.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될 때 사람은 고독해지며 마음이 평상시보다 섬세하고 예민해지며 그것이 지나쳐서는 감상적이거나 신경질적으로 되어 생각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치 말고 그저 왜 그렇게 되는지의 이유를 따질 겨를도 없이 하게 되며, 기도하여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막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나의 참 마음이며, 부처님의 자비에 통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남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자비한 마음만 기도하는 마음을 압니다. 어느 종교나 종파의 교리로 설명되어지거나, 규정지어지기 이전의 이와같이 솔직한 기도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근본이며, 신앙의 원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사랑 분별 따위로는 참된 신앙과 미신이 갈라지는 점이 어딘가. 중생들이 대개가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한 성현을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회복이 되면 말짱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데, 병을 고치겠다는 거기에만 고집하게 될 때에 신앙은 공리성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갖 가지 여러 종교가 병이 꼭 낫는다는 실제적인 약속을 간판으로 내걸게 되고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 보려고 함이 당연하니 모르는 새에 눈앞에 선전 효과에 끌려서 바른 것과 삿된 것을 가릴 겨를도 없이 시키는 대로 좋다는 기도와 용하다는 방법을 다 따르게 되며, 가진 재물을 다 바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통의 경우 병이 들었을 때는 병 이외의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고 생각이 흔들려 갈피를 못잡을 때는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기가 쉬워져서 병이 좀 오래 끌게 될 때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이 같은 분별 망상 때문이니 이런 경우에는 육체의 병보다 정신의 병이 더 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관점으로 볼 때 병을 고친다는 것은 온 생명을 재생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병을 육체상에 일어난 부분적인 현상으로 보게 된다면 고쳐줄수 있는 신앙과 의술이 다 공리적인데에 떨어지기 쉬운 까닭에 병은 어떻게 나았으나 앞으로 살아갈 기력은 잃었다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선고를 받고 비로소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이나마 힘껏 살아 보려고 결심한 사람도 많았으니 병상에 있으면서 후세에 남을 훌륭한 일을 남기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사여래본원공덕경’에 약사여래 부처님의 서원은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는 염원을 통해서 중생들이 대승의 깊은 가르침에 들게 함을 본원으로 삼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병을 인연으로 하여 인생의 일대사에 눈을 뜨도록 기원하여야 할 것이며, 각자가 자기 앞에 닥쳐온 생명의 위기를 통해서 커다란 참된 생명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최고의 기회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가까이 눈앞에 있음을 병든 사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병은 참나를 발견케 해 줄 것입니다.

육체적 아픔에 꺾이지 않는 청정한 마음가져야
한생각돌려 병든인연 되새기면 ‘자각의 길’ 보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일면인 것임을 알고 얼른 한생각 돌려야 합니다. 한 생각 돌이킬 때 병은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렇게되면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산천 초목의 아름다움과 창가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에도 마음이 끌리게 되면서 구석 구석에까지 넘쳐 흐르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들 친척과 이웃들 그리고 간호해 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셋째는 정성스럽게 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공덕입니다.

어려울 때 불교를 믿는 이들이 부처님을 의지함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평소에는 신앙에 대하여 생각치 않던 사람도 병들어 위기를 맞게 될 때에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병들면 의학을 믿고 의지함이 마땅하지만 의학이 아무리 발달 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완벽하게 보증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자신이 병들었을 때 뿐만 아니라 집안의 권속들이나, 그리고 친한 이나 이웃들이 병들었을 때, 의사를 신뢰하면서도 역시 기도하는 마음이 나게 됩니다.

따져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병으로 얻어지는 가장 큰 공덕이라 하겠습니다.

옛부터 병으로 인하여 참된 신앙에 눈뜨게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죄악이 소멸되지 않는 한 신앙이 없어지지 않듯이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신앙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인간의 존속하는 한 생명을 아끼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애절한 싸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을 바로 돌려야 할 점은 흔히 병과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대개 병이 신앙으로 해서 쾌유되었다는 효과가 따라 붙게 마련이지만 본래 생겼다가 언젠가는 없어질 이 몸에 들고 나고 하는 병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았거나 아니거나간에 관계없이 병을 인연하여 참된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으로 해서 비로소 바른 사람이 되었고 병으로 인하여 인간의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약사여래 부처님의 서원은 중생의 병을 고쳐주실 뿐아니라 병을 고치려는 염원을 통해 대승의 가르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발등에 그 같은 불이 떨어졌을 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미리 장담할 수 있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바라는 인간의 지극한 정을 살펴야 할 것이며 생명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교(邪敎)나 미신(迷信)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이나 미신이나 역시 생사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동일한 바탕에서 생기는 것이면서도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0

양 형 진

진화의 증거

다윈은 1831년 탐험선 비이글 호를 타고 5년간의 항해를 하였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표본을 얻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경험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한 탐험이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쿠아도르 해안에서 정서방으로 1천km 정도 떨어진 고립된 섬이다. 그는 그 곳에 사는 동물들이 남미 대륙의 동물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르며, 서로 다른 서식지에서 먹이 경쟁을 하는 새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생물종이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 생각은 그후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었다. 다윈에서 시작된 진화론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대단한 반발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론이 되었으며 인간의 세계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이론이 되었다. 진화론의 증거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자.

우선 해부학적인 증거를 들 수 있다. 다양한 포유류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두개골을 이루는 뼈의 수나 구조, 기능 등은 모두 같으며, 목뼈의 수는 기린과 같이 목이 긴 동물이나 사람과 같이 목이 짧은 동물이나 같다. 또한 새의 날개나 육상 포유류의 앞발, 고래의 앞 지느러미 등도 그 기본형은 같다. 이러한 예는 그들이 모두 같은 조상에서 유래하였으나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살면서 오랜 기간동안 자신의 신체적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그들이 어떤 공통의 조상을 가졌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발생학적 증거를 들 수 있다. 어느 동물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단세포의 수정란에서 시작되는 여러 척추 동물의 발생 과정을 비교하여 보면, 처음에는 대단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가 발생이 진행되면서 각자의 특유한 형질이 갖추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조류나 포유류의 발생시 그들의 심장이 어류나 양서류의 심장 상태를 거친다든가, 말발굽의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화석상에 나타나는 진화 역사상의 변화를 반복한다는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장이나, 동맥 등의 발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가리켜 개체 발생은 오랜 기간에 걸친 진화 과정 즉 계통 발생을 축소 반복한다고 말한다.

가장 결정적인 진화의 증거는 화석에서 발견된다. 가령 척추 동물의 경우 지층 연대별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의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에서와 같이, 오래된 지층에서는 오직 하등 동물의 화석 만이 나오며 새로운 지층으로 가면서 고등 동물의 화석이 나온다. 그리고 현존하는 생물들의 중간종이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 화석으로 나오기도 한다. 가령 지금의 조류와 파충류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시조새는 현재의 조류와 파충류가 쥬라기 시대의 공통의 조상에서 분리되어 각자 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는 200여 종의 말의 화석은 말발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현재와 같이 발가락 하나만이 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생물을 분자 수준에서 관찰하여 볼 때 비슷한 생물종이란 DNA의 염기 배열이나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이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진화의 계통을 분자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진화에 대한 생화학적 혹은 분자생물학적 증거가 된다. 가령 척추 동물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분자의 배열 순서는 가까운 종에서는 비슷하고 먼 종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생화학적 분석에 의하면 어떤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분자 하나가 다른 것으로 치환되는 데에는 약 600만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람과 말의 헤모글로빈 분자의 아미노산 배열은 18곳에서 차이가 나므로 사람과 말의 공통의 조상은 약 1억년 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산소 호흡을 하는 동물의 전자전달계인 씨토크롬C 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포유류와 다랑어의 공통의 조상은 4억년 전에 존재했으며, 척추 동물과 효모의 공통의 조상은 20억년 전에 존재했다고 한다.

생물 발생·계통 과정 화석통해 확인가능
아미노산 분자배열 가까운 種끼리 비슷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水子靈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 (죄업소멸 복덕증장) 봉행

떠도는 어린 넋들을 위하여
수자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수자 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염불행자들의 염불정진을 위한 제5차 백일 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수자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넷째, 불보살의 큰 서원에 의탁하여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삶의 고통과 죄업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의 다정한 벗이 되어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미타기도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장수멸죄경 ②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③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④ 백일기도를 위한 일일수행법과 수자영가축원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일 시: 1995년 12월 7일(입재) ~ 1996년 3월 4일(회향)
■ 동참회비: 기도금(3만원) 영가위패 1인당(5천원)
■ 온 라 인: 조흥은행 322-06-008780(석현장)
■ 연 락 처: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546-840) 전화 (0694) 52-1755 팩스 (0694) 53-0009

지장보궁 염불선 도량 대원사
주지 釋 玄 藏 합장

불기 2540년(丙子年)
신년 축하 광고 안내

다사다난 했던 을해년을 보내면서 새삼 삼보의 가르침에 두손모아 공경을 표합니다.
본지는 불기 2540년(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법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특집 신문을 꾸미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 하는 광고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한해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신년축하광고
■ 접수마감: 95년 12월 16일
■ 규격 및 단가
1) 종단 : 가로 9cm×세로 17cm 기준, 25만원
2) 본사 : 가로 8.5cm×세로 6cm 기준, 15만원
3) 말사 : 가로 7cm×세로 4cm 기준, 5만원
4) 불교관련업체 : 위 규격기준, 선택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광고국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 FAX (02) 737-0697

고은 불교 대하소설



56

작 별

그들은 금강산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만한 손님이 아니었던가보다. 금강산도 수월과 파현을 받아들일 인연이 아직 피어나지 않았던 것인가.

오직 그들이 마음에 두었던 회월당을 찾아간 길이 그 노승의 장례에나 동참하고 물러난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진작 철원땅 산중의 도피안사에 들른 것부터 황당무계한 노릇 뿐이었다.

곰보주지의 알송달송한 존재가 그렇고 표훈사 누각의 수염없는 노승의 만만치 않은 수작도 그렇고, 신계사에 당도하자마자 송장 화장에나 얼쩡거리다가 살껏 어둠속의 추위와 배고픔을 누리고 물러나야 했던 것이다. 아니, 그들은 금강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두 사람은 무턱대고 북쪽으로 난 산중의 길을 향하였다. 그 길이 산중을 넘고있다 하지만 절도사 관내의 요충지인 군사도로를 접하고 있는지라 길은 제법 규모가 있었고 북행 남행의 인마(人馬)가 붐한 곳이 아니었다.

이따금 병사들이 대오를 잘 짓지 않은 채 지나가기도 하였다. 그들은 숫제 백성의 뜻을 저버린 위압으로 사방을 사나운 눈초리로 훑어대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길에 많이 나타나면 결코 태평세월이 아니다. 그것은 큰 비 직전에 개미나 미물들의 행렬이 다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난세의 한 징후이기도 하다.

앞의 시대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오려는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난세의 한 삽입을 청사(靑史)에 끼워넣을 작정인지 그것을 누가 함부로 장담하겠는가.

일찌기 백년 앞을 내다보았다는 예언가 남사고(南師古)조차도 어찌 백년은 고사하고 십년 앞을 미리 알 수 있었던가.

바로 그가 몇겁을 가는 밤길에 돌멩이 있어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내가 이 돌멩을 감싹 잊어버렸구나"하고 개탄하지 않았던가.

아무튼 사람들이 길을 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철령 산중의 호랑이조차도 갑자기 불어난 인기(人氣) 때문에 슬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옛 중국 강남사람 노자(老子)가 말하였다. 사람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것을 좋은 세상이라고.

그것은 농사짓고 잠자고 하면서 이웃마을의 개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도 듣지 않는 그 고정된 농경사회 백성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전란으로 피폐한 것을 보았으면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하지만 사람이란 본디 움직이는 생명이다.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고 하는 생명이다. 도무지 한 군데에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고 몇백년 동안 커다란 그늘이나 만들어 주는 큼나무나 당산나무 따위가 아니다.

아무리 오랜 농경사회에 익숙한 삶이라고 한들, 50리 밖을 타국으로 여기던 삶이라고 한들 그들의 근원은 무엇이던가. 상고시대의 그 무의식과도 같은 유목민의 유람으로 산 적이 있는 그런 떠돌이 후예가 아니던가.

그럴진대 그 후예로서의 핏줄 안에 어찌 버리고 떠나는 길의 사람이 되는 일을 꿈꾸지 않을 것인가. 머나먼 상고시대의 과거야말로 어느 경우에는 아주 새로운 세계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가슴을 밀물의 관능처럼 일렁거리게 하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세상이란 바로 이런 길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주자학체제의 그 배척 밖에 모르는 권력의지의 지칠줄 모르는 불화(不和)만이 모든 지친 것에 대한 힘을 휘둘러 대는 중이었다.

여기에 옛 불교의 화엄종에서 일어난 화쟁(和諍)사상이 얼마나 쓸모가 있겠는가. 다만 산중에서 박힌 못처럼 곰삭하지 않고 은거하고 있는 승려들도 하나둘 길을 나서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도성 출입이 엄금된 신분이지만 방갓을 쓰거나 옷을 바꿔입고 왕실 종친(宗親)의 내당에까지 들어가 은근히 지장경(地藏經)설법을 하거나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을 내걸거나 하고 금붙이 따위의 후한 보시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런 드문 경우 말고는 중이란 웬만한 양반의 길에 함부로 스쳐서는 목숨이 온전하지 못하기 십상이었다.

굳이 중앙정부의 요직에 산다는 사대부가 아닌 지방 사림(士林) 부스러기들조차 그들이 속한 서원(書院)에서의 가혹한 사형(私刑)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사또가 무섭다는 놈은 8사동이고 서원이 무섭다는 놈은 만삭동(滿朔童)이라는 말도 그럴 듯하였다.

바로 이런 시절에 수월과 파현은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길을 나섰다.

산중은 제대로 맛보아라는 듯이 점차 첩첩하여 한번 길이 어긋나면 어느 곳으로 들어가 오도가도 못할지 모르게 발달하였다. 소나무는 정정하고 떡갈나무는 빽빽하였다. 이를테면 새소리도 경기도 포천 철원지경에서 듣던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이런 산중의 그윽한 정취를 반영하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짠 사이로 말이 없었다. 말이 없을 뿐아니라 서로 사이가 나쁜 상태인 것처럼 판전을 부리는 동행이어서 그것도 다툿하였다.

어쩌다가 수월이 흔자말처럼 "저 봉우리는 금방 허물어질듯이 위태위태하네 그려"라고 말을 던져보지만 파현의 입에서 무슨 정다운 대꾸가 나올 리 없었다.

아니 그들 사이의 이같은 사이는 점점 굳어져서 그들이 양변땅에 이르러 관소(關所)의 초병으로부터 검문을 받을 때도 각각의 행각처럼 서로 돕는 일이 없었다.

그러자 생김새가 좀 거칠어 보이는 파현이 좀처럼 농여나지 않고 잡혀서 이것저것 심문을 받을 때도 저만치 가 있는 수월은 그저 서서 기다릴 뿐이었다.

때는 금강산의 겁승 운부(雲浮)대사가 그 당시의 승려세력과 놀이패 장길산(張吉山) 귈기대와 뜻을 함께 해서 조선은 물론 이거니와 중국까지 정벌할 것을 목적으로 한 대변혁운동이 시작될 즈음이었던가.

본디 운부대사는 중국 송(宋)나라의 명신(名臣) 왕조(王薄)의 후예인데 명나라가 망한 뒤 새로운 청나라를 등지고 조선으로 망명한 사람이었다. 바로 금강산에 입산해서 중이 된 것이다.

그 사건의 추안(推案-수사기록)을 보건대 천문 지리에 능통하고 인심을 잘 살펴서 그 재주가 옛 제갈공명이나 유기(劉基)에 견주어 떨어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의 조선인 제자로는 옥여(玉如) 일여(一如) 묘정(卯定) 대성법주(大聖法主)등 1백여명이 있어 그들에게 그의 비술(秘術)을 가르쳐 주어 그들 하나하나가 능히 숨어있는 8도의 승려들을 불쳐 일어나게 하였다.

한 사람을 세워 조선의 왕으로 삼고 또 한 사람으로 중국의 왕으로 삼으려는 원대한 구상 아래 때를 보아 한성 북악산 밑 임진왜란 때 백성에 의해 불태워진 그 궤허와 함께 권모술수로 나날을 보내는 대궐에 쳐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엄청난 사변을 앞둔 시절이라 사전에 그 전모를 모르고 있던 관군 쪽에서는 어떤 냄새를 맡아 기찰이 심해진 것이 사실이었다.

파현이 붙은한 자로 풀려나지 않게되어서야 수월이 관소로 다시 가서 충청도 무욕도에서 수도하다가 석왕사에 가는 동행이라고 말해서 가까스로 파현이 방면된 것이다.

하지만 파현이 방면된 뒤에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오니 고생의 시작이로세" 하고 수월이 위로 했지만 그 말에도 통 대꾸가 나옴즐 몰랐다.

그들은 그저 걸어갔다. 파현이 듭고 있던 지팡이를 저만치 숲속에 던져버렸다. 이제 지팡이조차도 필요없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의 표명인지도 몰랐다.

그러자 지팡이가 떨어진 곳에서 살찐 꿩 두 마리가 그 둔탁한 몸짓으로 놀라 달아나는 것이었고 뒤이어 굉이 앉아있던 자리 저쪽에서 뭔 떠꺼머리 장정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 장정이 파현이 내던진 지팡이를 꼬나잡고 마치 봉술(棒術)을 부리듯 몇번인가 공중에서 돌려대며 다가왔다.

"어디 가시는 화상들이우?"

말투가 당찼다.

수월이 점중히 응대하였다.

"공부하다가 공부가 꽉 막혀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공부가 막히셨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우리하고 활발한 공부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입니까?"

"그것이야 천하 각처가 다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그때 파현이 나섰다.

"소승이 동참하겠습니다."

장정은 파현의 몸을 한번 훑어본 뒤 수월을 훑어보았다.

"화상께서는 어떠십니까?"

"소승이야 더 떠돌 일이 있습니다."

"좋소이다. 더 떠돌 일이 있다면 그래야겠지요. 그러나…."

하고 그는 말을 끊었다.

그 장정이 파현에게 십년지기(十年知己)나 되는 것처럼 파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우리는 갑시다"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수월은 어이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만큼 가던 파현이 기어코 한번 돌아다 보았다.

"수월스님!"

이라고 불렀다.

수월은 파현을 쳐다볼 따름이었다.

파현이 달려왔다.

"스님! 소승은 아무래도 스님보다 내생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기운도 보이고 있었다.

"짐작되는 일이라도 있는가?"

파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한 마디 말을 남겼다.

"금강산 신계사 회월당도 이 사람들과 동패라 합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던가?"

"신계사 사미(沙彌)가 그 노승 다비때 무심코 곁에 있는 소승에게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곧 죽어야 할 역적(逆賊)으로 몰릴 신세인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스님과 이 장정이 한 통속임을 어찌 아는가?"

"소매끝동을 꿰맨 검은실이 신계사 중들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같은 표시입니다."

수월은 고개를 들어 울창한 숲 위로 돌려있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럼…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파현의 작별인사와 함께 파현은 숲속의 장정한테로 성큼성큼 가는 것이었다.

그림 · 조향숙

"우리하고 활발한 공부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파현은 장정을 따라가고…

> 사람들이 길에 많이 나타나면 결코
> 태평세월이 아니다 그것은 큰비 직전에
> 개미나 미물들의 행렬이
> 다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 어떤 난세의 한 징후이기도 하다
> 아무튼 사람들이 길을 가는 일이 많아졌다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및 불교원전연구 · 어학교육 안내

가산회향회

-후원가족 입회 안내-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이념과 사업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본원 후원회인 "伽山會向會"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 향동회향회원: 월 1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회향하실 분
■ 지혜회향회원: '가산상'의 '연구상'이나 '학술상' 등으로 자유로이 회향하실 분
■ 자유회향회원: 연 50만원 이상을 분할 또는 일시불로 회향하실 분

이상의 후원회비는
三輪清淨의 정신과 그 회비운영의 개방으로
佛性人間과 그本性自然이 함께 하는
佛國土具現에 회향됩니다.

* 회원이 되시면 ——
- 본원의 주 목적사업인 불교대사전(30권 예정) 구입시 특전을 드리며,
- 본원의 강좌와 각종 교화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정간물과 교화매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의 모니터가 되시어 본원 발전을 위한 열린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회비는 ——
- 본원으로 직접 방문 납입하시거나
- 거로(7606753) 또는 온라인 구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중들의 수행처 伽山蘭若은 ……

■ 불교의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본래불성과 자연의 근본법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뜻을 연 대중들의 정진수행처입니다.
■ 본 법인은 자회의 난아화를 추구하는 일체의 공동체입니다.
■ 난야(Āranyaka)란 일도 없이 정진하는 수행처를 이름합니다. 탐욕과 무지의 동환을 영처버리고 진여의 자유세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난야가족을 三學·三施정신에 의거해 공동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精進蘭若 / 戒學 불교사상교육 / 平等의 나눔(財布施)
◆ 禪定蘭若 / 定學 禪 宮 修 / 自由의 나눔(無畏施)
◆ 智慧蘭若 / 慧學 불교전문교육 / 智慧의 나눔(法布施)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학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96년도 1기 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및 불교원전연구 과정

구 분	코드	강좌명	교 재	강 사	강의시간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K-01	한국불교 금석학강좌	역대고승비문(고려시대편) -이지관-	강주 지관 스님 (본원 원장)	격 주 목 19:30~21:00
'96 제1기 불교원전연구회	H-11	한 문 불전연구과정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청량 찬-	강주 지관 스님 (본원 원장)	격 주 금 19:30~21:00
	S-11	범어 원전연구과정	Abhidharmako śa(俱舍論) -世 親-	이 종 철 (서울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격 주 월 19:30~21:00
	T-11	티벳어 원전연구과정	Bsgom-pahi rim-pa(修習次第) -Kamalasila-	허 일 범 (진각대학교수, 본원 연구위원)	격 주 화 19:30~21:00
	P-11	팔리어 원전연구과정	불교원전언어연구의 팔리어본 -최봉수-	최 봉 수 (경전언어연구소장, 본원 연구위원)	격 주 수 19:30~21:00

불교어학연수과정

구 분	코드	강좌명	교 재	강 사	강의시간
'96 제1기 불교어학연수 '96. 1. ~ '96. 2.	H-01	불 교 한문강독	선원제4전집도서(禪源諸4詮集都序) -宗密 著-	김 영 욱 (고려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매 주 목 13:00~15:00
	S-01	범 어 어학연습	Learn Sanskrit in Thirty Days	이 종 철 (서울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매 주 월 13:00~15:00
	T-01	티벳어 어학연습	티벳어의 기초와 실천 -허일범 저-	허 일 범 (진각대학교수, 본원 연구위원)	매 주 화 13:00~15:00
	P-01	팔리어 어학연습	불교원전언어연구 -최봉수 역-	최 봉 수 (동국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매 주 수 13:00~15:00

■ 제출서류 입회원서 1부(본원소재)와 사진 2매 ■ 접수처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접수일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이지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우당기념관 2층)
☎ 765-9602~3, 745-1663 / FAX 765-5673

도서출판 가산문고가 내는 책들은 ……

「伽山學報」 창간호
「伽山學報」 제 2호
「伽山學報」 제 3호
「伽山學報」 제 4호(신간)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韓國佛敎文化思想史」(상 · 하)
-논총간행위원회 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신라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고려편 1)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고려편 2)(신간) •
「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
-이지관-
「南北傳六部律藏 比較硏究」
-이지관-
「伽倻山 海印寺誌」
-이지관 편-
「信行日鑑」
-이지관-
「信行叢鑑」
-이지관-
「增補 四集私記」(신간) •
-이지관-
「要經序說」(개정판) •
-이지관-
(우편주문 가능)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우당기념관 2층)
기획연구실 765-9602 학술출판부 765-9603
사전편찬부 745-1663 FAX 765-5673

院長 李智冠

독 자 마 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지적사항·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HBS3470

저녁예불 들으며 퇴근 교통체증 짜증 사라져

달리는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대부분의 운전사들이 교통방송을 틀어놓는다.

아마도 불교방송을 듣는 운전기사를 만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그것도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퇴근시간 저녁예불을 틀고 있는 운전기사를 만나는 일은 더더욱 귀한 인연일게다.

얼마전의 일이었다. 겨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계절탓에 금새 어둑해져가는 거리에서 시내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위해 버스를 탔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스님들의 힘찬 예불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온 버스안으로 울려퍼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합장을 한 나는 마음속으로 예불을 따라했다. 그러다 문득 핸들을 붙잡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뒷모습에 눈길이 멈췄다.

다른 운전기사들처럼 종일 운전으로 짜증도 나고 피곤도 할텐데, 그 운전기사는 핸들을 잡은 채 작은 읊조림이었지만 분명히 예불문을 따라 외우고 있었다.

불자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나도 집안일 하고, 아이들 뒤치닥거리 하다보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한번 반야심경 외기도 쉽지 않은데, 그 운전기사는 달리는 차안에서 여유자적하게 불교방송의 라디오예불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버스는 법당이자, 일터이며, 수행도량이었던 것이다.

어느덧 저녁예불이 끝나고, 집앞 정류장에 내릴때까지 나는 내내 묘한 감동으로 그 운전사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활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길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이름도 모르는 그 버스 운전사로부터 새삼 배웠다.

자기의 생활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불법수행을 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가장 참다운 불자의 삶이라는 것을….

손미숙〈서울 금천구 시흥동〉

불우이웃에 김장봉사 온정나누기 피부체험

연말을 맞아 사회곳곳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위한 각종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주위에는 가족이 없는 무의탁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장애인들과 같은 도와야 할 이웃이 많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얼마전에 나는 우리집 근처의 복지관에서 사흘간 김장을 도왔다.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는다는 복지관의 안내문을 보고 나를 포함해 20대에서 60대까지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두 팔 걷어부치고 김장을 했다.

김장하는 내내 그렇게 기쁘고 보람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버무린 김치로 찌게도 끓여먹고, 부침개도 해 먹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모두 천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마련했다. 후원금을 통한 몇천원, 몇만원의 보시도 물론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김장봉사나 반찬봉사같은 우리의 이웃을 직접 만나며 따뜻한 인간애를 서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나처럼 큰 감동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영숙〈서울 성북구 길음 1동〉

부처님법 전하는 신문 사찰매매 광고는 자제

현대불교신문이 연중 캠페인으로 실시한 신행캠페인은 지난 1년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유익한 코너이다. 이러한 코너를 내년에도 계속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나는 현대불교신문 외에도 몇몇 교계 주간지를 구독하고 있다. 그 신문들과 비교해 볼 때 현대불교신문이 타 교계신문보다 두각을 나타낸 점의 하나로 참신한 광고를 꼽을 수 있겠다. 일반기업광고를 비롯해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획캠페인 광고 등과 참신한 디자인은 불교계 신문 광고의 질적, 양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들어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찰매매광고가 현대불교신문 광고란에 실리고 있어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열악한 교계의 현실에서 광고를 수주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고, 회사 운영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찰은 부처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우리가 수행해나가는 도량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불교계신문에서 그러한 사찰매매광고를 실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준구〈서울 송파구 잠실동〉

두 전직대통령의 탐진치 업보

우리사회는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며 혼란과 충격에 싸여 있다. 가뜩이나 쌀쌀해지는 겨울날씨에 더욱 움츠려 드는 마음속에 문득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백만장자 한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른 새벽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끝에서 제일먼저 달려오는 사람에게 달려온 만큼의 땅을 전부 주겠노라'고 했다. 수많은 사람가운데 제일먼저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백만장자 앞에까지 오자 그만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고 백만장자는 죽은 자리에 비석을 세워 주었다. 그리고 나서 '죽고나면 땅 한평밖에 차지하지 못할 것을 무엇때문에 그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지나친 욕심을 내었는가' 라고 했다.

우리는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긴 삶도 아닌데 무엇을 그렇게 혼자만 잘 살려고 재물을 모으고 소중한 이웃까지 망치게 하면서 몸부림치는지…. 그것은 모두가 탐진치의 업보일 뿐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치욕이 우리 국민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 그리고 썩은 제도의 개혁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일 이 사건들이 법적 청산으로 위장된 또 하나의 정치적 청산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또한 누구로부터 한푼의 돈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과 도덕성을 위해서도 삼당 합당과 대선자금의 내역을 국민앞에 떳떳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단절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가올 총선과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정략적인 조치가 아닌 구국의 결단이라고 국민들은 믿을 것이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단죄를 마감하며 새 역사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성 법〈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이런후 건강칼럼 <44>

스트레스 적응법

몸과 마음에 이익되게 활용해야… '의지'가 관건

스트레스란 말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반용어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그러나 스트레스란 단어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는 '해롭다'는 선입견이다.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우리 신체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해로운 것으로 우리 머리속에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스트레스란 것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하루 이틀은 참 행복하다고 느낄런지 모르지만 금방 권태로워져 사는 맛을 잃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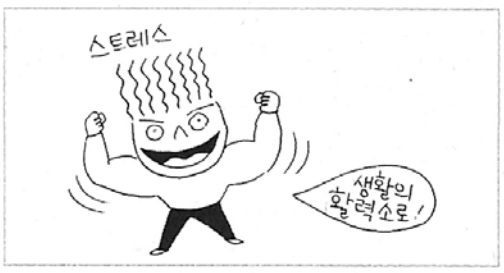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몸과 정신을 조이는 주범이긴 하지만 그 주범을 우리 몸과 정신에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스트레스의 활용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 응능력이 많아지는 것이다. 현실적응능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건강의 정도가 높다는 말로도 이해된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는 말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그 억울함을 동기삼아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스트레스 상황을 이긴다면 그는 이미 다른 결과를 성취한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억울한 형편을 반추하고 또 반추하면서 '그래 나는 못난이야'하고 자신을 자학한다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는 커녕 스트레스의 제물이 되고 말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들의 에너지를 죽이기도 한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양날을 가진 칼에 비유되어질 것이다.



문제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자신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의지는 자신들의 선택이다. 어떤 칼날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자유이다. 이런 선택과 자유는 실현하는 방법이 제가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이기고자 하는 동기화에 스트레스가 기여하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

스트레스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보자. 스트레스의 활용은 본래의 내 힘을 두배로 배가시켜 주는 마력도 갖고 있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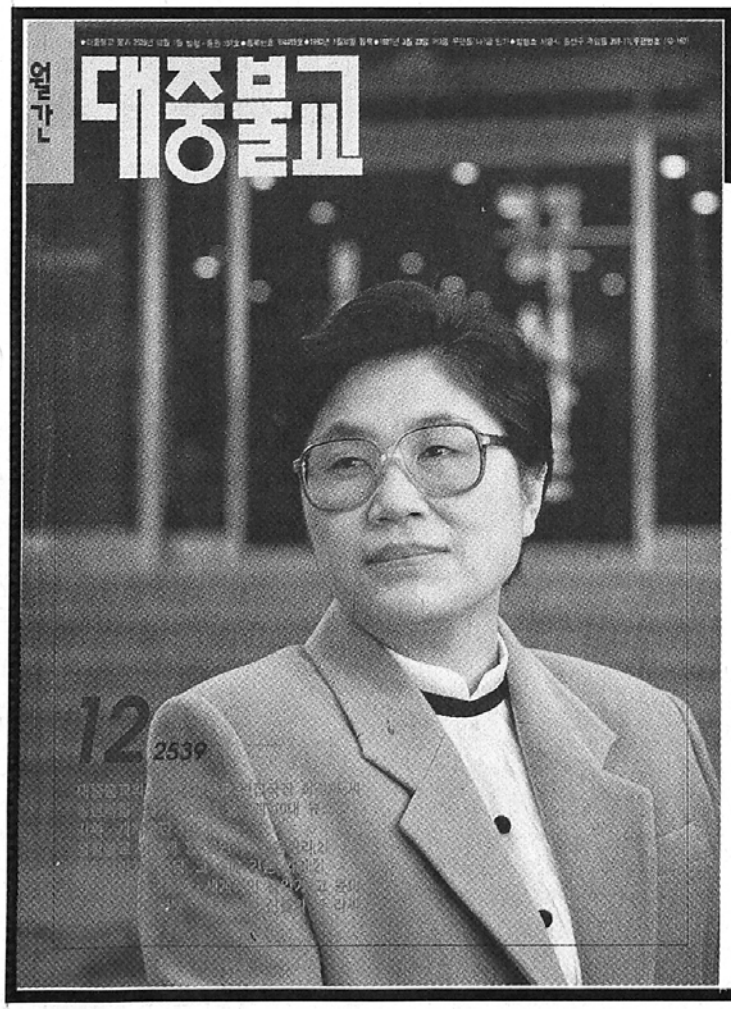
* 사랑의 장 *
근심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이 향 원



정기구독신청은 (02) 773-5731, 754-1614

월간 대중불교



대중 불교

12월호

부처님 말씀 •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 5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 현대불교 편집국장 최정희 씨 / 김희균 · 14
쇠북소리 • 다통령과 무소유 / 김종철 · 10
귀담아 듣고 새겨볼이야기 • 전재성 교수의 제안에 대하여 / 이평래 · 12
젊은 불자 발언대 • 불기 2,600년 사업 구상하자 / 이병두 · 70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 비자금 뒤에 올 환경피해 / 성낙진 · 73

● 송년특집
불기 2539년 불교계 10대 뉴스 / 편집부 · 37
방송 · 국지 · 복지 · 불사 · 교육 · 단체 · 운동 · 문화 · 사건 · 출판

● 기획 / 개혁종단 1년
여전히 나부끼는 개혁의 깃발 / 유지호 · 62
개혁종단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 유승무 · 65

불교교리산책 • 선업과 불선업 / 정승석 · 19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음관리 / 용타 · 22
수행으로 가는 길 • 윤회의 바른 이해 / 이제열 · 26
신행상담 •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합니까 / 상덕 · 61
선화일편 • 내 딸이 아주 재빠르구나 / 설산 · 30
법당 이야기 • 법당, 그 속에 깃든 의미 / 김현준 · 74
에세이 보살불교 • 아픈이들의 법약, 약왕보살 / 일지 · 32

칼라화보
얼과 문화 / 김효형 · 김성철 · 53
양양 진전사터와 선림원터 / 김희균 · 김성철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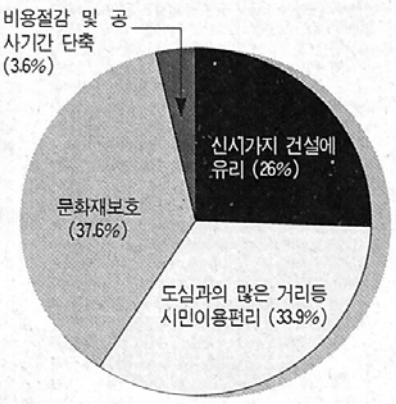
포교의 현장 •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이춘희 · 80
수행길의 이런 도반 • 허공을 닮은 허공 스님 / 효림 · 88
포교당 일기 • 무녀가 된 '귀여운 여인' / 원욱 · 91
한국 밖의 한국불교
세계적인 음악가 고 윤이상 씨 / 장용철 · 48
만나고 싶었습니다 • 화엄 40년 회고전 연 김보현 회백 / 이윤수 · 84
봉주우르, 길상입니다 • 현관문 자물쇠 보수기 / 지묵 · 94
환생의 나라, 티벳 • 피에 젖는 신들의 땅 라싸 / 김선정 · 96
일본을 개척한 위대한 한국인 • 한국불교 재건에 나선 '소아마자' / 홍윤기 · 100
말씀과 함께 • 무상은 기쁨과 희망 / 홍미경 · 104
독자기고 • 참선수행과 호흡수련에 관하여 / 김대진 · 106
폐사지를 찾아서 • 원주 흥법사터 / 김상영 · 최태선 · 110
불교와 민속 • 판소리 '심청가'에 나타난 윤회사상 / 김종대 · 116
건강 • 중년 남성과 심근경색 / 해월 · 118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 안희경 / 이숙자 · 119
만화/불가일화 • 이적의 사리와 건초사 / 윤승운 · 122

● 불교의 이해와 실천 1
이중표 교수의 '불교방송 교리강좌' 단행본으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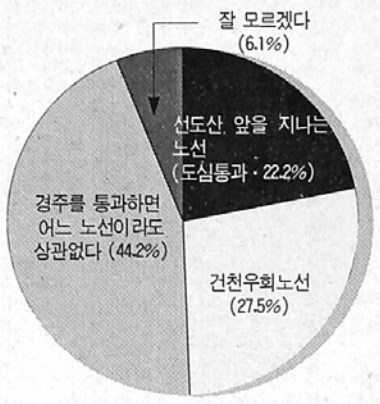
발행처 도서출판 대원정사
전화번호 (02) 752-7047, 754-1614

경주시민도 문화재 보호 '가장 중시'

경주발전정책연 400명 전화여론 조사



◇고속철도노선 및 역사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노선

고속철도 경주통과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우회노선에 대한 지지가 도심통과 노선에 대한 것보다 큰것으로 드러났다.

경주발전정책연구소(소장 김정열)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경주시민 400명(남:229명, 여:171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찬성이 90% 반대가 7.5% 잘모르겠다가 2.5%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다수가 경주통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통과를 지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노선을 물은 결과 경주를 통과하면 어느 노선이라도 상관없다(44.2%) 건천우회노선(27.5%) 선도산앞을 지나는 노선(22.2%)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그동안 경주시 당국이나 상공회의소등이 경주시민 절대다수가 선도산앞을 지나는 노선(도심통과노선)을 지지한다고 중앙정부, 언론,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노선 및 역사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을 묻는 설문에서는 문화재 보호가 37.5%를, 도심과의 짧은 거리등 시민이용편의가 33.9%를, 신시가지 건설에 유리가 25%를, 비용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이 3.6%로 각각 밝혀져 문화재 보전때문에 건축물 고도제한, 발굴비용부담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재에 대한 애착과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문화재보호' 응답자의 47.2%나 차지해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편리한 교통시설의 이용이 32.8%,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14.7%, 문화재 보존에 동참해온 시민들의 숙원이 5.3%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93명(23.3%) 30대가 144명(36.0%) 40대가 80명(20.0%) 50대가 45명(11.3%) 60대가 21명(5.2%) 70대가 17명(4.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정열 소장은 "정부는 경주시민들이 노선결정의 고려사항으로 문화재 보호와 시민이용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각종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는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차제에 모든 경주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고속철도관련 제반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도심통과보다 건천우회노선 지지 많아

'높은 문화재 보호의식' 뜻밖 성과

인터뷰 경주발전정책 硏 김 정 열 소장



"의외의 결과에 저도 놀랐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경주시민들의 문화재 보전의식은 높았습니다."

자신도 문화재 보호법의 희생자라고 밝힌 김정열 소장(경주발전정책연구소)은 여론조사결과 건천우회노선 지지가 도심통과노선 지지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해 의외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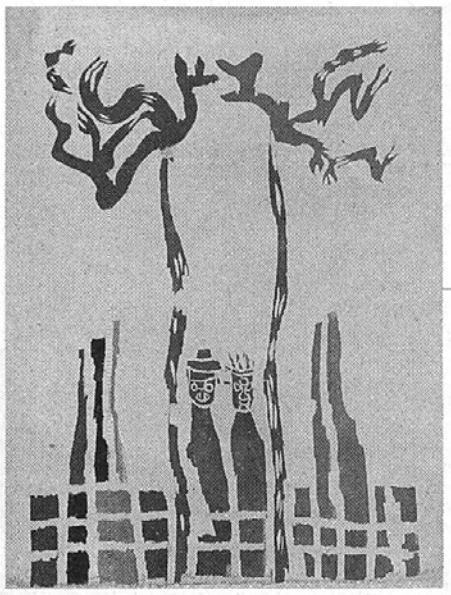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적안배를 고려했다는 김 소장은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천읍, 외동읍등 시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인구비례에 따라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건천에서 화천을 지나 내남을 통과하는 수정된 건천우회노선(제3의 노선, 경주경실련案)을 설문에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서는 여론조사당시 제3안이 발표된지가 오래되지 않아 시민들간에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증지를 모은다음 한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철도 노선문제로 야기된 관계 학계 상공계 시민단체들간의 감정대립 양상을 불식시키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본조사를 기획했다는 김소장은 정부나 시 당국이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 대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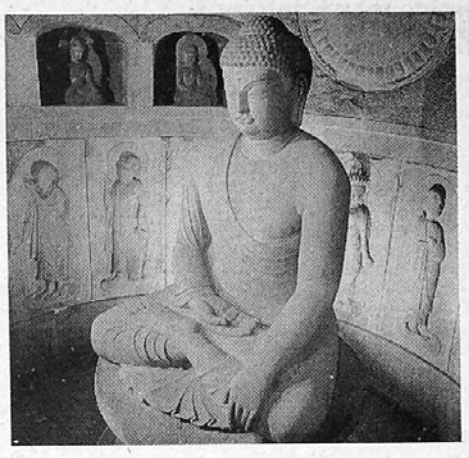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 지상전



저 높이 나는
새의 슬픔을
그대는 아시나요

박찬갑 作

'불꽃' '혼의 소리' '하늘새' 등을 주제로한 조각작품전을 77년이후 줄곧 열어 왔다. 90년대 들어 '저 높이 나는…' 시리즈의 이벤트도 열어온 박찬갑씨는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민족환경운동 불교예술인연합회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 본존불.

석굴암 세계유산 등록 '경주고속철' 국제 관심사

불교 · 학계, 정부에 보존책 적극건의

불국사(사적, 명승 제1호) · 석굴암(국보 제24호)과 해인사(사적, 명승 제5호) · 팔만대장경판(국보 제32호) 및 판고(국보 제52호) 그리고 종묘(사제 제125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고속철도 경주도심지 통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유네스코산하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이사국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총회에서 이들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세계인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이로써 '문화재 보호냐' '지역경제 우선이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속철도 경주도심지 통과여부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운동본부 이기영 위원장은 "경주의 불교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국가적으로 자랑스런 일이다"며 "만일 고속철도가 경주 도심지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수치스런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주의 불교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주지역 주민과 불교계, 학계는 세미나, 여론조사를 통해 고속철의 경주 도심지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제3노선의 채택을 정부측에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내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제도는 유네스코가 75년부터 협약 가입국의 유산가운데 오늘의 인류가 뚜렷하게 보존할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재하는 제도이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면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기술 ·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고 세계유산 협약국이 매5년마다 그 보전상태를 모니터해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전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문화유산 3백26개를 비롯 자연유산 98개, 복합유산 16개등 모두 1백개국 4백40개가 등록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 진시황릉 명청대궁전 라사포텔라궁등 14건과 일본 5건, 인도 21건, 인도네시아 4건, 필리핀 2건, 태국 4건, 베트남 2건이 등록돼 있다. 이번에 3건의 국내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한편 문화재관리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서라벌문예회관에서 세계문화유산등록 기념강연회를 갖는다.

'팔공포럼' 서도 제3노선 채택

문화재 보호 · 신도시 건설 최적안

대구大 전경구교수

고속철도 경주노선 문제와 관련 건천에서 화천을 지나 내남리를 통과하는 제3의 노선(경주 경실련안)을 지지하는 논문이 한 포럼에서 발표됐다.

지난 2일 대구 아리아나 호텔에서 '고속전철이 대구 경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7차 팔공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경구(대구대 지역사회 개발학과)교수는 '경부고속철도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구 경북의 대응전략'이라는 논문에서 경주노선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문화재 파괴정도와 경주역사의 위치를 전제했다.

또한 경주역사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으로서 문화재 보존, 고도경주 보존, 관광 · 여가산업의 촉진, 환 동해권의 서비스 거점기능 확보, 환 동해권의 접근성 용이 등을 들었다.

이같은 원칙하에 전교수는 경주역사는 건천인근에 경주포항 광역권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할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곳에 역사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 및 신도시 건설의 최적안으로서 건천읍에 역사를 두는 제3의 노선을 지지했다.

나아가 전교수는 낙후지역인 경북 서북부의 개발을 위해 대전과 대구의 가운데인 김천을 새로운 정지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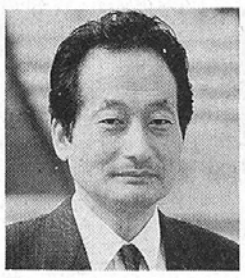
한편 토론에 나선 제갈돈교수(안동대 행정학과)는 고속철도가 이미 잘 살고있는 지역만 통과한다고 전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배려를 주장했고 박광국교수(영남대 행정학과)는 지역간 형평성문제외에 생태계파괴와 스트로우(Straw)효과에 의한 부정적효과를 거론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박교수는 사회발전단계가 경제에서 시작해서 정치, 복지, 문화로 나아간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문화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2명의 발제자와 12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이날 포럼은 제3노선을 포럼의 공식견해로 채택했다.

팔공포럼은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재)지역발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학술모임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소장파 학자및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황수영 박사



◇강우방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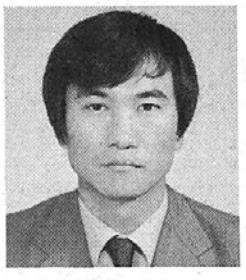
◇홍광표 교수



◇장충식 교수



◇김복순 교수



◇신종원 교수

'95 신라문화제 학술회의 요지

경주狼山 절터 · 왕릉 즐비한 불교성지

"기존 철도 · 도로 이전 역사교육장으로 보존 활용해야"

경주시와 신라문화선양회가 주최하고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가 주관한 '신라와 낭산(狼山)' 주제의 95 신라문화제 학술회의가 지난 8~9일 이틀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신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불국사 석굴암의 세계문화유산등록 축하를 겸해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경주 낭산이 그 중요성에 비해 남산(南山)만큼 조명을 받지 못하고 신라사 연구에서도 소외되어온 현실을 감안, 낭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역사고도인 경주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집자 주〉

낭산은 신라 왕경(王京)의 중심에 위치했던 불교 성지로서 수많은 사찰(터) 왕릉 등이 현존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신라 상고기 낭산에 있었던 신유림(神游林)의 존재로 부터 불교가 전래되는 중고기의 선덕왕릉과 불교사상, 그리고 나 · 당전쟁을 겪은 사천왕사와 망덕사, 문무왕과 능지탑(陵旨塔), 의상의 출가 및 중대(中代)왕실의 원찰(願刹)이었던 황복사 등 각시대별로 낭산의 성격과 기능 등이 논의됐다. 또 낭산의 보존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8일 학술회의에서는 동국대 장충식교수와 강원대 신종원교수, 황수영 전 동국대총장, 강우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신라 낭산 유적 · 유물의 제문제'와 '낭산과 선덕여왕', '신라 낭산의 능지탑에 대하여', '능지탑 사방불 소조상의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신종원교수는 "낭산 중심의 불교적 우주관인 '낭산 도리천(刀利天:세계의 축으로 생각되는 수미산 위에 있는 天, 일명 33天)설'을 완성하고 이에 입각해 사천왕사를 조성한 스님이 명랑(明朗)스님"이라면서 "신라인들은 인도의 우주관을 그대로 신라에 설정, 경주 낭산을 수미산으로 비정했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그러나 '신라 불국토설'을 확립하고 이 신념에 입각해 황룡사9층탑 건립을 건의하는등 실제 정책을 시행한 고승은 자장율사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장충식교수는 낭산에 위치한 불교 유적 · 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천왕사지를 중심으로 한 조형사(造形史)적 분석을 통해 "호국사찰인 사천왕사가 이산에 등장하는 시기(679)를 기점으로 낭산의 불교유적은 점차 전산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신라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틀째인 9일에는 한국교원대 김상현교수가 '사천왕사의 창건과 의의'를, 동국대 김복순교수가 '의상과 황복사'를, 동국대 홍광표교수가 '경주 낭산의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김상현교수는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명랑스님은 낭산에 사천왕사를 건립하고 여기서 밀교의식인 문두루법(文豆婁法)으로 기도하는등 당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신라 중대에는 황룡사보다도 오히려 사천왕사가 국가불교의 중심역할을 떠맡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광표교수는 낭산의 역사환경을 경주 전체와의 상관관계에서 분석하고 구체적인 보존방안을 제시했다. 홍교수는 "낭산은 신라 3산5악사상을 전개하는 중심지로서 중시되었고 심지어는 '신유림'이라고 까지 하여 왕실은 물론 전신라인에게 널리 숭앙되었던 성산이었다"며 "왕경내에 위치한 주요 유적들이 모두 이 산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정해져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교수는 또 낭산보존을 위해 사천왕사지의 금당지와 강당지를 가로질러 개설된 철로와 사천왕사지 전면의 7번국도의 노선변경을 주장했다. 이밖에 △낭산전역과 주변지역을 보존특구로 지정할 것과 △낭산 전역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보존과 함께 역사교육 공간으로 개발 △낭산전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입함은 물론 △복원과 관리를 위한 당국의 재정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⑤

"고속철 경주통과 민족얼과 혼 버리는 일"

서명자 명단

60,272명 서명 (1995년 12월 5일 현재)

대전법동종합사회복지관
전상우 손종례 오영근 송옥희 최종성 황성규

한일여성친선협회
강영희 김경자 박정자 노숙자 변동두 김경희

경기대 대학원(박석희)
이지영 김 령 박소정 여은주 복은영 이순정

최철환
박종린 백명오 심경숙 임선정 최철환

인하대
황정성 노보인 진창환 이원재 하찬주

이석대
이석대 주점한 이진호 주재명 이갑용

참길불교청년회
신선진 서경환 임경남 오정숙

동국대불교학생회
지성하 김범정 백승선 염경오

대전광해사연각청년회
김미정 권오남 이상우

동국대불교유적답사회
박정운 박경미 허재혁

성남불교신도연합회
김명자 이두남 강수용

경성대
이재우 이상현 박수호 심재용 정윤희

백지현
윤순장 백지현 이찬희 김학균 유영호

김성철
김성철 김대성 윤명수 조영애 김재안

임종덕
임종덕 송대열 백남헌 이건영 전재환

우석대
박민영 장은하 박은정 문장희 이선미

명성여고
김양훈 김명희 조유형 이향주 한영숙

첨련사
강원영 한경남 김주선 최천문 한중수

공추물
홍영지 정다와 김선아 박지은 정윤경

우리는선우
입택희 임수현 곽영미 임정신

서명자 명단 16~17면에 계속

조희진 이민선 이상은 김왕기 최건영 이명보 박준현 이계웅 박선미 이영준 진병관 홍혜련 이기혁 최현선 이재경 김유현 김은주 김우석 이영훈 이재현 안세원 문경아 김종민 홍은희 심은희 김재학 김한신 김혜순 신철하 이효근 오승환 염일중 김병창 신우철 김민자 이지현 한현주 박숙진 전준철 박경애 이상훈 정순필 임종수 조용국 김민구 최영두 이대형 권수일 배정욱 한정혜 김인식 신명숙 차종태 박문영 김영주 김성원 윤민영 김정희 김혜선 신명자 조낙영 강정은 백은숙 김미경 조미리 이월숙 이유경 이애리 배정훈 김광무 이찬우 신현우 김상문 김원대 윤상용 이종관 최은영 지미정 최은경 고태화 김동운 진소라 유혜종 박성자 김순예 이영재 최용력 임제훈 김진범 이공우 박길자 이상태 이상민 이상근 변종오 박명순 변인섭 변정운 이정미 장동일 김정자 장지선 장지용 황세원 이민우 창명옥 김연주 백영매 김태훈 문승우 김영우 김선영 배명호 박지현 김귀태 김진석 이종태 노홍석 최수진 염대중 김정규 이창금 김태훈 김수미 조진이 권미옥 이갑훈 강경민 김도형 이경희 김윤모 주희숙 이창노 장병진 신동은 전성기 홍택선 정구영 김태완 김한수 임형우 황상준 전종혁 구본삼 박경인 김석범 이병일 송유섭 신은경 신정림 서연진 이주희 은 혁 박철봉 우군하 이광윤 이 석 이지은 김준미 전상호 이향미 이지인 이 은 황성기 한상현 전효근 황수현 이선이 김현정 함윤미 하선영 채 원 남궁미선 김지혜 정세영 이지현 김연하 임은희 김지애 송진백 김옥기 이재연 박민아 윤원정 송선용 양희선 박성호 박정은 안영희 홍봉미 이수현 이은주 전 선 김은숙 고숙희 서선자 이호화 김영은 신근혜 윤재연 박은영 김재학 김한신 김혜순 신철하 이효근 오승환 염일중 김병창 신우철 김민자 이지현 한현주 박숙진 전준철 박경애 이상훈 정순필 김조현 김혜선 이병일 임종수 조용국 김민구 최영두 이대형 권수일 배정욱 한정혜 김인식 신명숙 차종태 박문영 김영주 김성원 윤민영 김정희 김혜선 신명자 조낙영 강정은 백은숙 김미경 조미리 이월숙 이유경 이애리 배정훈 김광무 이찬우 신현우 김상문 김원대 윤상용 이종관 최은영 지미정 최은경 고태화 김동운 진소라 유혜종 박성자 김순예 이영재 최용력 임제훈 김진범 이공우 박길자 이상태 이상민 이상근 변종오 박명순 변인섭 변정운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천년 古都 훼손 반대서명 "전국민 나서자"

임주영 김형숙 조한종 송희주 김은주 김경숙 한난희
이상준 정영순 김정희 산도종 오미경 박효선 유종산
도. 화 알 해 정상철 박형서 정진명 박정혜 엄석림
정영미 정상철 조준하 안병길 정원교 안은수 도민재
서순교 위경숙 전미숙 이해영 정화재 안재순 양재열
정상봉 김병혜 임희부 송하경 문석유 차한만 송태환
조정환 최영갑 심재걸 김용재 서선희 이윤희 이하경
김병규 최영수 유현정 이동욱 유병헌 이형관 이종서
정병재 이석범 여윤경 백정원 하현선 장지현 김봉경
정유경 오선영 이정민 김현주 윤현선 치경수 최영욱
이재홍 조호연 지원근 박지연 편혜경 장지현 이세희
오지혜 이영숙 이혜성 김춘혜 정미숙 이지연 김은정
김동범 김미영 정재연 조영희 권지연 정진욱 지만주
이지연 김정수 이수영 윤주희 김주연 손성준 정규희
김성희 조관식 전성현 하경림 이현주 이종선 김민아
최선영 김지영 권정은 고수연 김주희 고은영 이혜열
홍도란 김우선 곽제민 김영은 신동우 양완직 권두혁
윤희상 이수지 박은영 최영은 이길연 권나연 김소희
정소희 장 미 손유경 이은정 조주림 허나래 김혜연
김은영 김빛나 이지연 송지은 김은정 박서연 인가영
김민정 김슬기 양원선 이유경 서지은 나은선 박종경
이희정 정지숙 박현신 우스미 복미란 이일지 엄혜진
제갈원 이상화 정희진 박수정 조상준 노루미 배영진
김태정 임지은 손성은 송경은 상수정 정기진 강유선
강지현 서인원 김혜나 김혜린 홍현천 박은경 김선이
여준주 조성경 이성수 박현정 이윤경 양지선 이진하
박신영 김하연 전현희 이화진 김양숙 김지영 김민영
이재경 전민경 김소아 신보경 이은희 정주영 조주연
정선경 박지경 노영정 유진호 김미연 안신민 김도윤
안주모 고선정 유명오 고영곤 최재필 정용화 박주희
박재열 이여기 홍재의 최영래 한승진 박재은 공정원
최안나 윤신영 서종린 이민경 김기태 변무철 나소연
배소미 이은아 김나경 송준상 박승원 채희상 홍경표
장석진 채희만 이원재 이지현 이혜진 심필섭 박인열
장은섭 한상민 홍승표 김용구 황현정 김병년 최진아
남승도 조경호 최복나 남승석 신현석 김종헌 김기남
박창섭 정서은 김창현 박지상 김민경 조성종 최서영
류연복 주효순 허지희 도 훈 구자욱 김광훈 김정현
김종선 윤석원 안중철 영문식 원정재 구영찬 강병석
강봉주 최재원 김종영 서정미 이지영 송교남 이동선
김동기 맹주곡 문희경 배선주 김미석 이성진 이용덕
류동림 황진우 신경훈 안민호 김형호 이지은 박미진
전수미 조성환 이미림 김기정 한지연 이은정 윤석진
곽희철 박홍권 김동환 조성민 김귀영 서 구 오승진
이상기 강재화 나상균 정인목 황숙혜 박형철 이양주
오승철 박규호 김경은 김효순 조준호 박연중 정연호 최동필
정 은 연남희 김경순 김준호 김종배 김은상 박지영 이은상
이재형 진승민 남창식 민경옥 성민재 최건성 이숙정
박선규 강성수 우정민 임성별 이은주 김혜성 장수연
백진석 김윤경 임지영 박수현 박혜성 박소라 구근영
김배식 이경희 구재희 신영숙 김재형 오병희 조혜원
이동현 이화연 이영은 조용태 이호영 허 준 강호진
하 현 권형석 임성지 조승현 최형심 정 현 이호숙
김영석 류일환 김기홍 이수영 이금옥 이규화 소병남
홍선희 소미란 소병기 박기법 신광철 오태형 권정후
정경성 안하진 김세라 이우도 이상근 이민우 양수비
오기환 김옥자 정윤경 김상진 김대훈 박정환 박지영
은혜원 문정석 황길하 최옥진 이주헌 김경선 이범흥
민경애 성완선 진석수 최형권 박영훈 신숙자 강병실
이상은 이기영 최종은 김태균 홍진경 최윤정 김혜녀
박진영 강태업 이기백 이호선 조상현 김형석 이관희
주대중 김옥주 황성도 박한나 윤철기 하완미 김연수
채병섭 이우경 우예승 홍호승 장미림 김혜희 김옥현
김상규 백미순 신은식 강순애 이창기 강명진 김정향
김정훈 신옥영 김옥임 백연주 장정아 한정숙 이선영
류숙희 박주형 류 정 이승미 곽윤정 강윤정 김장호
김주원 김혜연 송수연 한지희 김이옥 김광수 강영수
민정희 신창원 김용세 이심기 박정선 황대중 이민호
김남열 이창수 임선이 장병우 박 홍 윤국일 김재철
신동곤 이택규 백승옥 노동환 이로철 김형준 권오덕
김진식 이계훈 정일석 김정호 김선규 김민규 김창현
정보운 이봉선 차성식 차진숙 윤석진 신선아 박홍재
이용균 김성훈 최지영 김재희 황승환 남궁제원 박영조
이승섭 송정섭 강호림 이광재 박지영 이정민 최성유
이성희 류시현 이진영 김수정 박소현 윤여정 박소정
박현국 김용식 정승희 배인주 윤여준 이수정 백승철
김희성 정성호 강호림 조창희 주성욱 정병주 정대성
손재환 송승표 오현주 배국환 김기홍 류정현 윤주호
우용표 김준석 김은영 최성환 최선일 김현석 김정기
정은식 은정현 정영선 이숙경 차선화 지희영 김진호
유지연 장규언 김용원 신현준 김혜주 호정원 이은경
강승룡 권형수 김자훈 김정권 민현규 정태오 문성태
김진홍 김대수 채수원 박주열 이재연 강병권 정우철
최영희 권기한 조부기 이후준 유영희 이종철 복영두
김귀순 이경호 오지은 정구훈 홍영식 김재민 임진석
김형순 조옥연 정경화 구은영 윤주환 이병곤 오호택
김주희 임재원 박현석 김경희 이미자 정은화 김선영
김희연 장호경 한상애 이미자 정은화 오윤학 강태영
이현정 윤호전 이급석 박상웅 박선영 이선영 김선미
이지선 권수정 김용태 이성희 이지수 노수진 유현희
이병훈 박인경 이성환 이상국 이문남 김대현 신민경

서강대

안상연 김영호 문선영 명은지 김정환
홍성화 이수지 이수원 이종훈 최형은
김영준 조영민 장성은 최민석 전우현 이병호 강희환
백경희 김갑주 이상정 유현정 김일도 문외솔 조철현
장인수 이정환 이석호 백종성 곽태환 김희성 이재마
진정현 이영아 이명훈 최경숙 이준예 이수희 김지윤
최정아 최영수 박병준 강민우 이나신 김도희 이현민
조혜영 이지현 최문경 이강식 김현우 백수길 은석호
길형걸 이정아 노세현 황지혜 서재식 유병철 박형곤
홍은수 이두걸 윤정호 김진우 정예선 동이향 류재경
박미선 김현철 이종환 오한진 신지은 성원현 전은정
서동호 김형진 성승욱 윤성주 김정민 홍희정 주진은
이혜진 유승길 김승민 이기철 김희연 안신민 김도윤
안주모 고선정 유명오 고영곤 최재필 정용화 박주희
박재열 이여기 홍재의 최영래 한승진 박재은 공정원
최안나 윤신영 서종린 이민경 김기태 변무철 나소연
배소미 이은아 김나경 송준상 박승원 채희상 홍경표
장석진 채희만 이원재 이지현 이혜진 심필섭 박인열
장은섭 한상민 홍승표 김용구 황현정 김병년 최진아
남승도 조경호 최복나 남승석 신현석 김종헌 김기남
박창섭 정서은 김창현 박지상 김민경 조성종 최서영
류연복 주효순 허지희 도 훈 구자욱 김광훈 김정현
김종선 윤석원 안중철 영문식 원정재 구영찬 강병석
강봉주 최재원 김종영 서정미 이지영 송교남 이동선
김동기 맹주곡 문희경 배선주 김미석 이성진 이용덕
류동림 황진우 신경훈 안민호 김형호 이지은 박미진
전수미 조성환 이미림 김기정 한지연 이은정 윤석진
곽희철 박홍권 김동환 조성민 김귀영 서 구 오승진
이상기 강재화 나상균 정인목 황숙혜 박형철 이양주
오승철 박규호 김경은 김효순 조준호 박연중 정연호 최동필
정 은 연남희 김경순 김준호 김종배 김은상 박지영 이은상
이재형 진승민 남창식 민경옥 성민재 최건성 이숙정
박선규 강성수 우정민 임성별 이은주 김혜성 장수연
백진석 김윤경 임지영 박수현 박혜성 박소라 구근영
김배식 이경희 구재희 신영숙 김재형 오병희 조혜원
이동현 이화연 이영은 조용태 이호영 허 준 강호진
하 현 권형석 임성지 조승현 최형심 정 현 이호숙
김영석 류일환 김기홍 이수영 이금옥 이규화 소병남
홍선희 소미란 소병기 박기법 신광철 오태형 권정후
정경성 안하진 김세라 이우도 이상근 이민우 양수비
오기환 김옥자 정윤경 김상진 김대훈 박정환 박지영
은혜원 문정석 황길하 최옥진 이주헌 김경선 이범흥
민경애 성완선 진석수 최형권 박영훈 신숙자 강병실
이상은 이기영 최종은 김태균 홍진경 최윤정 김혜녀
박진영 강태업 이기백 이호선 조상현 김형석 이관희
주대중 김옥주 황성도 박한나 윤철기 하완미 김연수
채병섭 이우경 우예승 홍호승 장미림 김혜희 김옥현
김상규 백미순 신은식 강순애 이창기 강명진 김정향
김정훈 신옥영 김옥임 백연주 장정아 한정숙 이선영
류숙희 박주형 류 정 이승미 곽윤정 강윤정 김장호
김주원 김혜연 송수연 한지희 김이옥 김광수 강영수
민정희 신창원 김용세 이심기 박정선 황대중 이민호
김남열 이창수 임선이 장병우 박 홍 윤국일 김재철
신동곤 이택규 백승옥 노동환 이로철 김형준 권오덕
김진식 이계훈 정일석 김정호 김선규 김민규 김창현
정보운 이봉선 차성식 차진숙 윤석진 신선아 박홍재
이용균 김성훈 최지영 김재희 황승환 남궁제원 박영조
이승섭 송정섭 강호림 조창희 주성욱 정병주 정대성
손재환 송승표 오현주 배국환 김기홍 류정현 윤주호
우용표 김준석 김은영 최성환 최선일 김현석 김정기
정은식 은정현 정영선 이숙경 차선화 지희영 김진호
유지연 장규언 김용원 신현준 김혜주 호정원 이은경
강승룡 권형수 김자훈 김정권 민현규 정태오 문성태
김진홍 김대수 채수원 박주열 이재연 강병권 정우철
최영희 권기한 조부기 이후준 유영희 이종철 복영두
김귀순 이경호 오지은 정구훈 홍영식 김재민 임진석
김형순 조옥연 정경화 구은영 윤주환 이병곤 오호택
김주희 임재원 박현석 김경희 이미자 정은화 김선영
김희연 장호경 한상애 이미자 정은화 오윤학 강태영
이현정 윤호전 이급석 박상웅 박선영 이선영 김선미
이지선 권수정 김용태 이성희 이지수 노수진 유현희
이병훈 박인경 이성환 이상국 이문남 김대현 신민경

경상대학교 불교학생회

한혜인 이선명 한정만
유동원 최윤경 오윤정
최영지 강낙희 송인호 조진식 서원섭 감용재 이성용
심현보 신희선 안남곤 김진성 박승철 우태희 전병재
박동근 최홍순 신장식 이진성 최종웅 장홍조 이신일
정용덕 이광열 송현수 전대식 김종규 이수환 심민택
이병희 하현순 권 철 김대경 한상우 임준택 이상연
허 영 지정진 임우택 홍정성 문은기 한문혁 양희진
김연희 박성진 김 호 김학종 이승훈 김홍준 황재철

이옥선

장명희 이지영 김영호 김재희 이영일
홍희숙 최미자 이옥순 박대현 김성야 김미영 류지은
양혜원 황진화 김윤향 기태희 이상길 김순옥 정두하
권방현 이양근 이병철 최낙원 남점래 이영주 설화진
임덕순 이창주 이재원 황 민 박준영 설동만 이희용
반종표 김택수 박형순 이명수 정현철 문성태 권명현
김진홍 김대수 채수원 박주열 이재연 강병권 정우철
최영희 권기한 조부기 이후준 유영희 이종철 복영두
김귀순 이경호 오지은 정구훈 홍영식 김재민 임진석
김형순 조옥연 정경화 구은영 윤주환 이병곤 오호택
김주희 임재원 박현석 김경희 이미자 정은화 김선영
김희연 장호경 한상애 이미자 정은화 오윤학 강태영
이현정 윤호전 이급석 박상웅 박선영 이선영 김선미
이지선 권수정 김용태 이성희 이지수 노수진 유현희
이병훈 박인경 이성환 이상국 이문남 김대현 신민경

경상대박물관

이상길 황경선 임홍채 조민영
은호림 홍성우 최혜원 김봉기
조현정 윤정희 이현석 김상민 유장근 김영화 김승진
이숙희 최준건 김희창 오세환 강인철

연세대 사학과

황정희 김종인 김태현 최진철
남주현 김경복 김정호 임태인
기재찬 김기수 김성은 조석영 백승우 정상운 천용희
박경안 김대석 공경석 서창훈 엄창섭 오성순 이희정
박소영 김경미 이상희 이해종 김은혜 송주연 김민아
김봉미 김경선 허문경 정재인 고권재 김경남 박완호
김경희 손창순 이동현 박진영 박성근 나주선 송재환
유동수 송은숙 유영준 김명덕 이민재 윤정화 한진희
박희숙 장미영 박윤재 윤병희 정혜정 김은경 문 용
권애정 이화경 정금미 박선희 유현정 김은희 송은하
문정선 홍수미 이진수 장광남 허태선 강동영 김다영
김윤희 이수진 권만정 윤영훈 금은주 김관호 최창희
임준철 김현우 박형민 이성민 유경종 홍용근 서강석
정원필 이도희 예성규 유지연 이경민 최정연 양옥연
고연선 송지연 김경연 고영미 최상수 김지희 심미경
이원봉 이숙희 박귀순 박소진 민병주 심의식 김광희
이승춘 조현규 라태영 김은수 박광수 배진만 김범주
김태균 유정희 한경아 이진희 김철수 서대철 김현정
임승규 신재원 오혜경 송영찬 왕정현 박철규 박상범
김희연 장호경 한상애 이미자 정은화 오윤학 강태영
이현정 윤호전 이급석 박상웅 박선영 이선영 김선미
이지선 권수정 김용태 이성희 이지수 노수진 유현희
이병훈 박인경 이성환 이상국 이문남 김대현 신민경

동국대 불교학생회

한혜인 이선명 한정만
유동원 최윤경 오윤정
최영지 강낙희 송인호 조진식 서원섭 감용재 이성용
심현보 신희선 안남곤 김진성 박승철 우태희 전병재
박동근 최홍순 신장식 이진성 최종웅 장홍조 이신일
정용덕 이광열 송현수 전대식 김종규 이수환 심민택
이병희 하현순 권 철 김대경 한상우 임준택 이상연
허 영 지정진 임우택 홍정성 문은기 한문혁 양희진
김연희 박성진 김 호 김학종 이승훈 김홍준 황재철

이옥선

장명희 이지영 김영호 김재희 이영일
홍희숙 최미자 이옥순 박대현 김성야 김미영 류지은
양혜원 황진화 김윤향 기태희 이상길 김순옥 정두하
권방현 이양근 이병철 최낙원 남점래 이영주 설화진
임덕순 이창주 이재원 황 민 박준영 설동만 이희용
반종표 김택수 박형순 이명수 정현철 문성태 권명현
김진홍 김대수 채수원 박주열 이재연 강병권 정우철
최영희 권기한 조부기 이후준 유영희 이종철 복영두
김귀순 이경호 오지은 정구훈 홍영식 김재민 임진석
김형순 조옥연 정경화 구은영 윤주환 이병곤 오호택
김주희 임재원 박현석 김경희 이미자 정은화 김선영
김희연 장호경 한상애 이미자 정은화 오윤학 강태영
이현정 윤호전 이급석 박상웅 박선영 이선영 김선미
이지선 권수정 김용태 이성희 이지수 노수진 유현희
이병훈 박인경 이성환 이상국 이문남 김대현 신민경

혜원정사

이혜민 노경란 김정선 양숙자
박숙자 노경탁 석금숙 이분이 최순자
진경주 김문선 최희련 성영순 박양자 하명남 최정자
전갑선 이경주 서관순 강정자 이정심 최한순 조은희
강숙자 진정애 권오상 박미선 김무숙 박순희 장오희
조임순 서관순 원선이 김정희 우종현 장혜숙 유정자
이점자 김필분 유희숙 전영성 이장호 김용운 조영래
강미경 홍종기 이찬용 노영순 장병화 박상철 이현구
김용학 하혜경 장재돈 이경자 이문남 신대원 신민경
김희숙 김영숙

경남대 박물관

이상길 황경선 임홍채 조민영
은호림 홍성우 최혜원 김봉기
조현정 윤정희 이현석 김상민 유장근 김영화 김승진
이숙희 최준건 김희창 오세환 강인철

연세대 사학과

황정희 김종인 김태현 최진철
남주현 김경복 김정호 임태인
기재찬 김기수 김성은 조석영 백승우 정상운 천용희
박경안 김대석 공경석 서창훈 엄창섭 오성순 이희정
박소영 김경미 이상희 이해종 김은혜 송주연 김민아
김봉미 김경선 허문경 정재인 고권재 김경남 박완호
김경희 손창순 이동현 박진영 박성근 나주선 송재환
유동수 송은숙 유영준 김명덕 이민재 윤정화 한진희
박희숙 장미영 박윤재 윤병희 정혜정 김은경 문 용
권애정 이화경 정금미 박선희 유현정 김은희 송은하
문정선 홍수미 이진수 장광남 허태선 강동영 김다영
김윤희 이수진 권만정 윤영훈 금은주 김관호 최창희
임준철 김현우 박형민 이성민 유경종 홍용근 서강석
정원필 이도희 예성규 유지연 이경민 최정연 양옥연
고연선 송지연 김경연 고영미 최상수 김지희 심미경
이원봉 이숙희 박귀순 박소진 민병주 심의식 김광희
이승춘 조현규 라태영 김은수 박광수 배진만 김범주
김태균 유정희 한경아 이진희 김철수 서대철 김현정
임승규 신재원 오혜경 송영찬 왕정현 박철규 박상범
김희연 장호경 한상애 이미자 정은화 오윤학 강태영
이현정 윤호전 이급석 박상웅 박선영 이선영 김선미
이지선 권수정 김용태 이성희 이지수 노수진 유현희
이병훈 박인경 이성환 이상국 이문남 김대현 신민경

전남대(이중표)

한경주 박은옥 오유리 손재영
김지영 노상덕 김진희 유성인
양행선 이경민 박소영 김범희 류혜진 윤승희 김가경
이세희 박미애 장영운 윤성희 김수빈 박수진 윤혜경
김지영 박선희 양효진 김지영 정 선 최나영 진수진
박수정 주지영 허민정 서경순 김은정 안소연 손정화
정다운 강미희 이다혜 정호연 최재란 나은혜 최미나
송재애 여희연 김순지 이정훈 장윤라 정우리 이수아
심현영 차영은 정영아 이혜영 김희은 정길자 김은선
신소희 김지승 김영신 이설희 김나나 백선아 안명희
최은희 신유진 백명희 장선미 윤가원 이지영 이시영
박명선 나민주 김유화 이지혜 오혜진 채지혜 이 진
안윤미 고선양 이혜옥 김영은 배송이 신진경 맹지영
오현정 이수정 이지희 김효선 정애은 박지영 정슬기
김태연 윤민희 심현영 송상희 문주민 김진미 장아영
박아름 남궁혜 윤애선 황인선 배은정 김선영 이영미
이한숙 김효정 나소영 안기은 김남희 이상미 이대성
표강님 황세란 정혜원 변영아 최연길 강진아 정문주
서혜진 이은화 이호균 조재인 김광남 정경호 정진국
박수현 최윤우 전기출 이유진 임태강 이민영 조진성
오혜미 양기수 서주원 조은숙 소선화 이미진 강용구
이종찬 박상민 김용기 황광석 김지영 이병묵 김정진
이기영 이진선 김철수 서대철 김현정 서은택 이은경
홍영주 박현진 이금희 정재복 장근희 김정아 박상범
백종관 박래환 주영미 안홍영 주재민 최일호 김기철
김정순 정상훈 김은영 신민선 유동훈 한석열 이준희
김 훈 이준기 임홍빈 박재섭 안혜숙 최영주 오진영
김형남 정용균 정관택 신용우 김동우 임주영 박승민

월간 붓은

이 웅 민경수 황의선 오충선 박준호
박금매 윤순향 소현미 박규원 남난희
김영석 최남순 민동숙 김은주 강양순 신승철 윤분자
이희원 이정은 김영희 김선조 김선효 김순옥 임지영
최정희 소선옥 김옥호 이영림 백재준 이현진 김상남
여오숙 최순희 강숙희 임연숙 박향자 양혜경 민경업
민경복 김지애 정우철 장재철 김영애 정두희 김영희
천애화 김현중 김승현 김선국 김용문 김순중 김재경
성명재 한정윤 김은희 김원중 한영남 한혜진 한태윤
김태조 김숙중 김영나 김영지 김홍중 최영옥 차기복
황우옥 차승현 차은화 김광수 이인순 김경자 김경옥
김경채 신연숙 이경희 김광수 이인순 김경자 김경옥
김옥자 이숙순 이경희 김광수 이인순 김경자 김경옥
김옥자 신연숙 이경희 김광수 이인순 김경자 김경옥
김옥자 이숙순 이경희 김광수 이인순 김경자 김경옥

김해 은하사

허외수 최보름수 유준석 배은주
장영애 김정희 이정수 최영미
류명희 김두대성 장나은 우태준 박희자 이영수 이정희
조지성 안지창성 채상호 김홍심 박지정희 구태준 양희순
안정연희 이법선희 김수월생 김정주동 윤학심 공무진행 정금순
김미태희

성남 동광사

이운영 한순이 이영애 이준영
이영숙 김종옥 최화섭 송지영
김형수 조현숙 정혜선 정진문 정도희 서명오 채수경
윤학규 김영찬 최진욱 조일열 신광균 이덕희 조남균
최재경 김대환 김영혜 임성준 백승범 이상석 홍형원
황진욱 조용진 박현아 이진혁 임광호 유은실 함형
서선미 김형순 차경미 류창혁 서창준 최은주 김경옥
이신영 박종은 한승미 이병욱 김장원 백태훈 임건웅
전명국 신기석 주영균 이은희 최영자 문자영 이수일
염병철 지남영 공보석 한재홍 류성경 김미자 송현주
김종환 박희필 한건수 박배진 김남열 김미경 이재홍
황준규 홍석봉 이준곤 고든환 김중민 홍태석 마은오
이래연 구병주 신호철 한현이 김상현 박찬도 이효식
석용택 곽정은 조재익 표순병 심호진 이종래 구철희
이상훈 김순기 홍미연 이종관 김정진 조원용 한광수
고영경 정석우 김미영 윤현미 정혜원 김지윤

정복주

박준우 신재영 정은정 황규석 김영옥
은혜림 인지성 이선영 김지은 백은영 김수정 김혜진
허은영 한아름 문미경 서선애 김경희 김미영 김난숙
하수연 노진미 강세희 임찬희 박수현 최용산 이경민
김경수 박 일 김덕준 김명호 민진영 양세영 오은미
환대철 송명근 권광현 김지웅 이은희 서창종 조선태
김지원 정제희 김지숙 정인숙 이은희 김현정 김혜진
이은영 박정희 김미경 이은희 김현정 김혜진

천리안문화유적답사동호회

이수한 신청식 이유직 홍순상 조문경 고혁진 이종한
이용준 황정화 남재욱 박형수 장용운 이상도 양은숙
이운정 박영숙 김신웅 손양희 박영민 강용태 국현규
김동일 김은우 박영은 이선희 이재기 성명주 박도환
임대훈 이유경 임은희 권오현 은은숙 김상원 김병수
정대성 한영애 박현수 장미자 송현진 조현상 정진규
윤전영 김영순 정희영 김정택 이세락 조은승 조형승
안복례 김유수 임중진 김영희 이기남 정선영 김세진
김명순 강영철 천애정 김준석 박만아 김한미 정성일
손용식 김영수 김성진 박지연 김희경 양효승 최은진
장주희 박은정 안명준 손지수 김정희 박옥진 이승화
전애라 이승희 강성수 김현상 박정숙 서동숙 오세희
남혜진 진영희 신애자 이현효 김준영 이강훈 박상운
조재실 최진권 일선숙 이두기 최성란 김영근 김미숙
조성희 채옥병 차문성 홍현주 김선일 정은주 홍영애
이정환 김경미 이정희 이은경 김경희 이경훈 김미경
김진표 이준종 유은옥 홍장일 곽건일 주주미 고승룡
박태수 지수희 김상현 박성수 김형채 박현희 김희정
노희철 박무연 이아름 임병수 오의숙 정용철 이유선
전용주 김대석 설규환

대불청 대구지구

이한득 박사합 이광수 박진국
하영희 정숙이 장인숙 이미연
조기동 홍혁수 장대석 정석구 오상철 서영희 장순아
최수경 김효숙 정순석 김귀환 오원현 오필수 홍상식
이형곤 정경자 정경지 김낙형 방울순 정재원 정옥희
김덕형 임정순 이상진 남계현 배안식 정덕환 전수서
남칠철 이철희 노재운 정두현 김봉우 김시련 이윤호
조성년 권태우 김희분 곽영석 임희대 안동식 이원경
김형진 안지현 김경숙 김시민 황장원 권혁진 김영희
신윤식 조동희 박정자 조용숙 조용우 정도명 박재하
정수길 송종호 이산식 김미경 안계순 김봉희 고정일
박복조 서재구 김보수 김형우 이승화 오진호 이종만
이미자 김영희 김상길 최용수 오재율 최현주 이성희
이경미 이백현 현익채 하창희 박명미 이석언
유금련 정진완 김희노 배한유 박갑용 박장섭 김학모
김용택 문준일 하성훈 김영만 김광석 서정탁 유은윤
김성태 이명희 김혜기 김정수 김종한 박보영
정영미 정상철 박형서 정진명 박정혜 엄석림
서순교 위경숙 전미숙 이해영 정화재 안재순 양재열
정상봉 김병혜 임희부 송하경 문석유 차한만 송태환
조정환 최영갑 심재걸 김용재 서선희 이윤희 이하경
김병규 최영수 유현정 이동욱 유병헌 이형관 이종서
정병재 이석범 여윤경 백정원 하현선 장지현 김봉경
정유경 오선영 이정민 김현주 윤현선 치경수 최영욱
이재홍 조호연 지원근 박지연 편혜경 장지현 이세희
오지혜 이영숙 이혜성 김춘혜 정미숙 이지연 김은정
김동범 김미영 정재연 조영희 권지연 정진욱 지만주
이지연 김정수 이수영 윤주희 김주연 손성준 정규희
김성희 조관식 전성현 하경림 이현주 이종선 김민아
최선영 김지영 권정은 고수연 김주희 고은영 이혜열
홍도란 김우선 곽제민 김영은 신동우 양완직 권두혁
윤희상 이수지 박은영 최영은 이길연 권나연 김소희
정소희 장 미 손유경 이은정 조주림 허나래 김혜연
김은영 김빛나 이지연 송지은 김은정 박서연 인가영
김민정 김슬기 양원선 이유경 서지은 나은선 박종경
이희정 정지숙 박현신 우스미 복미란 이일지 엄혜진
제갈원 이상화 정희진 박수정 조상준 노루미 배영진
김태정 임지은 손성은 송경은 상수정 정기진 강유선
강지현 서인원 김혜나 김혜린 홍현천 박은경 김선이
여준주 조성경 이성수 박현정 이윤경 양지선 이진하
박신영 김하연 전현희 이화진 김양숙 김지영 김민영
이재경 전민경 김소아 신보경 이은희 정주영 조주연
정선경 박지경 노영정 유진호 김미연 안신민 김도윤
안주모 고선정 유명오 고영곤 최재필 정용화 박주희
박재열 이여기 홍재의 최영래 한승진 박재은 공정원
최안나 윤신영 서종린 이민경 김기태 변무철 나소연
배소미 이은아 김나경 송준상 박승원 채희상 홍경표
장석진 채희만 이원재 이지현 이혜진 심필섭 박인열
장은섭 한상민 홍승표 김용구 황현정 김병년 최진아
남승도 조경호 최복나 남승석 신현석 김종헌 김기남
박창섭 정서은 김창현 박지상 김민경 조성종 최서영
류연복 주효순 허지희 도 훈 구자욱 김광훈 김정현
김종선 윤석원 안중철 영문식 원정재 구영찬 강병석
강봉주 최재원 김종영 서정미 이지영 송교남 이동선
김동기 맹주곡 문희경 배선주 김미석 이성진 이용덕
류동림 황진우 신경훈 안민호 김형호 이지은 박미진
전수미 조성환 이미림 김기정 한지연 이은정 윤석진
곽희철 박홍권 김동환 조성민 김귀영 서 구 오승진
이상기 강재화 나상균 정인목 황숙혜 박형철 이양주
오승철 박규호 김경은 김효순 조준호 박연중 정연호 최동필
정 은 연남희 김경순 김준호 김종배 김은상 박지영 이은상
이재형 진승민 남창식 민경옥 성민재 최건성 이숙정
박선규 강성수 우정민 임성별 이은주 김혜성 장수연
백진석 김윤경 임지영 박수현 박혜성 박소라 구근영
김배식 이경희 구재희 신영숙 김재형 오병희 조혜원
이동현 이화연 이영은 조용태 이호영 허 준 강호진
하 현 권형석 임성지 조승현 최형심 정 현 이호숙
김영석 류일환 김기홍 이수영 이금옥 이규화 소병남
홍선희 소미란 소병기 박기법 신광철 오태형 권정후
정경성 안하진 김세라 이우도 이상근 이민우 양수비
오기환 김옥자 정윤경 김상진 김대훈 박정환 박지영
은혜원 문정석 황길하 최옥진 이주헌 김경선 이범흥
민경애 성완선 진석수 최형권 박영훈 신숙자 강병실
이상은 이기영 최종은 김태균 홍진경 최윤정 김혜녀
박진영 강태업 이기백 이호선 조상현 김형석 이관희
주대중 김옥주 황성도 박한나 윤철기 하완미 김연수
채병섭 이우경 우예승 홍호승 장미림 김혜희 김옥현
김상규 백미순 신은식 강순애 이창기 강명진 김정향
김정훈 신옥영 김옥임 백연주 장정아 한정숙 이선영
류숙희 박주형 류 정 이승미 곽윤정 강윤정 김장호
김주원 김혜연 송수연 한지희 김이옥 김광수 강영수
민정희 신창원 김용세 이심기 박정선 황대중 이민호
김남열 이창수 임선이 장병우 박 홍 윤국일 김재철
신동곤 이택규 백승옥 노동환 이로철 김형준 권오덕
김진식 이계훈 정일석 김정호 김선규 김민규 김창현
정보운 이봉선 차성식 차진숙 윤석진 신선아 박홍재
이용균 김성훈 최지영 김재희 황승환 남궁제원 박영조
이승섭 송정섭 강호림 조창희 주성욱 정병주 정대성
손재환 송승표 오현주 배국환 김기홍 류정현 윤주호
우용표 김준석 김은영 최성환 최선일 김현석 김정기
정은식 은정현 정영선 이숙경 차선화 지희영 김진호
유지연 장규언 김용원 신현준 김혜주 호정원 이은경
강승룡 권형수 김자훈 김정권 민현규 정태오 문성태
김진홍 김대수 채수원 박주열 이재연 강병권 정우철
최영희 권기한 조부기 이후준 유영희 이종철 복영두
김귀순 이경호 오지은 정구훈 홍영식 김재민 임진석
김형순 조옥연 정경화 구은영 윤주환 이병곤 오호택
김주희 임재원 박현석 김경희 이미자 정은화 김선영
김희연 장호경 한상애 이미자 정은화 오윤학 강태영
이현정 윤호전 이급석 박상웅 박선영 이선영 김선미
이지선 권수정 김용태 이성희 이지수 노수진 유현희
이병훈 박인경 이성환 이상국 이문남 김대현 신민경

새로운시대를창한모임

박진국 장준영 한승훈
최대훈 송주현 김명수
박정환 박명주 이진경 강경우 박승배 허 찬 이호철
박희진 이미향 김로사 김영아 이미숙 정현수 김지연
배진형 홍정림 김경선 이승아 조정하 윤종석 이항박
박종보 신연주 이정환

서울시립대박물관(김영란)

김윤희 김정규 백정희
지경애 강석철 우양주
허경희 조문석 박정재 안효무 김영관 김미환 백선기
박선하 이경인 전행창 강대경 전유진 홍성덕 최호성
이필자 신숙자 문귀남 김명성 박찬갑
신광식 김순경 최순자 이영창 김성열
이효순 송인순 이귀례 이귀순 김지용 이승구 이이철
이춘자 이오순 박덕남 정진희 박춘하 구현희 이춘옥
정지용 정상덕 강경수 정동은 정승은 신창림 정혜남
신상원 신성옥 이일웅 정영숙 이승덕 이유진 이유미
김경오 정영자 김상희 김상범 신현규 양재진 윤종웅
손원천 강동구 양진조 김현학 허재복 정민재 김영관
이형환 김경희 이인희 구기성 최영희 김선영 이갑택
황해신 변영선 홍성해 이광복 추은자 이호숙 이정옥
이영숙 김복순 이경자 김상범 박정숙 서동숙 이경희
이영숙 김복순 이경자 김상범 박정숙 서동숙 이경희
송경순 유미림 김영숙 이경희 이명숙 이영숙 성범순
최옥선 조남현 이창수 이근숙 박용순 이승녕 조효선
박향숙 조인혜 조주은 조진희 홍병원 김희양 김혜기
김사정 곡연필 곽준상 곽성해 곽재희 이점두 민기동
이정자 고미선 고준호 고준남 정우임 이경호 홍성녀
조택근 신수진 윤혜정 정필용 고승자 고경선 김순옥
안옥순 이진녀 허호숙 허경숙 허종숙 허승철 김육순
송순선 김병옥 유희숙 이경희 정종남 조정숙 장분순
김영한 박원우 전글자 최경찬 이양훈 오영일 동애호
김영일 이종훈 이계주 조효상 김연화 반용주 김만정
이은숙 최철호 이명구 정규영 이병석 채정열

광주 능인회

박경현 강효원 손필곤 정현주
김재성 기성하 김정호 김영재
은중필 황인석 오은교 김현배 박병학 조성구 박종운
조인태 김용효 한 국 배민석 이정훈 정종현 김정훈
조원창 이원희 김재홍 김대중 김경호 조기탁 황동연
이영형 주용현 신승욱 김우경 김창주 이재용 김창식
석승훈 허수철 전근배 이준배 김종택 오종헌 이현민
곽동현 나명수 정영대 김정훈 김재경 고정주 박인규
문지식 양승곤 김옥현 김경환 이현철 박동일 정정철
김경일 이전호 문예진 차동철 최진훈 김민찬 김진수
박국진 이근재 박준이 박정현 정대영 김순재 이용범
유용인 유관영 강주영 윤정현 전광재 박 혁 장원필
오영철 박시환 이신영 나승국 임홍준 조승범 정동운

부산여대박물관

강민화 박주현 이경희 채규돈
김경화 최인희 이영아 허연주
부인미 이영애 유정호 윤경숙 김미순
김경심 황순화 윤덕희 서순자 김은희 김경실
고성호 김종훈 김학성 이종국 이종키
김장호 김진태 오세민 정현덕 이인희 이종찬
김영석 김강식 박시용 김현철 조종래 김성지 안계갑
박종섭 이현숙 곽경민 김태형 최상국 신동수 한윤국
이재열 이맹화 이찬희 홍준기 구본화 이조원 김경남
김진수 유지연 김종훈 이인희 구기성 정상희 강신두
박정운 이윤규 이인숙 김광철 김경규 염장필 한재택
최경락 박인호 박종채 지봉근 전혁주 이윤식 윤종옥
이제종 최광남 김근희 김기준 이희정 최성진 국기호
김영한 박원우 전글자 최경찬 이양훈 오영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⑤

"후손들에게 오욕의 역사를 전할 수 없다"

김동우 강현호 선창민 신동욱 홍재용 배홍철 구광영 박현진 이승준 김대현 김경철 이용길 윤진호 오화수 김춘호 박주철 김용선 김부영 권해성 김상수 김진호 조상민 윤상채 최우식 이종민 박상우 김광중 이재희 박동진 최덕호 문승영 조창훈 김영봉 이기욱 이동련 김영팔 김재명 김종백 김종태 김진섭 김태주 남기종 문설기 문현주 박성길 박주민 박재성 박종범 석현주 손인배 신안식 심남주 양수정 오명진 원상화 임진강 이종수 김재호 이지룡 심규호 권혜철 임성준 정호범 장경원 김종석 김 한 배용용 성형석 이 준 이기혁 조태훈 황인선 이기현 조규연 임남열 이성재 남기환 김남국 이재은 오명진 오승우 이승일 이용호 이재경 이수홍 류상윤 이경현 채정희 허진수 신승원 윤언준 김홍환 홍정수 천현택 김영수 이창주 김순기 이병수 정진호 김동

불자연예인 자비행 "훈훈한 세밑"

교도소·군부대 위문공연…군법당 개원도 후원

최불암·송춘희·김흥국씨등 온정나누기 '분주'

연말을 맞아 불자연예인들의 자비실천 발길이 분주하다.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는 지난 1일과 3일 영등포교도소와 육군교도소를 찾아 수계식 및 송년법회를 갖고 재소자들을 위로한데 이어 17일 ○○대대와 24일에는 3군사령부 송년법회등 군부대를 찾아 위문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미 연예인 자비회(회장 지연)는 11일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초청,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유진씨의 진행으로 마상원 악단과 탤런트 최불암 박은수씨 등과 박정숙 오승아씨 등의 불자가수들이 출연했다. 또 연예인 자비회는 이달 말 1사단 수색대에 군법당(34평규모)을 개원할 예정이어서 더욱 훈훈한 연말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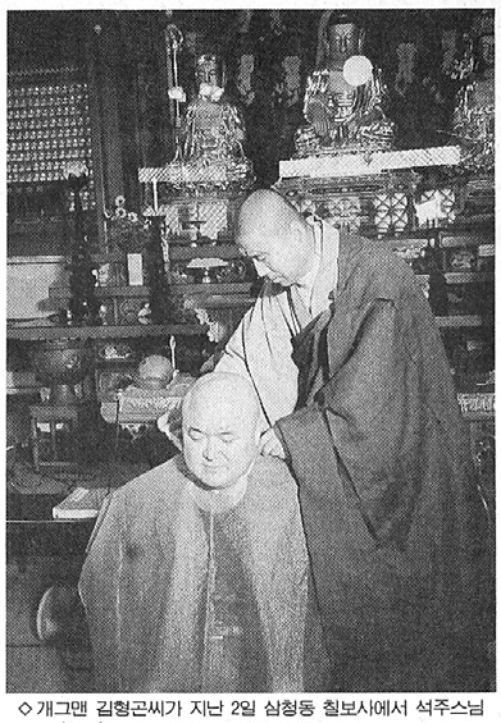
불자가수 김흥국씨는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에서 주관한 '르완다 난민돕기' 행사에 홍보맨으로 자원봉사한다.

동산반야회는 기금 2만불을 이달중으로 공노명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하고 홍보포스터도 제작하여 르완다의 실상을 두루 알릴 계획이다.

또 개그맨 김형곤씨는 지난2일 삼청동 칠보사 대웅전에서 석주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계사로 오계를 받고 '무애'라는 법명으로 참불자의 길을 갈 것을 서원했다. 삭발식 후 김형곤씨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여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할 뮤지컬 '왕과 나'의 수익금을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불자가수회와 한국연예인불교회, 불자예술인연합도 연말연시를 맞아 다채로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김원우 기자



◇개그맨 김형곤씨가 지난 2일 삼청동 칠보사에서 석주스님에게 '무애'라는 법명을 받고 삭발식을 가졌다.

천태종, 26일부터 동안거 입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는 26일부터 96년 1월 25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을해년 동안거에 들어간다.

이번 동안거에는 종단간부스님을 비롯 전국 각 사찰의 주지스님 및 종도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수보리 유치원 낙성

내년 3월 신입생 모집

태고종 관암사부설 수보리유치원(원장 혜공)은 지난 12일 종단간부스님을 비롯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 및 점안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수보리유치원은 건평 2백50평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법당 교육관 대강당 등을 갖추고 내년 3월 개원, 총 4학급 1백60여명의 유치원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개원을 앞두고 있는 혜공스님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리이타의 보살정신을 심어주어 맑고 밝은 심성개발에 전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우이웃돕기 서화전

천태종 청년회, 17일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오는 17일 서울 명락사에서 제1회 불우이웃돕기 서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춘광스님(부산 삼광사)을 비롯 종단 내외의 작가들이 출품한 1백여점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문수회장은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은 따뜻한 사랑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불우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가 소식

BBS 지방국 3~5곳 추가요청키로

불교방송의 추가지방국 네트워크 확충이 빠르면 내년초 가시화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최근 여러모임에서 불교방송의 지방국 3~4개 추가인가를 거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월주스님은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열린 불교청주방송 개국을 위한 선서화전에 참석한 불자국회의원들에게 "불교방송 추가 개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신경식 국회 문공위원장은 "소관부처인 만큼 불자로서 불방 지방국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지난 4일 "내년 4월 총선전에 3~5개의 지방국 설립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라며 "추가인가 지역국은 춘천, 전주, 대전이며 강릉, 마산 제주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방송법안 폐기

대기업의 방송 참여규제를 일부해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통합방송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기됨에따라 방송법 개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앞서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와 방송개혁국민회의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1백인 선언문'을 발표하고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참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북 종교방송 편성

대북 불교방송이 12월 시험방송을 거친뒤 내년 1월부터 첫 전파를 발사한다.

〈본지 31호 참조〉

국방부 합참 민사심리전참모부는 지난 5일 종교방송 관계관 회의를 열고 방송프로 및 북한의 종교실태파악, 종교방송 운영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모부는 참된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마음의 등불'을 금,토,일요일 시간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방송을 1일씩 순환하며 실시키로 했다.

한편 각 종교방송 관계관들은 "종교방송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갈등해소와 민간방송의 한계를 극복하여 북한주민및 인간성회복에 기여"키로 방송방침을 정했다.

축구스타 '바조' 초청

2002년 서울월드컵유치 '붐'을 조성키위해 그동안 교계에서 꾸준히 검토해온 불자 축구스타 바조의 방한이 또다시 거론돼 화제다.

2002년 월드컵유치 후원회 회장인 김흥국씨는 경비일체를 후원회에서 지원하고 공식적인 협조체널은 동산반야회에서 맡는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하여 동산반야회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동산반야회는 바조를 초청하여 종단협의회 차원으로 조계사에서 '2002년 서울 월드컵유치 성공기원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화합은 물론 대 국민포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촌 불교

한·태등 각국 사찰대표 협회결성

인도 부다가야 소재 각국 사찰 주지스님들이 '부다가야 불교도협회'를 결성했다.

지난 6일 태국계 사찰에서 결성식을 가진 이 협회는 부다가야에 위치한 사찰과 수도원간의 우호적인 관계유지와 불교 관련 문제들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단체다. 앞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갖게 될 이 협회에는 한국 스리랑카 일본 부탄 인도 태국 베트남 티벳의 사찰들이 동참하고 있다. 초대회장에는 버마의 비하나라스님이 선출됐다.

부다가야=월우 스님

"모든 인간 불성지닌 평등한 존재"

'불교와 인권' 인터넷 토론…'상호의존 선언' 발표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로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불교인권 선언문이 인터넷의 온라인 토론을 통해 발표됐다. '상호의존의 선언(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이라고 명명된 이번 선언문은 전자잡지 '불교실천윤리誌(Journal of Bud-dhist Ethics, JBE)'가 주관한 '불교와 인권'을 주제로한 온라인 토론에서 채택된 것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2주간 계속된 인터넷 온라인 토론은 토론기간내 접속건수가 1천3백50십건에 전자메일을 통한 참여도 4백여건이 넘는 등 불교와 인권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현실에서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언문에는 첫째 인간은 불교의 비폭력 불살생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둘째 인간은 인종 종교성 피부색 정치적 이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세째 모든 인간은 환경과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지 않을 책임을 지닌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JBE의 온라인 토론에서는 사회적 환경에서의 불교의 역할-태국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인권과 문화적 가치-달라이라마의 정치철학과 중국민족, 카톨릭사상에 미친 사회참여불교, 대승불교에서 바라본 불교윤리, 왜 불타는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등 다양한 내용의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달라이라마의 '인권과 우주적 책임'에 관한 1993년도 연설, 인권에 관한 UN선언문도 포함되어 있다.

加 텐린곡엔협 전자잡지 '佛門' 발간

최근 생활속에 불교를 실천하고자 발간된 전자잡지 '불문(佛門, Buddhist Door)'이 새로 인터넷에 등장했다. 이로써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전자잡지는 총25개로 불교의 일반적인 개론을 비롯하여 티벳불교 선명상 불교윤리 불교예술 등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룬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불문'은 캐나다 벤쿠버의 텐린곡엔협회(Tung Lin Kok Yuen)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불교의 기본교리, 선사들의 법문, 불교예술, 용어사전등의 코너가 마련됐다. 특히 용어사전(glossary)코너에는 산스크리트 불교용어를 영어로 풀이해 놓았고 일반인이 불교에 대해 흔히 가질수 있는 의문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목탁소리

프로그램후원회 '앞날'

김 원 우 〈취재2부 기자〉

불교방송 프로그램후원회(이하 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회장단 사퇴의사 표명이후 2개월여동안 새로운 회장단 구성등 조직정비의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회장단 사퇴의사 표명과 함께 구성된 5인대표체제도 '20인 대책위 구성' 등의 안을 내놓았으나 아직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원회는 5인 대표체제로 이끌어지고 있는 가운데 뒤늦은 진통까지 겪고 있다.

특히 후원회의 중심이 됐던 정목스님이 사퇴와 관련 "이해되지 않는 일로 계속 저지당하고 방해받아 왔으며 도저히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사퇴를 결심했다"며 "후원회를 계속 결성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힌 해명내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정목스님의 사퇴가 타의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후원회의 명칭변경과 사업확대 방안은 일부회원들에게 '후원회가 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 두달여동안 5인 대표들이 새회장단 구성에 어떠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후원회를 해체하여 다른 조직으로 체질변경시키려는 명분축적의 과정이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후원회가 불교방송이 있으므로 해서 생긴 단체이므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들때의 취지가 순수했던 만큼 후원회의 목적을 변경하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속에 '새로 구성되는 후원회에서 더 열심히 포교의 장을 열어달라'는 회장단 사퇴의 변이 지금은 무색해질 정도로 존속여부까지 거론하는 5인대표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의아스러움을 자아낸다.

사퇴한 회장단스님들은 3천5백여명의 불자들이 보여준 '무주상보시'의 거룩한 마음을 소중히여겨 본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새회장단을 구성한 후 물러나는 것이 바른길이란게 불교방송과 관심있는 이들의 주문이다. 이런만큼 후원회는 해를 넘기기전에 신임회장단을 구성하여 본래 목적인 불교방송 프로그램 후원의 보살도를 걸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명위기 섬마을 형숙양에 광명을 되찾아 줍시다"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 남해군 창신면 창신리에 살고 있는 장형숙 어린이(11세). 섬마을 어린이 형숙양이 불의의 사고로 눈을 크게 다친 것은 불과 2개월여전. 어디서 날아 왔는지도 모르는 흉물에 두 눈을 맞았으나 상처가 심해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새생명 광명회 김기원 회장은 장양을 경상대 의대병원에 입원시키고 2차례의 수술을 주선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두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그나마 실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 든 장양의 부모는 넋을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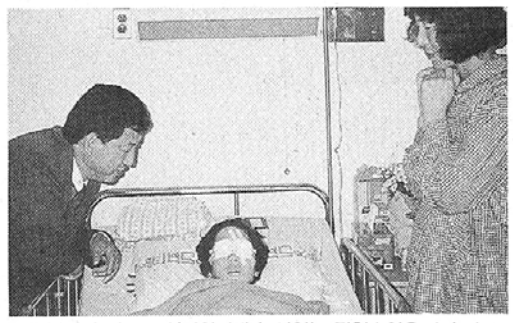
어촌사정에 1천만원이나 하는 수술비를 감당할 방법도 없으려니와 실의에 빠진 장양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못해 새생명 광명회가 장양에게 광명을 찾아주고자 여러 독지가의 도움을 구하고 나섰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섬마을 어린이 장형숙양. 장양이 다시 밝고 맑은 눈을 되찾아 씩씩하게 뛰놀며 그래도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온정이 필요한 때다.

새생명 광명회 (0591)751-3384

농협 803-01-344384 (김기원)



◇ 불의의 사고로 실명위기에 놓여있는 장형숙양은 수술비 1천만원이 없어 실의에 빠져있다.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청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포교에 수익금 환원"

서울농대 대불련동문들 입시학원 개설…불서보급 지원

서울농대 불교학생회(이하 농불회)출신 동문들이 수익사업을 통한 불서보급에 나섰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농불회 동문회(회장 이종기)소속 김재은(81학번)씨와 오규식(83학번)씨. 이들은 동문들의 적극후원으로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입시 전문 '용문학원'을 개설했다.

용문학원이 여느 입시학원과 다른 것은 개원 동기가 색다르다는 것. 어려웠던 불교학생회 시절을 잊지못한 농불회 출신 동문들이 더 나은 포교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자고 발원했기 때문이다.

"우리주변에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음지에서 꿋꿋하게 포교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불자들이 힘을 모아 수익사업을 펼쳐 이익금으로 이들을 돕는다면 더할나위가 없겠지요. 이것을 실현하기위해 동문들이 뜻을 모아 학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후 청년불교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재은씨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초기경전을 한글화하는 선배를 돕기위한 방안을 모색하던중 수익사업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침 강남에서 7년째 유명강사로 활동하던 후배 오규식씨를 설득하게 되었고 동문회의 재정지원으로 1백80평규모의 학원이 마련됐다.

서울대 농대에 불교학생회가 창립된 것은 70년대 초반. 대불련 역사로는 짧은 기간이지만 법우들간의 우의는 가족이상이다. 선후배간의 존경과 우애가 졸업후에도 끊이지 않고있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1백여명의 동문들이 해마다 3~4차례는 사찰에서 수련회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10여년을 이어오다보니 모두들 보람된 일을 하자는 마음이 일게 되었고 김재은씨와 오규식씨의 원력에 동문들이 선뜻 합류하게 됐던 것이다.

"용문학원은 단지 사업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이 강남에 비해 교육적으로 낙후된 곳이지만 최고의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또다른 바램입니다."

강남 최고강사라는 자리를 미련없이 떨쳐버리고 용문학원으로 달려온 오규식씨. 그는 "낮이면 빈 강의실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강좌나 회의실로 무료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통신교육등을 전개해 지역발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심과 젊은이의 패기로 개원된 용문학원은 적막한 불교재정에 '수익금의 재투자'라는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준엽 기자



◇서울농대 대불련 동문 김재은씨(왼쪽)와 오규식씨(오른쪽 두번째)가 입시전문학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불교포교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계종 최초로 열린 특별계단 수계산림에서 1백14명의 스님들이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어사=박병근 기자〉

승려교육기록부 인사반영

조계종 교무국장회의 기본교육 입방의무화 결의

내년부터는 종단지정 기본교육기관이 비구·비구니 각각 4개로 정비 개편되며, 전 승려의 교육기록부가 의무화되어 주요 인사자료로 쓰여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지난 1~2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열린 전국 본사 교무국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중앙연수원 부지확정 및 설계도 마련 △3~5개의 학림 설치 △어산학교 개설 △전문강사 양성 △법계고시 실시 △연수강화 △국내외 장학생 선발 지원 등을 내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승려 기본교육기관은 삼보사찰의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확립 개편하며 군소 지방승가대는 학림으로 개편, 학림은 전국 유수 사찰중 학풍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사찰을 지정 육성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절대 부족한 강사양성을 위해 직지사 등에 특수학림을 설치 30명 정도(비구 20, 비구니 10)를 집중 지도해 전문강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본사 교무국장 18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교구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 심의 결정하는 교구 교육위원회 구성과 사미(니)계 수지 후 기본교육기관 입방 의무화를 결의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덕문)도 △국제심포지엄(가을 예정, 주제 '세계 공동체 소의경전과 수행체계 현황') △한국불교 사상사 정립 △교육관련 세미나 △교육용 비디오 제작 △교학연구 활성화 등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했다.

조계종 특별계단 1백14명 구족계

조계종 단일계단 수계산림 이전에 사미(니)계를 받은 만 40세이상 스님 중 지금까지 비구(니)계를 받지 못한 스님을 대상으로 한 특별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돼 1백14명(비구 90명, 비구니 24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했다.

일타 전계대화상을 비롯 승찬(송광사 방장), 정관(범어사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수계산림은 첫째날 수계자 심사를 거쳐 둘째날에는 수계 고불식, 포살(108참회) 그리고 마지막날은 회향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계산림의 최고령자는 강릉 삼덕사의 박도홍스님(80세)이다. 〈관련인터뷰 4면〉

구로복지관 운영맡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지난 1일 서울시로부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로 선정됐다.

구로공단 지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대규모로 운영은 설악산 신흥사가 맡는다.

"전자계산원·의료사업등 활성 추진"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 재임 기자회견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은 지난 1일 이사장실에서 재임 기자회견을 갖고 동국학원 발전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녹원스님은 △전자계산원 활성화 △초·중·고교 활성화 △제3캠퍼스 건립추진 △경주병원 증축, 포항병원 이전 등 의료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동국학원 발전 기획안을 밝혔다.

발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수익사업으로 경주병원 일대 부지 1만1천평에 법당, 선실을 갖춘 의료휴양시설을 콘도형으로 건립 분양하며 오대산 지역 4백5십만평에 연수원 건립, 생수회사(가칭 오대산 동국생수) 등을 유치해 교육재정을 확보한다는 것.

이밖에도 녹원스님은 "2천6년까지 일산 제3캠퍼스 건설 완료, 정부의 교육개혁에 따른 산하 초·중·고등학교 활성화, 경주 불교유치원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풍참사 희생자등 합동 천도재

삼소회, 20일 佛放법당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성직자 친목모임인 삼소회가 '재난 사고 피해 및 5·18 희생영령 합동천도재'를 오는 20일 불교방송국 3층 법당서 봉행한다.

이번 천도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 등 각종 사고 희생 영령들을 천도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천주교 김몽은 신부, 원불교 서울교구청 장응철 교무 등이 참석한다.

보문학원 법당준공 천불봉안법회 봉행

학교법인 보문학원(이사장 덕혜스님)은 지난달 24일 교직원 학생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법당 준공식 및 천불봉안법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안양 보장사 신도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불사를 시작 1년여만에 준공된 대법당은 1백20평의 규모에 석가모니부처님을 본존불로 뒤편에는 20㎝ 높이의 천불이 자리하고 있다.



◇한중일 불교 대표들은 예비회의를 갖고 내년 서울대회의 주제와 일정을 확정했다. 〈고영배 기자〉

7일 동안거 입제

전국사찰 3개월간 수행

불기 2539년 동안거 결제가 전국 사찰에서 지난 7일 일제히 입제됐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비롯 제방선원의 조실스님들은 안거에 앞서 법어를 내렸다.

이번 동안거는 96년 3월4일 해제한다.

구독신청: 737-0693

"선학원 탈종단 멈추고 정관 따르라"

월주 총무원장 성명…18일 분원장 초청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4일 '선학원 분원장 및 선학원 산하 사암에 거주하는 조계종도에게 고함'이란 성명서를 통해 "선학원은 조계종의 종지를 봉대한다는 뜻을 떳떳이 그 정관에 천명하고 이사의 3분의 1은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추천하는 조계종 중진원로로 구성할 것"을 재촉구했다.

월주스님은 이어 "선학원은 법인이라는 제도적 특수성을 빙자해 탈종단화를 기도하지 말 것"이라 경고하며 선학원이 종단의 조치를 수용한다면 선학원의 자율성과 제도적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학원이 이러한 종단의 요청을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종단으로서도 더 이상의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종헌종법을 수호하기 위해 탈종을 기도하는 주도자들을 의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2면〉

한편 조계종산하 법인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우)가 주관하는 선학원 분원장 초청간담회가 오는 18일 오후3시 열린다.

11일부터 두차례 실시 조계종 주지 보충연수

조계종 교육원은 본말사주지 연수회 불참자 보충 연수교육을 1차(12월 11~13일), 2차(12월 14~16일)로 나눠 화성 신흥사에서 실시한다. 1차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 2차는 호남·영남권의 불참자 주지스님들이 그 대상이다.

직지사 진입로 폐차장 허가

신도·주민 "유적·환경 훼손 우려" 취소 요구

무분별한 공단조성등으로 불교문화유적 훼손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스님)는 사찰 진입로 입구에 폐차장 허가를 내준데 대해 진정서를 내는등 김천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지사측은 지난 1일 김천시장을 방문 폐차장 부지 이전과 일반공업지역을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사찰측과 신도들은 당국이 직지사 진입로 입구인 대항면 복전리 일대 5천4백여평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2개 정비공장을 입주시킨 것은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이며, 여기에 시당국이 지난 8월 또다시 이 지역에 폐차장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라시대의 고찰로 유명한 경주 원원사에도 인근에 공단조성을 위한 벌목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원원사지(사적 46호)등 문화유적이 훼손될 처지에 놓여 있어 원원사측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찰도 청소년 포교 '사각지대'

조사대상 2315곳중 334곳만 학생회 운영

조계종 포교원 '불교청소년의 해' 기획위원회 조직분과(분과장 우인보)가 전국 15개 시도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청소년 신행단체) 실태파악에 이어 지난 2일 2천3백15개 사찰의 불교학생회 운영현황을 최종집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2백53개 사찰 중 79개 사찰, 부산 49/106, 대구 16/92, 인천 7/173, 광주 11/34, 대전 4/10, 경기도 19/271, 강원도 12/134, 충북 13/82, 충남 17/185, 전북 11/160, 전남 10/154, 경북 42/410, 경남 36/187, 제주도 64개 중 8개 사찰이 불교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 2천3백15개 사찰 중 3백34(14.4%)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15개 시도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실태조사에 이어 또한번 청소년포교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포교원은 이번 학교·사찰 불교학생회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표면화됨에 따라 청소년포교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재) 한국청소년포교후원회(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선우즐거운봉사단' 27일 창단

청년불자로 구성…21일 주몽재활원 첫활동

불교자원봉사의 새 장을 펼쳐갈 교계 최초 청년불자들로 구성된 '선우즐거운봉사단(단장 이성훈)'이 오는 27일 창단된다.

선우즐거운봉사단은 지난 여름 우리는 선우에서 주최한 경주문화캠프에 함께 한 서울시내 사찰의 어린이·청소년 법회 지도자들이 의기투합, 우리는 선우의 지원으로 창단에 이르게 된 것.

현재 법안정사, 혜원정사, 금강정사 등의 지도교사들과 우리는 선우 학생회 회원등 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창단과 함께 선우즐거운봉사단은 청년불자다운 새로운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의 하나로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캠프'와 군포소년원 불교반 50여명과 함께 하는 '군포소년원 겨울불교학교'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우즐거운봉사단은 창단에 앞서 오는 21일 주몽재활원서 첫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우즐거운봉사단은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정기교육과 법회를 통해 자원봉사의 토대를 신심으로 다지고, 보다 건강하고 조직적이며 패기 넘치는 푸른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상임대표에 혜담스님

선우도량, 운영체계 강화

선우도량(공동대표 현봉 혜담 도법스님)은 지난 1일 대전 유성에서 제2기 4차 실행선우 모임을 갖고 상임대표에 혜담(각화사 주지) 사무처장에 현각스님(성불원 주지)을 각각 위촉했다.

또 선우도량은 회원총회와 실행선우모임등의 정례화, 안정화를 통해 기본운영체계를 강화키로 했으며, '조선 불교계의 항일운동'등 4개 사업에 대한 한국불교근현대사 연구회의 자료집 발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선우도량 제 10차 수련결사는 내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다.

경주 남산 '쓰레기 몸살'

불법분묘도 2만여기…성지보호대책 절실

신라 불교문화의 보고 경주 남산(사적 311호)이 불법 분묘와 쓰레기로 인한 훼손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경주발전정책연구소는 7백50여만평의 남산에 3명의 감시원으로는 행락객이 버리는 쓰레기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감시원 증원과 안식년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간을 이용한 불법 분묘조성도 매년 급증, 현재 2만여기에 달해 감시원 증원과 안식년제 도입 외에도 입장료를 부과 남산보호에 투자하는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다.

현재 남산에는 1백13개소의 절터를 비롯 불상 79개, 석탑 63개등 3백30여곳의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다.

내년 한중일 불교대회 서울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정 확정 세계난민구제 협력기구 등 제안

제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내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간 서울에서 '21세기를 주도할 한중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한중일 3국 불교대표(수석대표 방지하, 신재부, 고바야시 류쇼)들은 지난 2, 3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예비회의를 갖고 대회 일정과 주제를 확정했다.

또 한국측이 제출한 제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선언문 초안은 이후 각국 연락위원회간에 상호연락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선언문 초안에는 '부처님의 이타사상과 자비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의 올바른 이념과 사상을 제시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한중일 3국은 인류의 화평과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불교적 역할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또 세부실천 사항으로 △문화·학술교류 △인력교류 △정보교류 △상호간의 참관방문 △세계불교도들과의 교류 △환경과제에 대한 3국의 불교적 모색 △세계난민구제 사업을 위한 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전문직종 포교 활성"

부산불교신도회 세미나

의료, 법조인 등 전문직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직장포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백영(변호사), 강부호(대한선도회장), 강복조(포교사, 대도고속 상무)씨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직장포교와 전문직업인 포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열띤 논지를 펼쳤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과 혜총(범어사 부주지)스님, 김무조(前경성대 대학원장)씨의 총평으로 진행됐다.

사무처장에 이상현씨 조계종신도회준비위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 준비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1일 음식점 초향에서 확대회의를 갖고 사무처장에 이상현교수(동국대)를 선임했다. 송월주총무원장을 비롯 신행단체장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위원장단, 상임위원, 준비위원을 추가키로 결의했다.

한편 신도회 준비위는 오는 14일 조계사내 문화교육관에서 준비위원 총회를 갖고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준절차를 마무리한다.

사단법인 추진등 내년사업 확정

불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각현스님)는 20여 회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삼정호텔서 총회를 열고 △회원단체 및 시설현황 파악 △회원단체 및 시설종사자 연수 교육 △사단법인 신청허가 △불탄일 기념 '불교사회복지축제 한마당' △분기별 불교복지신문 발간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등 9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내년 1월경 사회복지신문을 발간하고, 구정을 전후로 자선바자회를 열 계획이며 불교복지 대중화를 위한 대형콘서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 각현스님은 "불교사회복지단체의 교류와 유대강화를 통해 96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의 전화 '불교 114' 서비스번호 (02)7300-108

불자들에게 불교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될 자비의 전화 불교114가 (02)7300-108번의 전용 서비스회선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자비의 전화는 지난 2일 녹수청산서 개통 5주년 기념 일일찻집과 함께 불교 114시연회를 갖고 전국 1만5천여개 사찰의 기본 정보와 불교복지관, 복지단체, 불교단체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는 최근에 확인작업을 거쳐 입력한 최신 자료들로써 자비의 전화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비의 전화는 장기적으로 각 사찰·단체와의 정보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불교114 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상조(相助)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개인이 우월해지니…

고대문자중에 ' '라는 문자는 私(개인)라는 뜻을 가진 문자이다. 私라는 속뜻에는 간(姦)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원래 남자가 여자쪽으로 혼인하여 가서 처가의 자매에 의해서 私라고 불리웠다는 학설이 있다. 또한 私라는 풀이로 중첩상위지사(衆妾相訌之詞)라고 옛날 사람들은 규정지었다.

여기서 나는 개인(私)은 대중과 더불어 서로 조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운명을 타고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다. 서로 본다는 뜻으로 '見'의 고대문자는 ' '로 표시되어 왔던 것인데 요즘엔 私(개인)가 너무 우월해져 가면서 문제가 심각해 지지 않나 생각해본다. 스스로 자신을 균형있게 관리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런지 무심결에 그려본 그림이 상조란 그림이다. 늘 인간의 근원과 생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작품주제로 삼고 있는 나는 작금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한 생각을 해보면서, 여씨춘추에 나오는 치천하당무사(治天下當無私)란 말의 가치를 음미해 본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행동규범을 분석해 본다.

언젠가 노 전대통령은 흐르는 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얘기한걸로 기억된다. 정말로 물처럼 살았던 것 같다. 그러나 거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은 자유롭게 모습을 바꾸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어느누구와 다투려 하지 않고 점점 커져가면서 거대한 힘을 감춘다. 이렇게 흘러가는 물의 철학을 노태우씨는 몸소 실천하였던 것이 그만 '물태우'가 되어버린 형국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일찍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흐르는 물에 비추어 보지 말고, 정지한 물에 비추어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보라'라고 노자는 설파 한것이 그 유명한 명경지수(明鏡止水)란 명언이 아닌가!

왠지 자꾸만 허탈해지는 요즘, 비자금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완성된 상조라는 작품을 보면서 새롭게 생성될 그 무엇에 기대를 하여본다.

박오서 (회가)

주부신행담

인연 ㊦

나는 결혼과 더불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중학교 다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간 적이 있다. 그러나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결혼과 더불어 남편과 시댁을 통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절에 다니게 되면서 마치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따스함을 느끼고 있다. 도량에 들어서면 부처님의 인자하신 웃음이 반겨준다. 부처님을 우러러 삼배하고 나면 마음이 포근히 가라앉는다. 더없이 편안해 지는 것이다.

나는 33세라는 늦은 나이에 중매로 동갑인 남편(이상번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과 결혼을 했다. 남편은 첫부인과는 사별했다. 첫부인과의 사이에는 아들 '동엽'이를 두었다. 결혼을 하고보니 집은 전세집이었고 4대 7명이 한데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다. 남편은 종가집 종손으로 시부모님과 98세의 시할머님 그리고 지금은 결혼한 시동생 두명과 아들이 있었다. 시동생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남편은 지금도 그렇지만 집안생활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오로지 불교활동만 하는 사람이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옴과 동시에 나는 한 자식의 엄마가 되었다. 처음 보는 순간 동엽이가 나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경이로움을 느꼈다. 나는 동엽이를 껴안으며 내 친자식처럼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동엽이는 나를 친엄마처럼 따르며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 한다.

남편은 대불청 회장 외에도 대한불청 대구지부장을 2회 역임했고 보현사 청년회장을 3번 역임하는 등 불교청년운동에 일생을 바쳤고 앞으로도 바칠 사람이다. 불청운동으로 전국 곳곳을 다니느라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다.

결혼 후 10년동안 월급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없다. 월급은 몽땅 불교청년활동에 쏟아넣는 것이다. 사실 월급 문제로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다. 빈 봉투를 보니 눈앞이 캄캄해 돈을 왜 안가져 오느냐고 싸움도 하고 바가지도 긁고 했지만 남편의 굳건한 신심에 그만 손을 들고 말았다. 남편은 매주 1~2일은 꼭 보현사에서 철야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10년동안 월급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없었다
나는 남편이 빠져있는 불교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겠다는 '발심'이 섰다



우리집은 98세 되시는 시할머님을 비롯 시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독실한 불교신자이다. 1백세를 눈 앞에 둔 시할머님은 손에서 염주를 놓은 적이 없다. 언제나 손으로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염한다. 비교적 건강하고 정정하신 것이 부처님의 돌보심이라고 늘 감사해 하신다. 시어머님 역시 새벽에 일어나시면 염불과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신다. 아들 동엽이도 서봉사 어린이회 출신으로 사찰에 열심히 나간다.

이분들의 돈독한 불심이 나를 불교로 이끌었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자금까지 별탈 없이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해 올 수 있었다고 여긴다.

아무튼 남편이 월급을 집에 가져오지 못하자 나는 결혼 초부터 어쩔 수 없이 직업전선에 나서야 했다. 인쇄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타를 했다. 운영이 어려웠지만 악착같이 노력했다. 부처님의 가피인지 그다지 큰 곤란없이 인쇄소 일이 잘 풀려 나갔다. 컴퓨터가 본격화되면서 컴퓨터를 도입했다. 잘 될때는 직원을 3명까지 둔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불경기가 심해 나 혼자서 하고 있다.

살림하랴, 인쇄소 운영하랴 나 자신도 바쁘고 남편은 불교활동에 바빠 한집에 살아도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 때가 많았다. 그러자 회의가 생겼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라고 했는데 남편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활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 것이다. 남편이 푹 빠져있는 '불교'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겠다는 이른바 '발심(發心)'이 내게 슬그머니 들었다.

허위화 〈대구시 북구 관음동〉

♦ Thou professest to be a ploughman, and yet we do not see thy ploughing ; asked about (thy) ploughing, tell us (of it), that we may know thy ploughing.

수행자여 그대는 농부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가 밭가는 것을 보지 못했나니, 당신이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 Bhagavat answered : Faith is the seed, penance the rain, understanding my yoke and plough, modesty the pole of the plough, mind the tie, thoughtfulness my ploughshare and goad.

스승이 대답했다. 나에게는 신앙이 씨앗이요, 고행은 비다. 그리고 지혜는 내 멍에며 쟁기요,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그 쟁기의 자루다. 또 곧은 마음은 쟁기를 때는 밧줄이요, 매사에 생각이 깊은 것은 쟁기의 보습이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⑲

♦ I am guarded in respect of the body, I am guarded in respect of speech, temperate in food ; I make truth to cut away (weeds), tenderness is my deliverance.

몸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말없이 진실을 자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를 멍에에서 떼어놓는 일이다.

♦ Exertion is my beast of burden ; carrying (me) to Nibbana he goes without turning back to the place where having gone one does not grieve.

노력하는 것이 내 멍에를 맨 소이며, 이 소가 마침내는 니르바나의 저 언덕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물러서지 않고 굳게 나아가서 니르바나, 저 언덕에 이르게 되면 근심과 걱정은 더이상 없게 된다.

*thoughtfulness 사려깊음.
*respect 존경, 존중하다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바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불자주식공모안내

불교TV 주주불자님께는 이렇게 보답해드립니다.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께는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배당은 물론, 앞으로 불교TV에서 개최하는 교양대학, 문화강좌, 국내외 성지순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는 특전을 드리며 각종 방송의 성과물들도 영가께 보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불사 지금이야말로 불자님들의 성원이 절실합니다

개국한지 열달도 안된 지금 불교텔레비전은 이미 43만여 가구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종교방송들에 비해 훨씬 높은 시청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그 발전과 활약상이 눈부십니다. 풍부한 불교문화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초기의 투자재원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불교텔레비전이 펼쳐나갈 미래는 끝이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초기에는 경영여건이 어렵기 마련입니다만, 불교텔레비전의 경우 케이블TV 가입시청 가구수 100만에 이르는 96년말까지가 고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불자님들의 성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이 원력불사에 많은 분들이 주인으로 동참하셔서 선근공덕 지으시기를 두손 모아 당부드립니다.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定岳 泰應 합장

불교TV 주식청약 안내

- 청약기간 : 1995년 12월 1일 ~ 1996년 2월 28일(90일간)
- 청약지로용지교부처 : 전국 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 청약한도 : 1인 20주(10만원) 이상
- 청약요령 : 교부받은 지로용지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신 후, 은행이나 농·수·축협의 99번 지로창구에 납입금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불교TV본사 : (02) 3270-3476~9
  부산지사 : (051) 645-5114

btn 불교텔레비전
본 사 :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근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팩스 3270-3498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동양빌딩)
전화 (051) 645-5114 팩스 631-1772